

영화 선사의 불설 아미타경 강설



요흥 시대 중 구마라집 삼장 법사가 중국어로 번역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의 영어 번역물을 기반으로 영화 선사 강설

한국어 번역: 상욱 스님(2022년) / 편집 및 교정: 현안 스님

SPECIAL ACKNOWLEDGMENT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 기술된 부처님 제자에 대한 해설은 대부분 선화 상인의 설명을 인용하였습니다. 그의 해설을 전반적인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에서 출판된 선화 상인의 책을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에서 아미타경을 영문 번역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영화 선사 (Master YongHua)

2012년 7월

[영화 선사의 한국 도량]

청주 보산사 寶山寺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377 (우) 28172

Tel: 070-8860-3770 / Email bodhlightkorea@gmail.com

분당 보라선원 寶螺禪院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20 그린프라자 2층 보라선원 (우) 13595

Tel: 031-714-5171 / Email: jcseoncenter@gmail.com

[영화 선사의 미국 도량]

위산사 滙山寺 Wei Mountain Temple [남가주]

7732 Emerson Pl, Rosemead, CA 91770, USA

Tel: (626) 766 - 1009 / info@chanpureland.org

노산사 廬山寺 Lu Mountain Temple

7509 Mooney Drive, Rosemead, CA 91770, USA

Tel: (626) 280-8801

금림사 金林寺 Gold Forest Chan Meditation Center [실리콘벨리]

796 Delmas Ave, San Jose, CA 95125, USA

법장사 法藏寺, Dharma Treasury Temple [샌프란시스코]

3201 Ulloa St, San Francisco, CA 94116, USA



아미타 부처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목차

들어가며	1
동양불교의 오종	1
번역가	3
천태종의 오종현의	8
석명(釋名)	8
변체(變體)	13
명종(明宗)	14
논용(論用)	28
판교(判敎)	29
서분	34
신성취(信成就：如是)	34
문성취(聞成就：我聞)	36
시성취(時成就：一時)	37
주성취(主成就：佛)	44
처성취(處成就：在舍衛國)	44
중성취(衆成就：與大比丘)	46
장로	52
사리불	52
마하목건련	54
마하가섭	57
마하가전연	62
마하구치라	63
이바다	63
주리반타가	63

난다	66
순다아난다	67
아난다	68
라홀라	69
교범바제	70
빈두로파라타	71
가류나제	72
마하겁빈나	72
박구라	73
아누루다	74
보살	75
문수사리	76
아일다	79
건타하제	79
상정진	80
석제	81
정중분	83
<hr/>	
믿음과 기쁨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토의 정보와 의보의 장엄에 대해 설명함	83
정토의 수승한 이점을 강조하고 서원을 세울 것을 권함	138
수행도를 보이기 위해 염불의 이점을 드러냄	153
의심을 단절하기 위해 부처님의 찬탄을 인용함	170
부처님이 이 희귀한 공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자애를 이해시킴	194
유통분	202
<hr/>	

들어가며

불교의 5대 종파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은 일반적으로 소아미타경(小阿彌陀經)이라고 합니다. 이 경은 불교의 5대 종파의 하나인 정토불교의 주요 경전입니다. 5대 종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율종 / 2. 선종 / 3. 밀종 / 4. 교종 / 5. 정토종

율종은 도덕의 공부와 행을 강조합니다. 재가자들은 삼보에 귀의한 후 5계, 8계, 보살계를 받습니다. 재가자들의 도덕의 기반은 5계입니다.

1. 불살생: 사냥은 물론이고 개미도 죽이지 않습니다.
2. 불투도: 훔친 물건을 사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3. 불사음: 배우자 외에 부정한 정교를 맺지 않습니다.
4. 불망어: 불화를 일으키는 말도 포함됩니다.
5. 불음주: 술, 담배, 약 등을 포함합니다.

출가자는 사미와 사미니 10계, 식차마나니계(式叉摩那尼), 비구계, 비구니계, 보살계를 받습니다.

계를 지키면 삼매가 생깁니다. 삼매로 지혜를 열고 과위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승(히나야나라고도 알려짐)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테라바다 불교라고도 자주 불리며, 소승은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서유럽과 같은 국가에서 매우 대중적입니다.

선종은 선정의 개발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산란한 마음에서 색계의 사선, 아라한의 구정 등에서 여래의 선정까지 쭉 진전할 수 있습니다. 선 수행자는 오정심五停心으로 수행을 시작합니다.

1. 부정관不淨觀: 몸의 부정을 관하여 탐욕을 줄이고 날뛰는 마음을 멈춥니다.
2. 자비관慈悲觀: 자비는 화와 분노에 대응하여 날뛰는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3. 인연관因緣觀: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십이연기十二緣起를 관하여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날뛰는 마음을 그칩니다.

4. 수식관數息觀: 호흡을 셈으로써 산란한 마음을 극복하고 날뛰는 마음을 멈춥니다.

5. 염불觀念佛觀: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여 장애와 업보를 근절하고 날뛰는 마음을 멈춥니다.

여래선如來禪을 얻을 때까지 선정을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계발해 나갑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그의 견처를 물었습니다. 제자가 이르길 “작년에 저는 매우 가난해서 국자가 저의 유일한 소지품이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물을 뜨는 국자. 중국이나 일본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저는 너무 가난해서 국자조차 없습니다.” 이는 작년에 제자는 여전히 국자에 대해 집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를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하기 이전에 그는 영적인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올해 그는 국자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래선을 통해 얻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선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널리 수행됩니다.

밀종은 진언비밀의 법眞言祕密之法을 사용합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비로자나성불경毗盧遮那成佛經과 금강정경金剛頂經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다라曼荼羅를 세우고 삼밀三密과 삼업三業이 상응할 때까지 만트라를 수행하여 부처가 됩니다. 중국과 일본에도 또한 밀종이 있습니다. 티벳에서는 밀종이 전문적으로 수행됩니다.

교종에서는 이론의 연구와 이해를 강조하여 삼장을 연구합니다. 삼장은 율장(도덕규범과 위의), 경장(부처님의 설교), 논장(부처님의 깨달은 제자들의 해설)입니다.

본래 타고난 지혜(根本智)를 열기 위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종파에서는 신도들에게 종파의 이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종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교종은 지혜가 진정으로 열릴 수 있기 이전에 선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른 종파의 훈련기술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토종은 우리 시대에 특히 동양에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정토종은 정토의 왕생을 주창합니다. 정토는 사바세계와 달리 수행의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정토에 가면 한 생애 불도를 성취하고 무서운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납니다. 대개 사람들은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위해 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토 수행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는 많은 정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약사경에서는 약사불의 정토가 동쪽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륵부처님의 정토 또한 도솔천의 내원에 존재합니다.

정토의 법은 상근기, 중근기 또는 하근기이든 상관없이 모든 범위의 중생에게 적합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정토불교를 서양에 소개하면서 정토불교에 대한 혼란과 많은 오해를 바로잡길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옛 사람들은 정토삼부경(불설아미타경, 광경, 무량수경)을 정토의 가르침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 가지 불경(화엄경 제40장의 보현행원품, 능엄경의 대세지보살염불원통장)을 추가하여 정토 오경이라고 합니다.

정토의 가르침 가운데 불설아미타경이 가장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또한 가장 많이 염송되는 경입니다. 염송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재된 이치는 심오하고 가늠하기 어려워 믿음을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에 여기서는 가르침의 깊이와 정신은 보존하면서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여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번역가

요흥 시대의 삼장법사 구마라집(또는 구마라지바)의 한문 번역본

삼장법사: 1.삼장의 스승 / 2.법을 중생에 설명함

네 부류의 법사가 있습니다.

1. 경을 강설하고 법의 이치를 논하여 법을 강해講解하는 법사
2. 경을 독송讀誦하는 법사
3.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경書寫하는 법사
4. 경을 수지受持하는 법사: 마음으로 경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몸으로 행합니다.

모든 불경의 목적은 중생들이 진정한 이치에 깨어날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생의 자질과 상황에 따라 이는 네가지 실단(悉檀(남김없이 베풀다))을 통해 성취됩니다.

1. 세간실단(世間悉檀): 세속적인 수단을 베풀어 중생이 복과 이익을 얻습니다. 특히 정토와 아미타불에 대해 들었을 때 중생은 행복함을 일으킬 것입니다.
2. 대제실단(對制悉檀): 특정 문제에 대처하여 중생이 악을 근절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관법은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 전해집니다. 생각 생각에 가르침 대로 실행하여 몸과 입의 악업을 제거합니다.
3. 위인실단(為人悉檀): 중생은 이 법문을 들은 후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발합니다. 왕생하기 위해 부처님 명호를 염하기만 하면 됩니다. 위인실단은 많은 선근과 공덕의 인연이 됩니다.
4.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 이 마지막 종류의 실단은 일체중생과 궁극적 진리를 공유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이치에 들어가는 이로움을 얻습니다. 이 법은 염불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쿵푸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들은 주된 의미에 깨어나고, “이치 속 일심불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어번역본은 삼장법사 구마라집의 한문 번역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마라집의 삶은 중국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여진(姚秦(344-413 A.D.))은 황제 요흥(姚興)의 재임 시기를 의미합니다.

법사 구마라집의 부친의 이름은 구마라염으로 재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구마라집의 부친은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재상이 되는 대신에, 출가하여 스승을 찾아 다녔습니다. 정식으로 계를 받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수행자였습니다. 중앙 아시아 구자국에 이르렀는데, 구자국 왕의 어린 여동생이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왕의 칙령으로 혼인을 하였습니다. 구마라염은 궁정의 관리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곧 잉태를 했습니다. 사리불의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구마라집을 잉태한 그녀는 논쟁에서 모두를 이겼고, 한 아라한은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확실히 위대한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구마라집을 출산했습니다.

구마라집은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하루에 36,000 이상의 단어를 외울 수 있었고 이틀만에 법화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곱 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큰 강철 향로를 가볍게 머리 위에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일 뿐인데, 어떻게 이 무거운 향로를 들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향로를 떨어뜨려서 "만 가지 일이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반대하자 어머니는 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6일 후 어머니가 거의 죽기 일보직전에 이르자 아버지는 마침내 허락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단식을 풀기 전 삭발을 청했고, 그게 그녀를 수다원으로 증득하게 해줬습니다.

곧 그들은 둘 다 출가하였습니다. 구마라집은 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비상하였습니다. 12살 때까지 그는 계빈국 罽賓國에서 반두달마법사 槃頭達多法師 아래서 소승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그를 구자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도중에, 한 아라한을 만났는데 구마라집을 보고 이르길 35세까지 계율을 어기지 않는다면, 수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리야소마須利耶蘇摩 법사 밑에서 대승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 후 그는 계빈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소승을 가르친 스승을 찾아가 대승의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옛 스승은 결국 대승을 납득했고 대승으로 개종했습니다. 옛 스승은 대승의 스승인 구마라집에게 절을 하겠다고 청했습니다. 구마라집은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옛 스승은 "나는 소승의 승려입니다. 내가 대승의 스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래서 구마라집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조국인 구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라의 운명이 쇠퇴하고 있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티벳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아나함을 증득하였습니다. 티벳으로 떠나기 전, 그녀는 아들에게 중국에 가서 목숨을 바쳐 대승을 전파하고 불교를 섬기고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구마라집은 인도의 모든 비불교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였고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중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점성가가 중국 황제 부견苻堅에게 인도의 가장 상서로운 별(위대한 덕망 있고 현명한 사람)이 중국에 올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황제는 구마라집을 중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즉시

위대한 장군인 여광呂光과 7만의 군대를 구자국에 보내었습니다. 구마라집은 구자국 왕에게 중국은 나라를 침략할 의도가 없고 단지 그를 중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구마라집의 숙부인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출전하였고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 결과 왕은 처형되고 나라는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마라집은 붙잡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군은 구마라집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낮은 계곡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큰 홍수가 나서 많은 군인들이 익사하였습니다. 그들이 반 정도 갔을 때, 장군은 계속 가는 것을 멈추고 양주涼州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 황제 부견은 요장姚襄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황제 요장은 그의 조카 요흥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황제 요흥은 구마라집 법사의 소식을 듣고 노광에게 구마라집을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지역의 새로운 왕인 노광은 거절했습니다. 황제 요흥은 노광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중국의 장안長安으로 구마라집을 데려왔습니다. 황제는 법사를 많은 영예로 추대했고, 국사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며, 산스크리트 불교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후, 구마라집은 800명 이상의 스님을 이끌고 98개 부서와 390개 이상의 권을 번역하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구마라집은 생전에 이르길 그의 번역이 정확하다면 시신을 화장하여도 그의 허는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의 시신은 불에 탔지만 그의 허는 온전했습니다.

당 왕조 율사 도선道宣은 육현창陸玄暢의 천신에게 어째서 모두들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을 읽고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천상의 존재에 따르면 구마라집 스님은 과거7불過去七佛의 번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역한 경전은 가장 정확합니다. 부처님이 그의 경전을 호념하고, 천룡은 그의 경전을 지키며, 사람들은 그의 경전을 환희로써 수지합니다.

과거7불(過去七佛)은 다음과 같습니다.

1. Vipasyin 비바시불(毘婆尸佛)
2. Sikhin 시기불(尸棄佛)
3. Bisabubul(毘舍浮佛)
4. Guryusonbul(拘留孫佛)

5. Kanakamuni 구나함불(拘那含佛)

6. Kasyapa 가섭불(迦葉佛)

7.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구마라집 대사는 아나함을 증득하였습니다.

구마라집은 산스크리트어로 한문으로는 동수童壽라고 합니다. 즉 장수하는 동자라는 뜻으로 구마라집이 매우 장수하거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혜, 언변, 덕이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동자이지만 노인과 같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은

- 제불호념 諸佛護念.
- 용천옹위 龍天擁衛.
- 인인환희수지 人人歡喜受持.

제불이 호념하고 천룡이 옹호합니다. 매우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이 환희로써 수지(받아서 지니다)합니다.

당나라 현장 법사도 또한 이 경을 번역하였는데 두 가지 한문 번역본이 매우 유사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영문본은 DRBA와 만불성성의 창시자이자 나의 돌아가신 스승 선화 상인이 설립한 BTTS(선화 상인이 만든 번역기관)의 저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선화 상인은 대승불교를 미국에 들여왔고 많은 뛰어난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특히 그들의 뛰어난 한문 경전의 영어 번역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수많은 번역은 단연코 가장 정확하고, 오직 증득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진보된 불교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지식인들은 말과 언어를 이해할 뿐 부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화 상인이 이미 이 경을 설하였지만 제가 정토불교에 대한 제 얽은 소견을 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의 대승장에 지혜를 더하여 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2. 선화 상인이 정토 불교에 대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오랜 시간동안 깨달음을 얻은 이들과 조사들이 저술한

설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목록은 꽤 광범위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포함하여 현대 시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3. 다시 한 번, 정토불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보를 잘못 받은 사람들은 정토불교를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우리는 선과 정토의 동시 수행(선정쌍수)을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토 법문의 설명에 선 용어와 선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5. 여러분이 이미 알아차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중국어 원문을 많이 덧붙여서, 성자들의 본래 의도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깊이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 책에 잘못이 있다면 대덕 스님들께서는 겸허히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제 해설의 오류에 대해서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주신다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 경전은 천태5중현의로 대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천태 오중현의:

1 명(名) 2 체(體) 3 종(宗) 4 용(用):경의 힘과 기능에 대해 논의. 5 교(敎):부처님 가르침.

석명(釋名): 경명을 설명하다.

이 경의 완전한 제목은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입니다.

불佛은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사바娑婆는 감인堪忍(감내할 수 있다)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중생을 제어하고 가르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반면에 중생은 이 혼탁한 세상의 고통에 젖어서 떠나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본래 최초겁에 광음천光音天신이 인도에 왔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지방인 지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러서 광음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인류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 천상을 브라흐마천이라고도 부릅니다.

깨달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본本각: 일반 중생들은 미혹하지만 깨달은 성품을 본래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래의 타고난 깨달은 성품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은 성품에 미혹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타고난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시방부처님과 동체이지만, 아직 성취하지 않은 부처입니다. 이는 불교 신자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2. 시始각: 미혹한 중생들은 선지식을 만나고 도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경을 읽고 가르침을 공부하고 선을 수행하고 염불해서 지혜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본래면목에 깨어나고 타고난 깨달은 성품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것이 시각입니다.

3. 구경究竟각: 타고난 깨달음(본각)은 이리에 속합니다. 시각은 이를 통해 일어나는 지혜에 속합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깨달음의 타고난 (내면의) 인因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깨달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일 복이 충분하여 선지식과 다른 외부의 연을 만나면, 시각을 가져옵니다. 그때 궁극적으로 그들의 지혜가 완전해질 것이며, 그것이 구경각 즉 부처님의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의미:

- 석가 能仁 (능히 어짐) 자애롭게 중생을 제도합니다. 매우 자비롭습니다. 열반에 머무는 대신 우리의 혼탁한 세상에 와서 우리를 제도합니다.
- 모니 寂默 (고요하고 묵묵함) 모寂(고요)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심오한 삼매를 나타냅니다. 니默(묵묵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일체법)이 모두 말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석가와 모니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고요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중생을 널리 구합니다.

세가지 종류의 자비가 있습니다.

1. 애관비(愛觀悲): 보통 사람들의 자비이며, 제한적입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은 사람 외의 다른 종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2. 법연비(法緣悲): 첫 번째 종류의 자비(애관비)와 더불어 이승(二乘) 수행자도 또한 자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유위법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승의 수행자는 공을 이해하며, 그 과정에 집착하지 않고 자비롭게 중생을 돕습니다.

3. 동체비(同體悲): 이것은 깨달은 존재의 대자비입니다.

부처님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몸(삼신) 즉 보신, 법신, 화신입니다. 네 가지의 지혜 즉 대원경지大圓鏡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 평등성지平等性智입니다. 여섯가지 신통력(육신통) 즉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입니다.

몸은 집集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업보가 쌓여 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복한 사람들은 과거 보시 수행의 대가로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 태어납니다. 반면에 부처님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미 업보를 다하였고 부처님의 의식은 공합니다(업진식공, 業盡識空). 그래서 부처님은 삼신이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몸만 있습니다.

부처님의 삼신三身

1 법신(法身)은 이적취(理積聚)입니다. 진여의 이법眞如理法이 쌓여서 몸이 되었습니다. 진여는 완벽하고 청정하고 모든 곳에 두루합니다. 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비로자나불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일체처에 두루하다라는 뜻으로 법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2 보報신은 지혜가 쌓여서 일어납니다(智慧積聚). 보신은 수행으로 얻은 몸으로 일체 종류의 지혜가 쌓여 몸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완전해지고 무명이 완전히 타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 보신이라고 합니다. 노사나불이 대표적 보신입니다. 미혹이 없고 오직 청정하고 완벽한 지혜를 갖춘 부처님입니다. 보신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3 應應신은 공덕이 쌓인 것입니다(功德積聚). 무수한 공덕이 결합하여 몸이 된 것으로 단지 지혜가 작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 번의 아승지겁동안 수행하여 복과 지혜를 닦았습니다. 그는 100겁을 계속 수행하여 32상과 80종호를 얻었습니다. 응신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표적 응신입니다.

일부 수행자들은神通력이 있어 5안을 갖추기도 합니다: 천안, 육안, 혜안(참된 진실을 보는 눈), 법안(세간적 진실을 보는 눈), 불안입니다.

오안(五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계송이 있습니다.

천안은 장애가 없이 통하고

육안은 장애를 보지만 통하지 못하네.

법안은 세속을 관하고

혜안은 진공을 완전히 이해하네.

불안은 천개의 해와 같고

비춤은 다르지만 체는 동일하네.

설說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사십이장경에 설한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청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8가지 음성과 4가지 변재를 사용합니다.
- 부처님은 이 오묘한 정토의 법문을 드러내고자 하여 매우 기쁘게 설합니다.
- 부처님은 저 깊이 설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 방편을 사용하여 설합니다.
- 중생의 고통을 애련히 여겨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구계九界의 대표로 구성된 대중에게 법을 설합니다.

5가지 부류의 존재들이 법을 설합니다.

1. 부처님들
2. 부처의 제자들
3. 천신들
4. 신선들

5. 화신 (신, 부처님이 인간으로 화현함.)

법을 설하기 전에 설법자는 부처님의 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증명 받지 못하면 경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미타불阿彌陀經은 서방극락정토의 교주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미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무량광으로 지혜를 나타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미타유라고 하는데 이는 무량수로 복덕을 상징합니다. 그의 수명과 빛이 무량할 뿐만 아니라 지혜, 복덕,神通력이 또한 무량합니다.

인지에서 아미타부처님은 전륜성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자재왕불의 설법을 듣고 왕좌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정토의 정보正報와 의보依報를 장엄하기 위해 48대원을 세웠습니다. 제12대원에서 부처의 삶이 무량하고 적어도 백천나유타겁 동안 지속됨을 명시합니다. 제13대원에서 그의 빛은 무량하다고 명시합니다. 제12대원에서 그의 빛은 또한 무량한 불토를 비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대원에서 그의 국토에는 지옥이 없다고 기술합니다. 제48대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보살은 제일, 제이, 제삼법인을 얻는다고 합니다.

서원과 수행이 완전해진 후에 그는 아미타 부처님이 됩니다.

그의 국토에서 정법시대는 무량겁동안 지속됩니다. 상법시대 혹은 말법시대가 없습니다. 정법은 상반야上半夜 시대에 사라집니다. 하반야下半夜에 관음보살이 불도를 성취하고 보광공덕산왕불普光功德山王佛이 됩니다. 관음보살은 아미타부처님을 이어받고 정토는 더이상 극락세계라고 불리지 않고 중보광집장엄衆寶普集莊嚴이라고 합니다.

경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담론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수다라라고 하는데 계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위로는 삼세(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가르친 모든 이리와 아래로는 구계(비불교) 중생들의 기機를 합산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잠재력과 부합합니다. 이 특별한 경전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수행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수행으로 우리의 많은 번뇌와 어려움을 치유합니다. 불도로 빨리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수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이라는 단어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꿩 관貫: 경은 이치를 연결하여 일관되게 흘러지지 않게 하는 끈과 같습니다.
2. 모으다 또는 끌어당기다 섭攝: 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불도를 향해 갈 수 있게 합니다.
3. 항상할 상常: 경은 시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법계 어디서나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설한 이치는 동일합니다.
4. 법法: 삼매의 개발에 특히 유용한 수행의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시방에서 크게 존경받습니다. 모든 보살은 불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법에 의지합니다.
5. 용천湧泉: 이치의 맛義味은 졸졸 흐르는 샘처럼 끝이 없습니다.
6. 승묵繩墨: 목수가 곧은 선과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처럼 경은 정(正)과 사(邪)를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7. 길 徑: 그냥 따라만 가면 재빨리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8. 결만結鬘: 경은 화환처럼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모든 가정된 이치를 연결시킵니다.

경명經名의 분류: 경명은 세 종류의 참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건 인신, 비유 또는 법(다르마)입니다. 경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제목에 사람, 비유, 법의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포함. 사람의 예로 불설아미타경, 법의 예로 대열반경, 비유의 예로 범망경이 있습니다.
2. 제목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포함. 사람과 법이 포함된 경우(人法立題)의 예로 문수사리 문반야경, 사람과 비유가 포함된 예로 여래사자후경, 법과 비유가 포함된 경우의 예로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3. 사람, 법, 비유가 모두 제목에 포함. 예) 대방광불화엄경
불설아미타경의 명칭에는 사람人만 포함되었습니다.

변체(變體): 체를 묘사하다.

이 경전은 실상實相을 체로 삼습니다.

실상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이不二입니다. 안 혹은 밖, 그 중간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검거나 흰 것, 길거나 짧은 것, 네모 혹은 둥근 것, 냄새, 촉감,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개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고 그 한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과 인식에서 분리되었고 말과 언어에서 분리되지만 말과 언어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적이지만 움직입니다. 정과동이 둘이 아닙니다. 몸과 정토가 둘이 아닙니다. 성품과 수행이 둘이 아닙니다.

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공(眞功)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묘유(妙有)입니다. 실상의 다른 이름은 진여(眞如), 일진법계(一眞法界), 여래장성(如來藏性)입니다.

명종(明宗): 교리를 밝히다

정토법문은 좀 더 빠른 수행길이고 삼학 모두와 육바라밀을 구족합니다.

정토법문의 세가지 필요 요건은

1. 신(믿음)
2. 원(서원)
3. 행(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는 것)

신(信)

信則信自，信他，信因，信果，信事，信理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입니다. 신심 없이 이 법문에 들어 갈 수도 없고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서원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신심에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信自者，信我現前一念之心，本非肉團，亦非緣影；豎無初後，橫絕邊涯；終日隨緣，終日不變。十方虛空微塵國土，元我一念心中所現物。我雖昏迷倒惑，苟一念回心，決定得生自心本具極樂，更無疑慮。是名信自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생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업을 서방극락세계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 도달하면, 과거의 업이 문제를 일으킬 수 없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바세계와는 다른 점입니다. 끊임없이 온갖 종류의 장애와 방해에 직면해야 하는 사바세계와는 다릅니다. 수행하고자 결심하면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승진하고, 그래서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므로, 더는 주말에 절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에게 타고난 진심(眞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처리를 하거나,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진심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모든 세계는 단순히 이 진심이 발현한 것입니다. 서방극락정도도 여기 포함됩니다. 비구 법장이 인지(因地)에서 보살도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극락 세계가 비구 법장의 마음으로 정화되었습니다.

信他者，信釋迦如來決無誑語，彌陀世尊決無虛願，六方諸佛廣長舌決無二言。隨順諸佛真實教誨，決志求生，更無疑惑。是名信他。

다음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진심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심을 믿어야 합니다. 중생과 부처는 모두 동일한 성품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동체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른 모든 부처님께서 정토의 법문(Dharma door)을 찬탄한 것이 진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빨리 해탈하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信因者，深信散亂稱名，猶為成佛種子，況一心不亂，安得不生淨土。是名信因。

信果者，深信淨土，諸善聚會，皆從念佛三昧得生，如種瓜得瓜，種豆得豆，亦如影必隨形，響必應聲，決無虛棄。是名信果。

다음은 인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토의 법문을 만난 것은 과거에 이미 선근을 심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염불이 왕생의 원인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서방정토에 수많은 성인이 왕생은 염불한 이유가 원동력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안전한 곳까지 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토는 청정한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외부의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정토에 갑니다. 왜냐하면 정토에는 악한 외적 연(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토 왕생은 결과 또는 과위입니다. 서방극락정토를 깊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염불 삼매의 결과로 정말 왕생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조사께서 주창하였듯이 염불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토에 왕생합니다.

信理者，深信十萬億土，實不出我今現前介爾一念心外，以吾現前一念心性實無外故。又深信西方依正主伴，皆吾現前一念心中所現影。全事即理，全妄即真，全修即性，全他即自。我心遍故，佛心亦遍，一切生心性亦遍。譬如一室千燈，光光互遍，重重交攝，不相妨礙。是名信理。

다음으로 이리 또는 이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정토에서 왕생을 얻는 것이 더 쉽다는 이치를 믿어야 합니다. 사실 서방 극락 정토는 아미타불의 진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信事者，深信只今現前一念不可盡故，依心所現十方世界亦不可盡。實有極樂國在十萬億土外，最極清淨莊嚴，不同莊生寓言。是名信事。

우리는 또한 사사 또는 발현을 믿어야 합니다. 서방극락정토는 모든 불보살님들이 설하였듯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미타불은 우리 사바 세계의 중생과 큰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윤회의 바퀴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정토의 법문을 만들었습니다.

如此信已，則娑婆即自心所感之穢，而自心穢，理應厭離。極樂即自心所感之淨，而自心淨，理應欣求。厭穢須捨至究竟，方無可捨。欣淨須取至究竟，方無可取。故《妙宗》云：取捨若極，與不取捨亦非異轍。設不從事取捨，但尚不取不捨，即是執理廢事。既廢於事，理亦不圓。若達全事即理，則取亦即理，捨亦即理。一取一捨，無非法界。

화엄경에서는 4가지 법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1. 사무애법계(事無礙法界): 장애 없는 현상(사)의 법계
2. 이무애법계(理無礙法界): 장애 없는 이치(이)의 법계

3.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 장애 없는 이(이치)와 사(현상)의 법계

4. 사사무애법계(事理無礙法界): 모든 장애 없는 사(현상). 이치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현상적(事事)으로 거기 도달할 것입니다. 그건 마치 한 방에 천개의 등불이 있어서 각각 빛을 내지만,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원(願)

願則厭離娑婆，欣求極樂

신심을 가진 후 다음으로 우리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으로 인한 사바세계의 괴로움을 매우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고통스럽건 고통을 지각하지 못하건 간에 삶은 단지 꿈이기 때문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 마음의 청정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엄된 서방 극락 정토의 안락을 추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은 불도를 깨닫기 위해 사홍서원(네 가지 대서원)에 의지합니다.

1 고제에 따라 끝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2 집제에 따라 끝없는 번뇌를 끊으리다.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3 멸제에 따라 다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4 도제에 따라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원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불도로 가는 길을 재확인하도록 해주고, 우리의 영적, 물질적 자원을 조정하게 해줍니다. 씨앗이 형성되어 우리의 아뢰야식에 저장되며, 그것이 정토 왕생을 향한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이 씨앗은 불보살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토로 데려갈 손잡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수행에 실패해서 여전히 윤회의 바퀴 속에 돌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원이 충분히 크지 않거나 진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토 왕생을 위한 서원을 세우길 원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숙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윤회의 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겠다는 원을 세우십시오. 윤회의 바퀴를 돈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바꿀때마다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이 거의 없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이 성숙하면, 우리는 인간계나 천상계의 좋은 길로

갑니다. 반대로 나쁜 씨앗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악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법을 이해한다면 가능한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생 혹은 내생에 세속적인 복을 즐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에서 수평으로 벗어나겠다는 원을 세우십시오. 천상 혹은 지상의 존경을 구하지 말고, 유류의 업보를 구하지 마십시오.

3 모든 중생을 널리 구하겠다고 서원을 세우세요. 자신의 삶의 안락과 이로움을 구하거나 혹은 자신만을 이롭게 하지 마세요.

4 가능한 빨리 정토에 왕생하겠다고 서원을 세우세요. 오욕과 이 혼탁한 세상의 즐거움을 탐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지 이 혼탁한 세상의 오욕과 기쁨은 우리를 정체시키고 실패하게 할 뿐이니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게다가, 그것들은 퇴색할 것입니다.

5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본래 우리는 완전한 잠재력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해졌기 때문에, 진(티끌)과 번뇌가 우리를 가로막고 묶어버리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 몸을 받아 불법을 만나고 아미타불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아미타 부처님을 친근하고, 법을 듣고, 도를 깨우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 배를 계속 놓치지 마십시오. 옛말에 이르길, “부처는 마음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밖에서 구한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거짓의 뒤를 쫓고, 오랜 세월동안 기회를 놓친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관할 수 있다면, 그때 스스로를 위해 가장 진실한 서원을 세울 수 있으며, 거기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6 고통을 끝내고 안락을 얻겠다고(離苦得樂) 서원을 세우세요. 고통과 안락은 정반대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고통으로 괴롭습니다. 반면에 극락정토에는 오직 안락만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천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천 그리고 초선천에서 삼선천까지의 안락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이는 괴고(壞苦)입니다. 여러분이 색계의 사선의 삼매와 무색계의 네 가지 삼매(오정~팔정)에 있을 때, 괴로움과 안락에서 자유롭지만, 행운(行蘊)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하튼 천상의 복이 소갈되면 떨어질 것입니다. 영수 법사가 “증도가”에서 언급하였듯이 보시행과 지계는 천상의 복을 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늘에 쏜 화살처럼 힘을 잃으면 떨어지고, 내생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교 수행자 여순장은 황룡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여씨는 처음에 종탑 아래에 숨어서 선사의 불경 강설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황룡 선사는 그것을 알고 법을 훔치는 도둑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씨는 그것을 듣고 즉시 나타나서 말하길 “나는 이미 불멸의 법을 얻었습니다. 왜 내가 선사님의 법을 훔치려 하겠습니까?” 선사가 답하길 “자네는 관을 지키는 귀신이네.” 여씨는 놀라지 않고 묻기를 “한 톨의 쌀에 온세계를 감추고 반 되의 술에 산천을 넣어 삶는데 이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선사가 이르길 “자네가 팔만겁을 산다고 할지라도 허공에서 죽는 것과 같네.” 이에 여씨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교를 버리고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 불멸자는 장수 또는 천상의 삶은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과 같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토의 법문이 즉각적인 탈출과 생사의 끝을 낼 수 있습니다.

7 불퇴전을 서원합니다. 서방극락정토의 사는 이는 모두 아비발치 (阿鞞跋致) 입니다. 그들은 불퇴전의 경지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사바세계의 중생은 무거운 죄를 짓고 심각한 장애를 만납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것은 강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고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이는 신(믿음)과 행(수행)을 지탱하는 단단하고 강한 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만명 중 한 명조차도 수행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결심이 부족해서 너무 일찍 그만두거나 마장이나 사악한 친구를 만나서 결국 그만둡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중요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채 삶이 끝납니다. 새 몸을 받아 태어나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선근이 없고 바른 지견이 없는 한 혼탁한 세상에서 수행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조건이 순조롭지 않으면 이전의 수행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순조로우면 우리는 수행하는 것은 잊고 물질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행하겠다는 대서원을 발한 십신(十信) 보살조차도 때로는 진전하고 때로는 퇴보합니다. 마치 허공에 떠있는 깃털처럼 십신을 수행하는 보살은 신심이 완전해지고, 선근이 성숙하고, 초주(初住)를 증득해서, 위불퇴(位不退)를 얻기까지 만겁을 지나야 합니다.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서방정토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즉시 위불퇴(位不退), 행불퇴(行不退), 염불퇴(念不退)를 증득합니다.

8 연꽃에 화생으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그러면 이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법화경에 이르길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것은 우담바라 꽃과 같이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인 말법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복이 있어서 이 인간의 몸을 받았고 정토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서 보리심을 발하고 금연좌에 태어나서 친히 부처님을 뵈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송대에 회옥이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천태산에서 정행(淨行)을 용맹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천상의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허공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그를 정토에 데리고 가기 위해 은연좌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즉시 그가 평생 염불에 헌신해서 이런 영광을 얻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고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수행이 충분치 않음을 깨달은 그는 더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3주 후 그는 금빛 몸의 아미타 부처님이 금연좌를 들고 와서 “너의 원은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합장하고 결가부좌로 앉아 왕생하였습니다. 연주하는 이가 없었는데도 천상의 음악이 허공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매우 환희롭게 들었습니다. 그 스님의 한 제자는 관료였는데, 이 경험에 깊게 감동해서, 이 일을 기리기 위한 계송을 지었습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질문: 선사님은 현재 널리 퍼져있는 관례처럼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왕생 복을 지금 쌓기 시작할 수 있도록 왕생 위패법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생복이 늘어나면, 그게 우리 수명을 줄이지 않을까요?

답변: 위의 회옥 법사의 일화에서 묘사했듯 왕생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준비되기 전 떠나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왕생복을 쌓기 위해서 이 특정한 대승 왕생위패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몸을 바꾸기 위해 염라대왕을 만날 때 왕생을 위해서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2 복이 많을 수록 왕생 등급이 더 높습니다.

3 이 법은 정토 왕생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이가 50대인 학생이 있는데, 그는 진심으로, 신심있게 20년 이상 정통 대승 사찰들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는 대장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정통 대승 사찰에서는 죽기 전까지는 왕생 위패를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왕생 위패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사님께서 미리 왕생 위패를 올리라고 하셨는데 항상 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왕생복을 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몇 주 후 수술을 하였고,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르길 죽음의 고비에서 마음이 완전히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의 중국인 사부(스님)와 우리 절의 호법자들이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법을 사용하려고 반드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行):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다

부적절한 원력은 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행은 진흙에 물을 맑히는 진주를 던져서, 흙탕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한 마음에 부처님 명호가 들어가면 혼란한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됩니다.

염불에는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관상염불(觀想念佛): (관경에는 16관경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널리 알려진 한 가지 방법은 아미타찬에 기술된 보신을 관하는 것입니다. 관경에는 16개의 연속적인 관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 관상염불(觀像念佛):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처님 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관하면서 염불하라고 합니다.

3 지명염불(持名念佛):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이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수행방법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계속 염불하여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실상염불(實相念佛): 선화 상인께서 실상염불에 대해 설명했을 때,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와 같은 화두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날 한동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후에 나는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실상염불은 깨달은 자들이 염불할 때 하는 것입니다.

정토 수행은 위의 방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절 (예배: 보현 보살의 열 가지 수행 가운데 첫번째).

2 공양 (보현 보살의 열가지 수행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3 참회(보현 보살의 수행 중 4, 5, 6, 7, 8, 9, 10번 행). 이는 화엄경 40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일심불란”의 상태 달리 말해서 염불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염불합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면, 임종 시 왕생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생하고자 한다면 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에는 신심과 진실한 원이 따르는 역행(力行)이 요구됩니다.

정토 법문에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향로의 세 다리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향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수행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사행(事行) / 2. 이행(理行)

사행(事行)은 사상(事相)에 속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체(능, 能)로 사용합니다. 그게 대상(소, 所)인 염불을 할 수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능소)이 분명하고 구분됩니다. 마음과 부처, 주체(능)와 대상(소)가 모두 상응할 때, 마음은 부처와 다르지 않습니다(心不離佛). 그리고 부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염불하는 자가 염불하는 것을 명확히 자각하면, 방해받지 않습니다. 행주좌와(걷고, 서고, 앉고, 눕는)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명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얼은 물이 물줄기를 멈추게 하듯 전념(專念, 집중한 마음)이 망(妄)을 떨쳐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가을 달과 같이 허공에 빛납니다. 맑고 밝고 움직이지 않습니다(湛然不動). 우리는 그때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한산의 시에 묘사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가을 달과 같아,
푸른 연꽃은 맑고 깨끗하네.
무엇으로도 비교할 바 없으니
어떻게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일심불란의 염불 경계는 마치 한쪽 팔이 몸통을 통해서 다른 팔과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 명호(부처님의 이름)를 잊지 않고 마음에 지닙니다. 부처님의 명호가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어떤 방해도 없이 생각 생각 이어지는 것입니다(염념상속 念念相續, 무잡무간 無雜無間). 그것이 진정한 정진입니다.

상급 수행자를 위한 주석: 이행(理行)은 이성(理性)에 속합니다. 염불하는 마음은 유에 머무르지도 않고, 공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머무르지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이성(理性)의 중도(中道)에 머뭙니다.

염불하는 마음 밖(주체)에는 염불할 수 있는 부처(대상)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압니다(能念心外, 無有佛為我所念). 반대로 염불하는 부처 밖에는(所念佛外), 염불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亦無有心能念佛). 주체(능)과 대상(소)가 모두 사라집니다(能所雙泯). 마음과 부처는 그러한 하나입니다(心佛一如). 마음이 곧 부처이고(心即是佛), 부처가 곧 마음입니다. 이상(두 개의 모양)이라 불리는 두 가지 상이 없으며,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릅니다.

忽然念起彌陀佛 (홀연념기미타불);

홀연히 아미타불의 생각이 일어나네.

平地無風自作波 (평지무풍자작파);

땅은 평평하고 바람은 없는데, 파도가 절로 일어나네.

念念消歸無念念 (염념소귀무염념);

생각생각이 흩어지고 생각이 없는 생각에 돌아가네.

豈知無念亦為多 (기지무념역위다)!

무념을 아는 것도 또한 많네.

이 경계에 이르면 한 편의 공령(空靈)이 있고, 이성(理性)이 스스로 나타납니다.

정토삼요술의(淨土三要述義)는 난계화(駱季和)의 법문 모음집이며, 염불을 다음 둘로 분류하였습니다.

1. 정행(正行) / 2. 조행(助行)

정행(바른 수행)에 여덟 가지가 있는데,

1. 섭심념(攝心念): 잊지 않고 다른 생각없이 어디서나 염불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염불을 멈추지 않습니다.

2. 용맹념(勇猛念): 이것은 마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우릴 막을 수 없습니다.

3. 심심념(深心念): 바다가 아주 깊더라도, 바닥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매우 멀지만, 쉬지 않고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4. 관상념(觀想念): 생각 생각마다 32상과 80종호를 관합니다.

5. 식심념(息心念): 불명호를 외우고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마음, 관직을 꾀하는 마음, 욕망에 탐닉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 사랑을 탐하는 마음, 오만한 마음, 숨기기를 좋아하고, 나와 남,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을 소멸합니다.

6. 비제념(悲啼念): 부처님을 생각할 때마다 털끝이 서고 오장(심장, 간, 비장, 위, 신장)이 끊어집니다. 부모를 얼마나 많이 저버렸는지 되새깁니다. 이제 이 더욱 현명한 자식은 그들을 진정으로 그리워합니다. 수행에 빨리 성취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돕고자 원을 세웁니다.

7. 발분념(發憤念): 분노 혹은 실망감으로부터 큰 결의를 일으킵니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 과거에 낙제하고 추위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재주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적막합니다. 내 생각들은 포악하며, 인생에 환멸을 느낍니다.

8. 일체념(一切念): 보고, 듣고, 깨어나고, 아는 것(見聞覺知), 모공과 골수 속까지(毛孔骨髓) 염불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無一處不念佛). 이와 같이 염불하면(如此念佛) 바야흐로 정념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方謂淨念).

조행에 6가지가 있습니다.

1. 정덕(淨德): 염불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선행하고 서방 정토에 헌신하는 복을 심어야 합니다.

2. 정계(淨戒): 모든 정법은 정계(청정한 계율)에 의지합니다. 열반에 들기 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관경에 이르길 3가지 복 수행 중 청정히 계를 지키고 위의를 지키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3. 정희(淨懺): 경에 이르길 “죄를 저지른 마음은 구름 덮힌 하늘과 같고 죄를 근절한 마음은 어둠을 물리치는 햇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참(內懺) 외참(外懺), 사참(事懺,) 이참(理懺) 등이 있습니다.

4. 정관(淨觀): 염불 외에 마음을 닦고 청정히 하기 위해서 관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관(不淨觀), 대치관(對治觀), 참괴관(慚愧觀), 자비관(慈悲觀)과 그 밖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5. 정처(淨處): 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염불합니다. 그러므로 악처를 피하고 수행에 적합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시끄럽고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와 거리를 두고, 유흥과 술자리를 피하고, 호의와 사랑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6. 정반(淨侶): 진정한 잠재력은 도반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삿된 법(邪法)은 도반 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이룬차와 같아서 바퀴 하나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산 속처럼 순수한 곳을 소중히 여기는 도반, 지혜가 깊고 광활한 도반, 겸손하고, 인내심이 강한 도반을 친근하십시오. 도를 구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잃지 않도록 나쁜 도반을 멀리 하십시오.

염불법문을 수행하지만 아직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은 10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1. 신지불독(信之不篤): 신심이 두텁지 않습니다.

2. 행지불용(行之不勇): 행이 용맹하지 않습니다.

3. 발원불체(發願不切): 발원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4. 유유묵념(悠悠默念): 마음이 조용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마음이 번뇌롭습니다).

5. 심연세사(心緣世事): 마음이 세속일에 매여있습니다.

6. 애증불제 (愛憎不除): 사랑과 증오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7. 방급외적 (旁及外籍): 나쁜 친구를 사귀고 외경을 믿습니다.
8. 탐착음영 (耽著吟詠): 노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9. 한강잡화 (閒講雜話): 잡담을 합니다.
10. 만일 증득을 취하고자 극기하려는 뜻이 없다면, 일심분란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정행도 없습니다.

각명묘항행보살(覺明妙恆行菩薩)에 따르면 상품염불이란,

1. 본래 마음에 생각이 없습니다(심본무념, 心本無念). 생각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인지하거나 처리한 상을 쫓아서 일어납니다(염축상생 念逐想生). 이 상은 거짓이고 윤회의 바퀴에 머무는 원인이 됩니다.
2. “아미타 부처님은 상을 쫓아서 일어나지 않는다(불종상기, 不從想起)”는 문장은 그 존재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고(불종념유, 不從念有), 안 또는 밖에 상주하지 않으며(불재내외, 不住內外), 상이나 모양이 없으며(무유상모, 無有相貌), 이게 단지 모든 망상의 끝임(即是盡諸妄想)을 뜻한다.
3.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몸(진실지신, 真實之身)이 청정하고 기묘하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비일비이, 非一非二).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분별, 不可分別).
4. 이와 같이 염불하는 사람은 진노(塵勞)에 의해 전도되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한 (의식적) 마음을 멈출 수 있으며, 반드시 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이는 명호의 집지(執持) 혹은 일심불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업(청정한 업)이 성취되고 곧바로 상품(上品)에 나아갈 것입니다.
6. 이런 염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부를 수 있는데,
 - 1) 청정념(淸淨念). 가능한 가장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합니다.
 - 2) 명취념(明徹念): 마음은 분명히 불명호를 염하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 3) 광요념(光耀念):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 4) 실상념(實相念): 염불의 가장 진실한 형태입니다.

5) 원융념(圓融念): 모두 포용하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염할 수 있습니다.

6) 무분별념(無分別念): 염불하고 있는 마음에 분별이 없습니다. 의식하는 마음의 작용이 정지합니다.

7) 이진념(離塵念): 이 수준으로 염불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8) 불사의념(不思議念): 이 염불단계의 이점은 그냥 불가사의합니다.

9) 제일의필제념 (第一義畢諦念): 이 종류의 염불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치와 상응합니다.

요약하자면 정토법문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필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심: 다음과 같은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1) 특히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에 대한 믿음

2)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가 매우 유복하여, 이런 대승의 정토법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믿음

3) 정토법이 우리를 재빨리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2. 서원: 광대한 원을 세워야 합니다.

1) 재원을 결집하겠다는 원

2) 운명을 통제하겠다는 원

3) 이런 서원은 세세생생 이어서 계속 됩니다.

3. 행: 믿음을 증득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1) 왕생의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 염불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3)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논용(論用): 용을 논하다

불경의 힘과 그 기능(用)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 불경은 우리에게 불퇴전의 지위를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중생이 왕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가르쳤듯이 아라한은 “자궁에서 상주하는 미혹”이 있고, 반면 보살은 “음을 자르는” 미혹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지 않는 한 세세생생 그들은 퇴전하고 보리심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퇴보하기는 쉽습니다.

네가지의 불퇴가 있습니다.

1 위불퇴 또는 성취: 이는 보통 사람의 위치보다 더 낮은 곳에 떨어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는 범성동거토으로 왕생과 함께 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행불퇴: 수행했던 법에서 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편유여토에 왕생하며, 보통 사람의 미혹한 상태로 절대 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염불퇴: 정념에서 퇴전하지 않습니다. 실보장엄토에 왕생하고 이승(二乘)의 경계로 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구경불퇴(究竟): 부처님 명호를 한 번 들으면 일심이거나 산란한 마음이거나 간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간에 아뢰야식에 영원히 저장되고, 미래에 해탈의 씨앗을 심습니다. 모든 무명에 끝이 나고 구경의 불퇴전을 증득하고 상적광정토에 왕생합니다.

네 종류의 정토에 사는 존재는 모두 불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네 가지 종류의 정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범성동거토(梵聖同居土): 범(梵)은 견혹과 사혹을 끝내지 않은 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성(聖)은 수다원에서 아나함까지 이릅니다. 그들이 구별없이 함께 삽니다. 비록 천법계(천신의 세계)와 인법계(인간의 세계)는 있지만 그 외 사악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도와 천마조차도 모두 샷된 삼매가 아닌 바른 선정(正定)에 들어갑니다.

간략히 말해서 아라한 이하의 단계는 이 종류의 정토에서 왕생합니다.

2.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 이 정도의 존재는 견혹과 사혹을 끝냈지만 미진과 같은 미혹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심불란한 사(事)를 얻었습니다(사는 부처님 염불의 상을 지칭합니다). 여기는 아라한과 연각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3. 실보장엄토(實報莊嚴土): 이곳의 존재는 일심불란의 이(理)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41등급의 무명을 이미 파괴했습니다. 이(理)는 이치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 밖에 부처가 없습니다. 염불하지만 염불하지 않고 고요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살이 여기에 태어납니다.

4. 상적광토(常寂光土): 이것이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상적광토를 제외한 각각 정토에는 9품 왕생이 있습니다. 4가지 정토가 있지만 그 중 어떤 정토도 마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서방극락정토는 이런 정토의 네 종류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판교(判敎): 가르침(종류)을 판단하다.

이 불경의 가르침은 이승(二乘)이나 반교(半敎)로도 불리는 소승과 달리 대승 또는 전교(全敎)의 경부와 보살승에 속합니다.

추론하자면, 이 불경은 화엄, 아함, 반야, 법화시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은 모든 종류의 근기 즉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파시에 속합니다. 하지만 완교(완전한 이치)와 돈오의 이치를 포함합니다.

이 불경은 청을 받지 않고도 설해진 부류에 속합니다. 그건 부처님의 제자 중 누구도 정토의 가르침을 청할 만한 지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을 받지 않고 설했습니다.

아미타경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될 경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능엄경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진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이 없으면 누구도 능엄주를 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다른 경도 사라집니다. 그저 글자들이 불경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아미타경은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몇백년동안 이 경은 세상에 남아 수많은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 시기에 이 경을 염하는 중생은 왕생을 얻습니다.

그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만이 남아 무수한 중생을 구할 것입니다. 이 문장이 허공에 나타나지만 중생의 업장이 너무 무거워 감히 그것을 염하지 않습니다. 이걸 단 한번이라도 염할 수 있는 자는 왕생할 것입니다. 다음에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 백년간 남아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불법은 사라질 것입니다.

미혹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견사혹(見思惑)은 “나는 보지 않는다”는 미혹이기도 합니다.
2. 진사혹(塵沙惑)은 “나는 모른다”는 미혹이라고도 부릅니다.
3. 무명혹(無明惑): 등각의 단계에 있는 보살은 여전히 생상무명(生相無明)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하면 부처님의 묘각을 깨닫습니다.

견혹은 외적인 것에 대한 탐애를 의미합니다. 공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실재라고 인지합니다. 견혹에는 8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견혹은 5가지의 이사(利史)를 포함합니다.

1. 신견(身見): 육신이 인연으로 인해 거짓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본질적으로 공합니다.
2. 변견(邊見): 유상(예로 한번 소는 영원히 소라고 믿는 것) 또는 허무주의(죽으면 모두 공으로 돌아가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대가도 없으니 막 살아도 된다고 믿는 것)를 믿습니다.
3. 사견(邪見): 인과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 인과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과를 부정하게끔 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사실상 정토에 왕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4. 계취견(戒取見): 존재하지 않는 인(원인)을 인으로 취합니다. 많은 외도 수행자는 말도 안되는 엄격한 계율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나은 법계에서의 왕생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로 어떤 힌두 수행자는 천안을 열었습니다. 그는 개 한마리가 죽은 후 천상에서 태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개처럼 행동하면 천상에서 왕생한다고 잘못 이해하며,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종교를 따르는 자는 천상의 왕생이 십선 수행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5. 견취견(見取見): 존재하지 않은 연을 연으로 취합니다. 어떤 무식한 비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세한 생각조차도 끝난 사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의식이 자신의 몸을 떠나는 것을 보고는 아라한은 생사를 뛰어넘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는 미혹해서 실제로 도달하지 못한 경계에 도달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부처님을 비방한 결과 그 무지한 비구는 지옥에 가는 일등석표를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혹은 이치에 대한 혼란에 빠져서 분별한 결과로 생깁니다. 사혹에는 8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엔 5가지 둔사(頓使)가 포함됩니다.

1. 탐: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2. 진: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치: 이치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4. 만: 오만은 현대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번뇌입니다.
5. 의: 이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만, 찾된 가르침은 쉽게 믿습니다.

부처님은 19세에 출가하여 29세에 깨달음을 얻었고 80세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깨어남부터 열반에 들어가기까지의 세월은 다섯가지 가르침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화엄시: 부처님이 깨우침 후 첫 21일간 가르침 (원교圓敎)
2. 아함시: 화엄시 후 12년간 해설함 (장교藏敎)
3. 방등시: 부처님이 가르치는데 8년이 걸렸음 (통교通敎)
4. 반야시: 이는 21년에 걸쳐 전해짐 (별교別敎)
5. 법화-열반시: 8년이 걸렸음 (원교圓敎)

12부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행 (長行): 일반적인 산문체 형식입니다.
2. 중송 (重頌): 장행에 제시된 의미를 되풀이한 형식입니다.
3. 수기 (授記): 부처님은 미래에 어떤 겁에 누가 누가 어떤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고 그의 땅은 어떻게 불릴 것이라는 등 성불을 예언합니다.

4. 고기 (孤起): 이는 전후에 이치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금강경 속 짧은 계승이 그런 예입니다.
5. 무문자설 (無問自說): 부처님은 대개 청을 받기 전에는 가르침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가르치길 택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걸 청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 인연 (因緣): 인과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7. 비유 (譬喻): 부처님은 그의 관점을 설명할 때 심오한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합니다.
8. 본사 本事: 불제자의 과거 인연입니다.
9. 본생 本生: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10. 방광 方廣: 특별히 방대한 이치를 설합니다.
11. 미증유 未曾有: 이는 새로운 경에는 포함되지만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12. 논의 論議: 부처님의 깨달은 제자들의 설명입니다.

정토종은 중생들이 삼계를 수평으로 초월해서 그들의 업을 정토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법문에서는 삼계를 수직으로 초월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유가 있습니다. 대나무 속에 한 벌레가 갇혀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벌레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대나무의 가장 단단한 부분인 마디를 갇아서 통과해야 하는데 매우 힘듭니다. 이는 삼매력을 증장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반면에 벌레가 대나무를 옆으로 잘라서 나와 밖에서 위로 기어올라가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이는 정토의 왕생을 상징합니다.

정토법문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1. 배우기 매우 쉽습니다.: 외우거나 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매우 안전합니다: 부처님 명호를 지니면 부처님이 여러분을 호념합니다. 일심불란으로 열불하면 마지막에 부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토에서는 한 생애 불도를 연습니다. 생사의 고향을 다시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더 빠른 길입니다: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하면 정토에 태어나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문은 정토에 왕생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같은 상근기, 2승의 중근기, 일반 범부와 같은 하근기에게 적합합니다.

불법은 출가자를 통해 전수됩니다. 출가자를 다른 이름으로 사문이라고도 합니다. 4가지 부류의 사문이 있습니다.

1 성도聖道 사문: 이들은 모든 삼승의 성인입니다.

2 설도說道 사문: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법을 설합니다.

3 활도活道 사문: 특히 계율을 지킵니다.

4 오도汙道 사문: 그들은 즐겨 계를 범합니다.

과거에 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게 네 가족(자신, 아내, 아들, 딸)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어느날 그는 일감이 없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수행하지 않은 것을 자책했습니다. 전생에 수행을 하지 않아서 이번 생에 그는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하루는 사문이 지나갔는데 그는 지나가는 사문을 청해 차를 대접하고 법을 전수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수행이 필요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염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선풍기에 기름칠을 하고 선풍기를 돌릴때마다 아미타불을 염했습니다. 그는 망치로 쇠를 칠 때마다 아미타불을 염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롭게 하나요?” 그는 염불하면 화로의 열기를 더이상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팔은 망치를 두드려도 더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밤에는 숙면을 취할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어느날 그는 아내에게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디로요?”라고 물었습니다. “서쪽으로”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화로 옆에서 여전히 일하면서 더 큰 소리로 염불했습니다. 방은 묘한 향내로 가득했고 그가 떠나자 천상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고기를 파는 한 푸줏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수많은 소떼가 그를 쫓아오는 꿈을 꾸고 아내를 통해서 승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이 와서 말하길 그는 살생업이 매우 무거워 오직 염불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푸줏간 주인은 스님을 따라 염불했습니다.

얼마후 소떼 귀신은 떠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열심히 염불했고 부처님이 그를 맞이하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토에 왕생했습니다.

일심불란의 상태를 얻으면 염불삼매에 듭니다. 이것이 정정(正定)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법문을 무상심묘선無上深妙禪이라고 합니다.

서분

경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 때 덕망이 높은 큰 비구 대중 천 이백 오십 인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위대한 아라한들로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다. 곧 장로 사리불, 마하목건련, 마하가섭, 마하가전연, 마하구치라, 라바다, 주리반타가, 난다 아난다, 라후라, 교범바제, 빈두로파라타, 가루타이, 마하겁빈나, 박구라, 아누루타 등의 여러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문수사리 법왕자와 아일다보살(미륵보살),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등의 여러 위대한 보살들과, 범천, 제석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강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경은 전통적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 서분序分: 처음부터 ‘범천, 제석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까지입니다,

2 정종분正宗分: ‘일체 세간이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까지입니다.

3 유통분流通分: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니 이후에’부터 끝까지입니다.

서문은 나중에 경전을 편찬할 때 추가되었기 때문에 "후기"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침이 일어난 연유에 대해 설명하고 경이라고 인증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서문 다음에 주요 가르침을 담는 정종분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대중은 큰 이로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개 유통분으로 마치면서

이해한 것을 실천에 옮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널리 경전을 유통시키라고 촉구합니다.

이 경의 서문에는 가르치게 된 연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성취는 포함합니다.

1. 믿음: 이와같이: 이것은 정靜을 나타냅니다.
2. 청자: 내가 들었다: 나는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보살에 의해 나타난 거짓 자아를 의미합니다.
3. 때: 한 때: 경은 연이 무르익을 때 설해집니다. 본질적으로 때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4. 교주: 부처님: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았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였고 깨달음을 완성하였습니다.
5. 장소: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
6. 청중: 큰 비구 대중

이 6가지 요소는 이 경이 진실로 부처님께서 설했음을 입증합니다.

대부분의 불경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로 시작합니다. 이는 후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할 때 첨부한 것입니다. 본래 금선 [金仙]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 은 단지 설법만 했습니다. 그의 제자는 이를 머리로 기억하고 서로에게 전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가르침의 정확도와 인증을 유지하고 전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아난다가 부처님께 불경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와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아난다가 불경을 기록할 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 문장을 첨부했습니다.

당시 외도경전은 아阿 혹은 우憂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각각 무無 혹은 유有라는 의미입니다. 무無는 외도의 가장 높은 경지인 공을 지칭합니다. 이는 소승 불교에서 이해하는 공의 개념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도 진공과 묘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구절은 불교의 경전과 외도의 경전을 차별화합니다.

게다가 그 구절은 대중의 의혹을 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난다가 설법을 위해 법좌에 오르면 부처님과 모습이 너무 흡사해서 사람들은 세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다가 부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였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부처님이 설법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 어떤 사람들은 아난다가 이미 불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구로 시작하여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확인하여 이런 세가지 의혹을 제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취 - 신성취(信成就 : 如是)

여시如是:

1 여如是 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은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부처와 다르지 않고, 반대로 부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정을 의미합니다. 만법이 모두 적적합니다. 마음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2 시是는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부처가 하나이고 동체입니다. 사실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입니다.

3 그래서 가르침을 따르고 독송하고 공양올리고 수행해야 합니다.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4 대개 법은 청을 받고 설해집니다. 누군가가 묻고 부처님은 청자의 근기에 따라 설법합니다. 미래에 수행자들도 가르침의 청을 받으면 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은 예외적으로 법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5 이후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물으면 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설했고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는 믿음을 인증합니다. 이 가르침은 믿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르길 부처님은 부처님만이 가능할 수 있는 궁극을 성취했습니다. 모든 법은 이와 같은 상想, 이와 같은 성性, 이와 같은 체體, 이와 같은 력力, 이와 같은

인인, 이와 같은 과果, 이와 같은 보報, 이와 같은 연緣 등이 있습니다. 세존은 상想, 성性, 이理 등을 설했습니다.

두번째 성취 - 문성취(聞成就 : 我聞)

‘나는 들었다’에서 ‘나’는 아난다 본인을 지칭합니다. 일반인들은 거짓 자아에 집착하고 이것을 실제의 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쾌락을 탐합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그들은 자아를 더 좇습니다. 하지만 아난다가 이 경을 기록할 당시 그는 이미 아라한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반인들의 거짓 자아 혹은 4대(지, 수, 화, 풍)로 이루어진 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외도의 신아神我(외도들이 8선을 얻을 때 얻는 높은 깨달음 중의 하나) 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난다에게는 더이상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세상의 관습에 따라 나라고 지칭할 뿐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질문: 부처님께서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왜 무아無我라고 하지 않고 ‘나는 들었다’라고 하였습니까?

답: 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편의상의 이유입니다. 무아라고 한다면 이 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세속적으로 지칭하는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3 무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아라면 거기 와서 이 경을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4 나는 자타, 염정, 인과, 사업 등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질문: 이런 경우에 나라고 하는 대신에 왜 그의 이름 아난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답: 나에는 세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세속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세속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치는 미묘하지만 용어는 세속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세속과 분리되지 않음을 재확인합니다.

2 나는 주인이고 자재하다는 뜻입니다. 집장전集藏傳에 이르길 세가지 아난다阿難가 있습니다. 성문장聲聞藏을 지닌 아난다阿難陀, 독각장獨覺藏을

지닌 아난발타阿難跋陀, 보살장菩薩藏을 지닌 아난가라阿難伽羅입니다. 실체는 오직 한 사람이지만 각각의 특정한 덕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렸습니다. 그는 매우 박식했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지녔으며 세가지 지혜를 쌓고 삼장에 대해 크게 자재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그가 모든 법에 이미 자재하다는 뜻은 담지 못했습니다.

3 개인적인 나입니다. 관습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들었다고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인증합니다. 아난다가 들었다고 하면 이런 개인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의심을 없앱니다.

들었다聞는 아난다가 부처님의 금구에서 나온 것을 그의 귀로 직접 들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난다가 없었을 때 세존이 설한 경은 부처님께서神通력으로 아난다에게 반복하여 설하였습니다. 아난다는 사진과 같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한번 그의 귀로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 그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부처님 경의 결집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정토법을 지닌 그의 문자지혜에 감사해 해야 합니다.

왜 들었다고 했습니까? 귀만이 모든 다른 감각 기관을 대표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다는 항상 부처님 곁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곁에서 관찰하고 가르침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음이 기술된 이유는

1 심오한 이치를 증득하기 위해 우리는 법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이치를 연구합니다.

2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에서는 소리를 통해 법이 전해집니다.

3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은 (혹은 읽거나 접촉하거나 맛을 보거나 사유한) 이치를 훈습해서 그것을 우리의 제2천성으로 만들고 꽃이 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려고 할 때 아난다는 단지 수다원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상심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아누룻다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자제를 해야하네 부처님께서 떠나시네. 가르침을 청할 마지막 기회이네. 가서 부처님께 마지막 가르침을 여쭙어야 되네.”

아난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세존께 조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어구로 경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아난다에게 세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1 부처님께서 떠나신 후 모든 그의 제자들은 바라제목차(계)를 스승으로 삼아 악을 삼가고 선을 행하며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수행을 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장애하는 악한 비구에 대해서는 그들과 언쟁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그들을 추방하라고 하였습니다.

3 불제자들은 항상 사념처에 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도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념처四念處

1 이 몸이 부정함을 관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분비물은 매우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는 출가 후 예전처럼 매일 몸을 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가자들은 2주에 한 번씩만 몸을 씻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법당에서 매일 옆에 나란히 섭니다. 어떤 사람들의 몸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놀랍게도, 체취는 수행을 통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2 느낌이 고통임을 관합니다. 느낌은 우리가 바깥 세상과 접촉하면서 일어납니다. 처음 자궁 밖으로 나온 때를 기억하나요? 처음 공기를 만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서 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고통의 전조를 나타냅니다!

3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삶이 매우 행복하여 이에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에 부딪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것이 어떠한지 보세요. 사실 행복한 사람도 미세한 번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보면서 자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질병과 노화에 매여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질병에 대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4 무상함을 관합니다. 생각 뿐만 아니라 몸, 감정, 법도 무상합니다. 생각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그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것도 항상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에 대해 몽상을 하며 즐거운 순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까?

금강경에 이르길 과거는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관합니다. 능소가 없습니다. 법은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의 결합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인간 몸을 얻은 것은 오계를 지키는 것과 같은 원인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단순히 우리의 존재를 나타나게 한 조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생에 우리에게 빚을 져서 이제 그들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의 차와 대학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모든 법이 무아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요인들에 의지하고 자성이 없습니다.

질문: 저는 한시간동안 결가부좌로 앉는데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선사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결가부좌로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답: 계속 앉으세요. 점차 더 오래 앉으려고 하세요. 다리, 허리, 어깨, 발목, 허리 등의 고통을 참으세요. 매우 극소수의 선 스승들만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우리의 훈련 방식은 좀 더 강도 높은 편입니다. 만약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말 알고 싶으면 지침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과 믿음을 시험합니다. 일단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고통은 멈출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가 최선입니다! 인내하세요!

다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구절은 청중들이 믿음을 내고 가르침에 수순하게끔 하기 위해 경의 첫부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도론智度論에 이르길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하면 지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도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지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제도하게끔 합니다. 믿음은 도에 들어가는 기본입니다. 지혜는 구경의 묘한 수단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설해진 이치를 따릅니다.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스승과 제자는 도를 성취합니다. 믿음을 통해 설한 법과 상응합니다. 즉 가르침을 따르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을 따름으로써 설하는 자와 듣는 자, 스승과 제자가 위호를 세웁니다.

신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장 중요합니다.

1 믿음은 궁극적 과를 위한 첫 인인이 됩니다. 우리는 보리심을 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마음은 선근을 체로 삼고 선우를 선연으로 삼고 물러서거나 그만두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정화하고 강한 의지로 정진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2 신심은 이리에 들어가는 기본입니다. 모든 논서에 이르길 성인의 지위에 들기 위해서 신근信根과 신력信力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근으로 만가지 선인이 생깁니다. 신력으로 4가지 마(천마天魔, 사마死魔, 병마病魔, 뇌마惱魔)가 우리를 물리치고 제압할 수 없습니다.

3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묘진청정妙真淸淨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난과 낮은 지위의 원인을 피하고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과를 얻은 사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연습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가난해지고 낮은 지위에 떨어지는 것을 피합니다.

4 믿음은 지극한 덕의 좋은 옷과 같습니다. 비바사론毗婆沙論에 이르길 믿음은 법미法味の 음식을 집는 영리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대용상大龍象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발톱을 삼고 금옥으로 상아를 삼으며 념念으로 목을 삼고 지혜로써 머리를 삼습니다. 대용상은 선법을 받아들이고 씹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처음에 믿음을 발해야 합니다.

5 믿음은 성인들의 7가지 자산과 같습니다. 모든 법보의 근원입니다. 성인의 7가지 자산은 신信, 계戒, 문聞, 사捨, 혜慧, 참慚, 괴愧입니다.

6 믿음으로 8가지 선인善因이 생기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1) 壽: 죽이지 않으므로 장수합니다. (2) 色: 음식, 등을 공양함으로써 몸을 받습니다. (3) 종성種姓: 오만을 버립니다. (4) 자재自在: 너그럽게 공양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5) 신심信言: 4악구를 피합니다. (6) 대력大力: 대공덕을 쌓고 서원을 세웁니다. (7) 장부丈夫: 대인의 법을 설합니다. (8) 력力: 다른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이

8가지 선인이 선법의 기반입니다. 유가론瑜伽論에 이르길 선법에 들기 위해 욕망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바라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깨닫고 싶다는 생각을 냄으로써 일어납니다. 촉觸으로 일어나고 촉이 반복되어 강화됩니다. 마음은 외부의 연을 접하여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고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정에 의해 증장됩니다. 마음은 안정되고 고요해지면 지혜가 최승이 됩니다. 선악을 분별합니다. 해탈이 견고해집니다. 집착을 끊습니다. 출리出離를 성취합니다. 과를 깨닫습니다. 처음에 믿음은 깨닫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므로 믿음을 먼저 내어야 합니다.

7 믿음은 기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손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택하는 손입니다. 구사론俱舍論에 이르길 손으로 중생을 생사의 진흙에서 꺼냅니다. 여기서 정법을 말하는 것을 불수佛手라고 합니다.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은 중생수衆生手라고 합니다. 양 손은 중생을 진흙에서 빼내기 위해 같이 일합니다. 지도론智度論에 이르길 이는 보물산에 간 남자와 같습니다. 그는 손으로 좋아하는 것을 고릅니다.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유사하게 부처님의 보물산에 들어간 믿음있는 자는 도의 과를 얻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과 이치를 이해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8 믿음은 마음의 물을 맑히는 진주입니다. 믿음이 마음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성유식成唯識論에 이르길 믿음은 탁한 물을 맑히는 진주와 같아 믿지 않는 자들의 혼란과 혼탁함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9 믿음은 평판을 세우는 좋은 수단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마치 조정기능이 없는 차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10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개울과 연못의 잡초나 조류와 양치류로 귀신, 왕자와 공작에게 바칠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양국간에 믿음이 바탕인 동맹관계를 맺으려면 믿음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위 10가지 중에서 첫 8개는 공제空諦입니다. 나머지 2개는 속제俗諦입니다.

세번째 성취 - 시성취(時成就：一時)

우리는 여태까지 2가지 성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믿음과 청자입니다. 세번째는 시간입니다. 경에 **한때**라고 나왔습니다. 경에는 그것이 언제 설해졌는지 정확한 시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1 부처님께서 모든 곳에서 경을 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계에서 때로는 천상에서 설합니다. 천상에서의 하루 밤, 하루 낮은 인간계의 1000년과 같습니다.

2 인간계에는 음력, 양력, 마야력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지구 반구의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낮과 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단지 한때라고 나타내서 이상적인 때에 경이 설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교機教가 상응합니다. 즉 중요한 점은 청자에게 가장 유용한 가르침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더 있습니다.

1 시간은 지나갑니다. 현재에 대해 말하는 순간,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정말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각 찰나에 5온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시간은 의식의 작용일 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세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연緣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구분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릅니다. 그는 연이 무르익었을 때 가르침을 주는 것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네번째 성취 - 주성취(主成就：佛)

네번째 성취는 사바세계의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1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는 이승의 지혜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2 그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보살들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3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을 완성했습니다. 앞의 두가지 실력이 완전해지면 원각에 도달합니다. 더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번뇌와 생사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질문: 삼신三身 중에 어떤 신이 교주의 역할을 합니까?

답: 청자에 따라 다릅니다. 보살은 보신을 봅니다. 반면에 낮은 단계의 청자들은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매우 환희하며 듣습니다.

다섯번째 성취 - 처성취(處成就 : 在舍衛國)

다섯번째 성취는 장소입니다. 경은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제따숲에서 설해졌습니다.

사위국은 풍부한 덕豐德이라는 의미입니다. 풍豐:

1. 재보財寶 / 2. 오욕五欲

거주자들은 다문多聞과 해탈解脫의 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집착이 아주 적습니다.

사위국: 인도 중부의 파사닉왕波斯匿王이 다스리는 국가의 수도입니다.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 제따숲은 수달다蘇達多加 공양하였습니다. 수달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보시樂施라는 뜻으로 급고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높은 관료로 매우 부유하였고 불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 산단나를 방문했습니다. 부처님은 마갈다 영취산에 있었고 사위국에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밤에 일어나서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꾸밀 때 수달다가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고 수달다의 머리가 곤두섰고 그의 마음은 매우 환희로웠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만나길 원했고 다시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50리가 떨어졌지만 부처님은神通력을 사용해서 수달타에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장자는 빛을 따라 멀리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고아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았습니다. 장자는 환희로웠고 빛을 따라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천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부처님께 절을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자는 이를 따라 절을 올렸고 부처님께서도 장로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수달타는 환희하여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머무를 곳을 공양 올리기를 원했고 부처님은 이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로는 즉시 돌아가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제타 왕자의 정원만이 적당했습니다. 제타는 산스크리트어로 "승리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제타 왕자는 파사나디 왕의 아들로 왕이 이웃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정원의 넓이는 약 10리였습니다. 왕자는 팔고 싶지 않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는 정원의 땅을 금으로 덮을 것을 요구하였고 수달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땅을 금으로 깔기 위해 금이 가득한 수레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단지 농담이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수달타는 미래의 통치자로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물러설 수 없어 땅을 팔기로 동의했고 금으로 덮이지 않은 나무들도 주었습니다.

부처님이 도착해서 아난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왕자와 너그러운 장로가 함께 바친 공양을 기리기 위해 '고아와 독거자의 정원에 있는 제타 숲'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문왕文王은 4가지 부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홀아비, 과부, 고아, 그리고 자식이 없는 사람 혹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도와 귀족과 장로들에게 자선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여섯번째 성취 - 중성취(衆成就 : 與大比丘)

마지막으로 6번째 성취는 **청중**입니다.

경에 이르길 대중은 5부류의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처음 3부류의 구성원은 승가(내호법), 보살(내호법)과 신(외호법)입니다.

다른 2부류의 구성원은 인간과 비인간입니다.

상근기의 사람들만이 정토법문을 믿고 받습니다.

금강경의 대중과 동일합니다.

질문: 다른 경에는 청중에 여러 중생과 팔부신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경에는 오직 5부류의 청자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 이 경은 정토행법을 믿도록 촉구합니다. 정토는 최상의 환경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직 뛰어난 덕목을 갖춘 사람들만이 이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5부류의 청자만이 나타납니다.

청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큰 비구 대중 이들은 보통 스님이 아닙니다. 천 이백 오십 인은 그들은 모두 큰 아라한으로서 잘 알려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덕을 갖춘 잘 알려진 제자들(즉 그들은 작은 아라한이 아닙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릅니다.

승가僧伽는 승가구성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승가는 가장 최초의 민주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화합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구성원들은 물과 우유, 냄비와 뚜껑처럼 서로 화합합니다.

4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고 동일한 갈마를 수행합니다. 갈마는 구성원들이 함께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프로토콜입니다.

이와 사에 화합합니다.

이의 화합: 무위해탈도無為解脫道를 같이 증득합니다.

사의 화합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1) 몸이 화합하여 함께 상주합니다.
- 2) 입이 화합하여 다투지 않습니다.
- 3) 마음이 화합하여 같이 수행합니다.
- 4) 견해가 화합하여 동일합니다. 특히 그들은 인과를 깊이 믿습니다.
- 5) 계가 화합하여 모두 계를 지킵니다.
- 6) 이로움이 화합하여 신도들의 공양물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또한 5가지 종류의 승가가 있습니다.

1. 무참괴승無慚愧僧: 그들은 계율을 어깁니다.
2. 아양승啞羊僧: 그들은 둔근기로 지혜가 부족합니다. 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마를 행하지 않으며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3. 봉당승朋黨僧: 그들은 부유하고 권력있는 자들에게 자주 드나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별도로 일을 행합니다.

4. 세속승世俗僧: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매하게 삽니다.

5. 성의승聖義僧: 그들은 과를 증득하였고 법을 설합니다.

비구는 산스크리트어로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1. 걸사乞士: 외적으로는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 음식을 탁발합니다. 내적으로는 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탁발합니다.

2. 파악破惡: 출세간적 정토법을 수행하고 번뇌와 악을 파괴합니다.

3. 포마怖魔: 구족계를 받을 때 부처님의 권속이 늘어남을 알고 천마는 두려워합니다.

왜 출가자들은 탁발을 합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출가자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지 않고 걸식을 다녀야 한다. 이로써 맛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

출가자는 일심으로 번뇌를 없애기 위해 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음식을 만 드는 시간을 아껴 수행을 한다.

출가자는 사업, 농사, 직장, 전문적인 기술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속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출가자는 일반인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는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출가자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세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구계를 전수하는 갈마사는 묻습니다.:”당신들은 대장부입니까?” 그들은 확인하며 답한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10가지 명칭 중 하나가 나타내듯이 부처님은 궁극적인 대장부입니다. 비구는 아직 깨닫지 못한 대장부입니다. 대장부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딩니다. 그들은 십인+忍을 견딩니다.

1. 바람: 열린 공간에서 지내며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2. 비: 2일 이상 나무 밑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비를 피하기에 부실합니다.

3. 배고픔: 음식을 탁발해야 했기 때문에 때로 공양을 받지 못하면 배고픔을 견뎌야 합니다.
4. 갈증: 때로는 물이 부족합니다.
5. 추위: 과거에 추위로부터 몸을 가리기 위해 세 장의 가사만을 지녔습니다.
6. 더위: 매우 검소하여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현대의 편리한 기계 등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7. 악어: 덕의 도를 수행할 때 때로는 비방과 모욕을 당합니다.
8. 독벌레: 특히 숲에 거주할 때 독벌레를 만납니다.
9. 일종식: 부처님은 승가구성원에게 정오가 되기 전에 한끼만 먹으라고 명했습니다.
10. 지계: 출가자는 일상 생활에서 계율을 범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들은 계를 범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분명히 출가는 가장 어렵고 많은 개인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와 명예는 도를 방해하는 인연입니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자아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가 부족해서 도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장부의 결심을 했습니다. 전륜성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비구니들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 사이에서 대장부입니다. 비구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를 초월하여 생사를 끝내고 보리심을 발하기를 열망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대장부의 정신이고 마를 두렵게 합니다. 가족들이 출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가의 큰 덕과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이로움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 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 현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과 흥미를 탐내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세요!

대대는 5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수대數大: 전체 1250명의 비구입니다.
2. 이대離大: 그들은 큰 업장을 끊습니다.

3. 위대位大: 신, 왕, 위대한 사람들이 공경하고 그들을 흠모합니다.
4. 명대名大: 그들은 매우 널리 알려졌습니다.
5. 식대識大: 그들은 외도보다 더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수승한 법과 높은 덕을 갖추었습니다.

위대한 비구는

1. 부처님께 배우기 위해 부처님을 따릅니다.
2. 법륜을 굴립니다.
 - 1) 중생의 거칠고 미세한 미혹을 부습니다.
 - 2) 중생을 일반인의 지위에서 성인의 지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3. 무수한 신과 인간을 돕습니다.
4. 그들의 명성과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지혜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5. 보살과 함께 그들은 롤모델, 리더로 행동하여 대중에게 영향을 줍니다.
6. 그들은 큰 비구로 불립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리기 위해 소승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 진정한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은

1. 응공應供: 청정행을 갖추고 세상의 복전이 됩니다. 인간과 신의 공양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비구인지因地에서 결사의 과果입니다.
2. 살적殺賊: 4주四住가 공합니다. 그들은 미혹한 견혹과 사혹을 끊고 모든 번뇌를 제거합니다. 이것은 비구인지에서 악의 인을 제거한 과입니다.
3. 무생無生: 이미 생사를 끝내고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더이상 윤회를 겪지 않고 삼계를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비구인지에서 마를 위협한 과입니다.

아라한이 처음으로 언급된 이유는

1. 그들은 세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해하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따릅니다.

3. 불법은 주로 승가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통의 첫번째 근원입니다.

그들은 법을 성취한 정성定性的 아라한이 아닙니다. 정성定性的 아라한은 불도를 향해 더이상 진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들은 회심回心이 있는 대아라한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소승에서 대승으로 돌립니다. 이 아라한들은 보리심을 발하고 대승법을 수행합니다.

불지론佛地論에 이르길

예토에서 성문은 실實이고 보살은 권權입니다.

보토報土에서 보살은 실이고 성문은 권입니다.

우리의 때물은 사바세계에서 보살은 방편입니다.

또한 불지론에서는 아라한이 가장 처음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1. 그들의 모습은 부처님과 흡사합니다.
2. 그들은 부처님과 가까이 지냅니다.
3. 그들은 계에 엄격하고 수승한 덕을 나타냅니다.
4. 부처님은 보살들이 2승에 대한 모든 오만의 자취를 버리길 바랬습니다.

1250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콘단나와 예전의 시자 4명이 첫 출가제자 5명입니다.

우루빈라가섭이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섭 두 형제가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라불과 마하목건련이 2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장로의 아들 야사가 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합쳐서 1255명이지만 간략히 1250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 왜 오직 1250명만을 말합니까?

이들은 부처님의 첫 제자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까지 계속해서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가섭불 아래로 가섭파 형제들은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섬기는 브라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가르치기 위해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사용하였습니다.

500명은 우루빈라가섭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루빈라는 파파야 숲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파파야 숲에서 수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가슴에 파파야와 비슷한 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수행할 때 그가 파파야 먹는 것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파파야는 폐병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우루빈라는 120세였습니다. 그 후 왕은 그를 마스터로 받들어 절을 했고 그에게 대선大仙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우루빈라에게는 다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야는 성 혹은 코끼리 머리 산이라는 뜻이고 나디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각각 25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루빈라에게 가서 그에게 하룻밤을 지낼 것을 청했습니다. 큰 형은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神通력으로 부처님을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루빈라는 그를 수호하는 불을 내뿜는 용이 사는 동굴에 부처님을 머물게 했습니다. 자정에 용이 부처님을 해칠려고 하였지만 부처님은 화광삼매에 들어 해칠 수 없었습니다. 용은 독가스를 내뿜었지만 부처님은 자심삼매에 들어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호용이 조복당함을 안 가섭은 부처님이神通력을 16번 나타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즉시 큰 거짓말을 짓고 대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믿고 귀의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500명의 제자들에게 귀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에게 공양올리는 도구를 강에 던졌습니다. 출가 후 곧, 그들은 성인의 과를 얻었습니다.

그의 두 동생은 형과 같이 불을 섬겼습니다. 둘째가 강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예배하는 기구들이 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이 걱정되어 찾아갔고 결국 두 동생과 그들의 제자들 모두 그 뒤를 따라 귀의하였습니다. 모두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습니다.

곧 장로 사리불, 마하목건련, 마하가섭, 마하가전연, 마하구치라, 라바다, 주리반타가, 난타, 아난타, 라후라, 교범바제, 빈두로파라타, 가루타이, 마하검빈나

박구라, 아누루타 등의 여러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문수사리법왕자와 아일다보살(미륵보살),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등의 여러 위대한 보살들과, 범천, 제석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장로

장로는 법시대에 다른 사람의 지위와 덕목을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장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나이: 연장자입니다.
2. 법성: 연령에 상관없이 불법을 이해하면 지성과 지혜의 측면에서 장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3. 복덕: 즐겨 공양을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열거된 아라한들은 모두 장로들입니다.

16명의 대제자들은 아래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내지와 외통 內智外通
2. 고행과 번재 苦行辨才
3. 오공과 지환 悟空知幻
4. 사우과 본 捨愚謙本
5. 다문과 밀행 多聞密行
6. 유천과 응공 流泉應供
7. 화탐과 사만 化貪除慢
8. 시약과 연승 施藥筵僧

사리불

사리불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사리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고 불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리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1 몸의 아들: 그의 어머니의 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정직하고 올바릅니다.

2 백로의 아들: 그의 어머니의 눈은 백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3보석의 아들: 그녀의 눈은 보석처럼 빛났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리불의 아버지는 대 브라만 계급 출신으로 박식하였고 심오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경전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황금 갑옷을 입은 남자가 금강저를 들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는 금강저로 산을 산산조각 부수어 오직 한 조각만을 남겼습니다. 그 상서로운 징조는 그녀가 위대한 지혜를 갖추어 논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녀가 사리불을 잉태했을 때, 그녀의 지혜는 여러 배로 증가했고, 그녀는 높은 덕을 갖춘 수행자들과의 논쟁에서 자신 견해를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자궁에서 특히 끊임없이 그녀를 이기곤 했던 오빠와의 논쟁에서 어머니가 이기도록 도왔습니다. 숙부는 동생이 이긴 이유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그는 멀리 떠났고 16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는 목욕을 하거나 손톱을 깎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서 "긴 손톱 브라만"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에 그는 조카가 부처님 밑으로 출가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 조카를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처님은 삼촌이 참된 이치를 말한다면 사리불을 돌려보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나의 교리로 삼습니다.” 숙부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를 받아들입니까?” 부처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숙부는 막막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것은 그가 교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 불가의 원칙과 모순됩니다.

논쟁 전에 숙부는 만약 그가 이기면 사리불을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진다면, 그는 부처님께 머리를 바칠 것입니다. 그가 졌음을 깨달은 숙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돌아가서 칼을 달라고 청하고 약속한 대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현명하지 않다고 설득하였고 대신 출가를 권했습니다. 이에 속부도 출가를 하였습니다.

사리불은 천성적으로 법의 장로였습니다. 여덟 살 때, 그는 7일 만에 모든 불법을 공부하고 익혔으며 다른 모든 인도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잘 알려졌고, 높은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천성이 정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곧 모든 집착을 없애고 그의 지혜를 펼쳐곤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쌍 중의 내지內智 에 속합니다.

사리불은 지혜에서 가장 뛰어났고, 신통에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삼매에 있는 동안 마하목건련조차도 신통력을 이용해서 사리불의 가사 한 귀통이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가 지혜 제일인가요? 왜냐하면 인지에서 그는 대비주, 능엄주, 십소주, 반야심경 등을 염하는 반야법문을 가르쳐준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일 염하면 여러분의 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사리불은 실제로 이미 불도를 얻었고 금용불金龍佛이라고도 합니다.

질문: 다른 많은 대아라한들도 또한 큰 지혜와 신통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왜 사리불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습니까?

답: 오직 사리불만이 모든 성문을 논쟁에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할 수 없이 뛰어난 지혜를 지녔고 비사리성毘耶離城 성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어떻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하목건련

마하에는 세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1 대大: 많은 왕과 관료의 존경을 받습니다.
- 2 다多: 많은 복덕을 갖추었고 권속 등이 많습니다.
- 3 승勝: 마와 외도를 물리치고 조복합니다.

마하목건련은 공을 모으는 가족의 자손 혹은 무뿌리라는 뜻으로 조상들이 도를 수행할 때 무를 먹은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의 많은 조상들은 출가를 했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님이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한 나무의 이름을 따서 구율타拘律陀라고도 합니다.

그는 사리불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둘 다 속세의 진에 환멸을 느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외도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법을 찾기 위해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인 마승과 마주쳤고, 스님의 위의와 안락, 청정한 모습에 깊이 감명 받았습니다. 그는 사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마승이 답하길, "나의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계승을 읊었습니다.

"모든 법은 연을 따라 일어나고 연을 따라 멸합니다.

나의 스승 석가모니불은 항상 이와 같이 설했습니다."

이것을 듣자 사리불은 수다원을 증득하였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그의 친구 마하목건련에게 말했는데 그도 역시 수다원을 증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2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완전한 계체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수행하여 아라한을 증득하였습니다.

마하목건련은 신통 제일입니다. 그는 부모님께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저승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쌍에서 외통通에 분류됩니다.

신통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여의통如: 신족통이라고도 합니다. 장애없이 어디든 가거나 날 수 있고 자유롭게 나타나거나 변형할 수 있습니다.

대논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여의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으로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a) 몸은 새처럼 날 수 있습니다. b) 멀리 이동하지만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곳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c) 여기서 사라지고 저기에 나타납니다. d) 한 생각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 여의통은 변형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하나에서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로부터 많은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의통은 성여의聖如意입니다. 육진이 집착할 가치가 없음을 관하고, 청정하지 않음을 청정하다고 보고, 사랑스럽고 청정한 것이 청정하지 않음을 관합니다. 부처님만이 이 세 번째 통을 갖습니다.

이러한 신통은 뒤에서 설명하는 네가지 신력의 기반을 닦은 결과입니다. 수행함에 따라 신통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2 천안통天眼通은 정안淨眼이라고도 불리며 욕계와 색계를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안으로 이 땅과 그 아래 육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선정과 같이 삼매를 갖춘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 얻습니다. 다른 하나는 천상에 태어나서 보報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천안으로 생사지死生智를 얻어 중생들이 한 계에서 죽어 어떻게 다른 계로 다시 태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천이통天耳通: 욕계와 색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땅 혹은 땅 아래나 위에서, 사람 혹은 사람 아닌 것에서, 가깝거나 멀리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신통은 수행을 통해 얻는 것과 보를 통해 얻는 것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4 타심통他心通: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습니다.

5 숙명통宿命通: 전생에 태어난 세상, 이름, 수명, 삶의 조건(고통 또는 행복)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욕계와 색계에서 유루의 오온의 생사를 알 수 있습니다. 무색계의 화신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대겁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8만대겁을 거슬러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6 누진통漏盡通: 모든 유루는 끝나고 더 이상 생사를 겪지 않습니다. 이전의 5통은 수행을 통해서 혹은 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통은 수행으로 얻어야 하며, 오직 현자만 얻습니다.

누진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유루의 습기를 끊은 부처님들의 누진통과 아직 모든 유루의 습기가 끝나지 않은 보살의 누진통입니다.

이러한 신통을 얻은 후에, 마하목건련은 지옥에서 갈증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날아가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탐욕스럽게 그가 준 밥그릇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업장으로 그것은 불타는 석탄으로 변하고 입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마하목건련은 매우 괴로워했고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전도된 존재들을 제도하는 우란분법을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음력 7월 15일, 스님들의 자자에 목건련은 부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시방의 승가에 공양 올렸습니다. 그들의 힘을 합쳐, 그의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하목건련이 부처님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그의 어머니는 이 우란분절 법에 의해 결국 천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하가섭

마하가섭은 마하를 앞에 붙여 다른 가섭과 구분됩니다.

가섭은 "거대한 거북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거대한 거북이의 등껍질에 있는 무늬를 이용하여 도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음광씨 飲光氏"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다른 모든 빛을 다 빨아들이거나 가리는듯이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이 빛나게 된 이유는 7년 전 비바시불 시대에 폐허가 된 절을 수리한 가난한 여인 때문입니다. 그 절은 지붕이 없어서 모든 불상들이 자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불상은 심지어 얼굴이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충분히 자금을 모은 후, 그녀는 금 세공인에게 그 불상들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 금세공인은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의 노동력을 대가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91겁 동안 남편과 아내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보라빛과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마하가섭은 91겁 동안 계속해서 복을 누렸고 브라흐마 천국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종종 신과 인간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마가다에는 전생의 복으로 매우 부유한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석하고, 매우 현명하고, 엄청난 복이 있었습니다. (그의 창고는 금, 은과 일곱 가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소, 양, 들판, 집, 하인, 병거와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왕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왕은 1,000개의 금 쟁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만큼 부자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일부러 999개의 금 쟁기만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1,000개의 금 담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금 담요는 10만 그램의 금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 견과류를 60천匁 가지고 있었는데, 각 천匁의 크기는 340후斛(고대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측정 단위; 24리터 = 1후斛)였습니다.

브라만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 옆에 나무 정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아들을 얻기 위해 정령에게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감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7일 동안 지극하게 제물을 바친 후에도, 만약 감응이 없다면, 이 나무를 불살라버릴 것이야." 나무 정령이 걱정이 되어 겁을 먹고 사천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천왕은 샤크라에 보고했고, 샤크라는 염부제에서 그의 아들이 될 만큼 복이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샤크라는 브라흐마 신에게 보고했고, 브라흐마신은 가섭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부유한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조언했습니다. 마하가섭의 속명은 "필발라"인데 그의 부모가 필발라 나무의 정령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가문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관상가는 그가 출가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부모들은 그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가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였고 그를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15살이 되자 부모님은 그의 신붓감을 구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가섭은 이를 거절하고 청정한 삶을 살고 싶다고 선언했지만 (아마도 이는 브라흐마 천상의 습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섭은 계락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오직 보라빛 황금빛이 나는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굴하지 않고, 그런 소녀를 찾기 위해 모든 연이 닿는 브라만 에 연락했습니다. 브라만족은 금으로 장식된 조각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을 하는 소녀들은 좋은 남편과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할 바 없이 바르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황금 조각상에게 절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브라만은 첫눈에 그녀를 승인했고 그의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결혼 후, 마하가섭과 그의 아내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고 각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 협의를 알고 한 방을 부수어 같은 방을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협의를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번은 아내가 자는 동안 침대 밖으로 팔이 빠져나왔는데 독사가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팔을 물려고 했습니다. 가섭은 뱀을 보고 즉시 그의 팔을 천으로 덮고, 그녀의 팔을 살며시 들어서 침대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그의 불순한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왜 내 팔을 만졌나요?"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가섭은 그녀에게 독사가 물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제 몸의 절반이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손대면 삼악도에 빠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깨끗이 몸을 씻었습니다. 세상을 깊이 혐오하며, 그들 둘 다 부모님에게 출가의 허락을 청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출가를 해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수행했고 점차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옥처럼 단단하고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의 몸과 얼굴은 황금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수행자들은 그들의 수행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 그의 수행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마하가섭은 아직 열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난의 계족산에서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는 용화회에서 미륵 부처님께 석가모니의 가사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바 세계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그의 아내는 "보라빛 황금빛"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마하가섭은 정통 부처님 법맥의 첫 번째 조사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을 설할 때, 대브라마천왕은 그에게 금빛 연꽃을 선물하였고 그의 몸을 법좌로 공양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수십만 명의 신들과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직 마하가섭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실상무상實相無相, 미묘법문微妙法門을

지니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법문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하가섭에게 전수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하가섭은 160세의 나이에 석가모니 밑으로 출가했습니다. 그는 나이뿐만 아니라 금욕에서도 최고였습니다.

고행은 더러움과 번뇌를 쓸어버리기 위해 정신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고행 수행은 불법이 유지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고행이 수행되는 한 세상에 법은 남을 것입니다. 고행 수행을 더이상 하지 않으면, 불법은 사라질 것입니다.

12가지 고행 수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더기 옷을 입습니다. 옛날에는 스님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누더기를 모아 깨끗이 씻은 다음 꿰매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가사는 좋은 옷에 대해 애착을 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의 이점은 욕심을 줄여서 마음이 평온하고 남들을 부러워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단지 세 벌의 가사와 발우, 깔개만을 지닙니다. 이 세 벌의 가사 중 승아리는 108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진 25개의 띠로 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전을 강의하거나 왕을 방문할 때 입습니다. 두 번째는 겹옷인 우타라상가로, 7개의 띠로 만들어졌으며, 절을 하거나 부처님을 모실 때 착용합니다. 세 번째는 안에 입는 옷으로 남극사카인데, 이것은 항상 일하거나 여행하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 입습니다. 적은 소유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3 항상 걸식합니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4 차제걸식합니다. 분별 없이 7가구를 차례차례 찾아갑니다. 만약 그 7가구의 집에서 음식을 공양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제 하루 종일 굶습니다. 마하가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탁발한 반면, 수보리는 부자들에게 주로 탁발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꾸짖고 그의 출가제자들에게 보시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5 정오에 한 끼만 공양하여 공양 시간을 줄이고 수행시간을 늘립니다.

6 식사량을 줄입니다. 즉, 조금 적게 먹습니다.

7 선법 수행을 산란하게 하는 즐거움과 애착을 유발하지 않고 정오 이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8 아란야에 상주합니다. 아란야는 "고요하고 조용한 곳"을 의미합니다. 혼자 지내고 산만한 소리가 없습니다.

9 나무밑에 상주합니다. 출가자들은 트인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휴식하기 위해 나무 아래에 멈춰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틀 밤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10 탁 트인 하늘 아래 상주합니다. 이로써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강하게 하여 공의 삼매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묘지에 주합니다. 귀신과 영혼에 둘러싸여 있으면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에 게으름에 대해 매우 효과적입니다.

12 갈비뼈를 바닥에 대지 않습니다. 눕지 않으면 번뇌가 적게 일어납니다.

마하가섭은 위의 12가지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200살이 넘어 부처님이 그에게 고행을 그만하라고 했을 때도, 그는 그저 웃으며 계속 고행을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선화상인의 아미타불경 설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마하가전연 摩訶迦旃延

대전체大躄剃(큰 머리 깎는 가위라는 뜻)는 브라만 계급의 남자 후손입니다. 고대에 이 브라만은 외딴 산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오래 살지만,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길었습니다. 브라만족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브라만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왔고 작은 아들은 브라만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고 나중에 도를 성취했습니다. 그 후 이들은 '머리 깎는 가위'로 불렸습니다.

가전연은 끈(扇繩)이라는 뜻입니다. 가전연의 어머니는 그를 끄적이 사랑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을 원했지만 이 아이는 어머니의 결혼을 가로막는 끈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거 가전연은 인지를 닦기 위해 오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할바 없이 바르고 올바른 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중생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기 위해 널리 돌아다녔습니다. 한번은 왕을 만났는데 왕은 그의 곧고 위의있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왕이 세존에게 가전연의 곧은 모습에 대해 물었을 때, 부처님은 왕에게 이르길 왕도 이미 오계로 더러움을 없앴기 때문에 이와같이 곧은 위의를 갖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매우 환희하며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논쟁을 하면 가전연의 말은 거센 파도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크리스탈처럼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횃불을 사용하여 긴 밤의 어둠을 파괴할 수 있었고 날카로운 말로 상대의 주장을 빠르게 타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6명의 유명한 스승들과 지지자들의 교리를 물리쳤습니다.

가전연은 "문학적인 우아함"을 의미하는데, 그의 웅변은 비길 데 없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아함경에는 그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허무주의만을 믿는 브라만 외도와 어떻게 논쟁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외도들은 만약 사람들이 죽은 후에 지옥이나 천상으로 간다면,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에 대해 말하기 위해 돌아왔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마하가전연은 천국에 간 사람들은 별장으로 돌아간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지옥의 존재들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어 돌아오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도는 할 말을 잃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장애없는 변재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1.법무애法無碍: 법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2.의무애義無碍: 법의 무한한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3.사무애辭無碍: 미사여구가 효과적입니다.
- 4.요설무애樂說無碍: 청자를 기쁘게 하여 설법을 즐깁니다.

가전연은 또한 어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좋은 어깨"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한 사상가'라는 뜻도 있는데, 역시 그의 장애없는 변재 때문입니다.

위대한 아라한의 열거된 8쌍의 미덕/특징 중 가전연은 달변을 나타냅니다.

마하구치라 摩訶拘絺羅

마하구치라는 사리불의 외숙부로 무릎이 커서 이름이 "큰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별명은 긴 손톱을 가진 브라만입니다. 그는 4대 베다에 정통했고 토론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외도의 기교를 꿰뚫었고, 그의 언변은 옥처럼 세련되었고, 광범위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마하구치라는 공의 원칙을 깨달아 아라한을 증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을 깨달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마하구치라는 답문답問에 제일입니다.

이바다離婆多

이바다는 북쪽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28별자리 중 4번째 별자리, 방일참房日兔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아들을 갖기 위해 그 별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또한 "가화합假和合"을 의미합니다. 하루는 이바다가 길에서 밤을 보내는데 귀신 둘이 시체를 끌고 왔습니다. 큰 귀신이 이바다에게 시체를 먹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바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귀신이 시체의 사지를 떼어냈고, 작은 귀신이 그것을 이바다의 신체 부위와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이바다는 소리를 지르며 길을 내달렸습니다. "이것 좀 봐요. 나한테 아직 몸이 있나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두 아라한 거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잠재성을 보고, "몸은 기본적으로 인연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연이 분리되면 몸은 부숩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바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출가를 하고 과를 증득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란하지 않았고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환知幻이라는 범주에 속하며, 전도되거나 어지럽지 않은 것(無倒亂)에서 제일입니다.

주리반타가周利槃陀伽

주리반타가 이름의 뜻은 작은 길가로 길가에서 태어난데서 연유합니다. 주리반타가의 큰 형은 마하반카가(큰 길가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갑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친정으로 늦게 돌아가서 결국 길가에서 두 아이 모두를 출산하였습니다.

영특한 그의 형과는 달리, 주리반타카는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이는 그가 전생에 법사였을 때 법에 인색했던 것에 대한 보궐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그들은 야밤에 도주하였습니다. 아기를 막 출산할 즈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머뭇거리며 계속 미루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녀는 결국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서 길가에서 '큰 길가'를 낳았습니다. 그후 그녀는 다시 출산을 하러 친정으로 가려고 했지만 또다시 때를 놓쳐 '작은 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을 찾아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두 형제는 자라서 조부모, 숙부, 이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느날 그들은 조부모를 뵈러 갔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숙소를 잡고 가족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조부모는 부모에게 "원하는 곳에서 가서 살아라. 수치스럽게 우리를 보러 오지 말아라. 하지만 손자들은 받아들이겠다."라는 전갈과 함께 돈을 보냈습니다. 부모는 가족을 만나지 않고 떠났고 두 형제를 조부모에게 맡겼습니다.

큰길가는 종종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마하판타카는 출가를 청했고 할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는 사미가 되었고 후에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부해서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동생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길가는 사미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500명의 아라한에게 한 계승을 그에게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번갈아가며 그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守口攝意身莫犯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몸으로 잘못을 범하지 말지어라.

일체 유정에 화를 내지 말지어라.

무익한 고행은 멀리할지어라.

이와 같이 행한 자는 가히 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주리반타카는 100일이 지나도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은 그를 꾸짖고 쓸모없으니 다시 재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을 매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정령으로 변신하여 그에게 법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모든 견해와 생각, 괴로움을 쓸어버리는 '깨끗이 쓸기'를 가르쳤고, 그렇게 3주 만에 '작은 길가'는 깨우쳤습니다. 그 후, 그는 막힘없는 언변을 얻었습니다.

그는 의지 제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수행에 있어서는 충분히 영특하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위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이 쓸어라"를 암송하는 것만으로 심지어 아라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불을 하면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전생에, 그는 또한 부처님 밑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처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의 재무관으로 임명되었고, 예언에 뛰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죽은 쥐를 보고 별들을 관찰한 후 "천한 신분의 누군가가 이 죽은 쥐를 주워 장사를 하고 아내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주리반타가가 될 가난한 젊은이는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죽은 쥐를 주웠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먹이로 주점 주인에게 죽은 쥐를 팔았고, 동전 한 닢을 벌었습니다.

그후 가난한 남자는 그 동전으로 당밀을 샀습니다. 그는 약간의 당밀과 물을 꽃을 모으는 몇몇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꽃을 시장에서 팔고 다음날 더 많은 당밀과 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또한 답례로 꽃을 받았고 이를 팔아 동전 몇 닢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나뭇가지가 왕의 정원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왕실의 정원사에게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줍는 대가로 아이들에게 당밀을 주었습니다. 한 도예가가 와서 20냥으로 나뭇가지를 샀고 그에게 많은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후 500명의 풀깎는 사람들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무료로 제공하였고 나중에 그 호의에 보답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한 무역업자와 친구가 되었는데, 그는 말 무역업자가 500마리의 말을 마을에 팔러온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풀깎는 사람들에게 가서 각각 풀 한 덩이를 달라고 부탁했고, 그가 풀을 팔 때까지 풀을 팔지 말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말을 파는 상인은 풀을 찾지 못했고 1,000냥을 주고 그에게서 풀을 샀습니다.

그후 해상 무역업자는 그에게 물건을 가득 실은 새로운 배가 항구로 오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우아한 마차를 고용하고, 멋있게 항구로 가서 외상으로 배를 샀습니다. 그후 1,000명의 마을 상인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항구로 왔습니다. 그들은 그 젊은 위대한 상인이 이미 그것을 소유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마을의 상인들은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 100냥, 총 20만 냥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1,000냥을 선물로 준비하고 재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재무관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었고 재무관은 자신의 딸을 그와 결혼시켰습니다. 그 젊은이는 결국 장인의 뒤를 이어 재무관이 되었습니다.

난다難陀

부처님에게는 세 명의 "난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난다, 순다아난다, 그리고 난다입니다.

난다는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는 소몰이꾼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소 사육의 열한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소 사육을 수행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난다는 그 후 출가를 결심했고 곧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난다에게 500명의 비구니들에게 설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의 설법을 듣고, 비구니들은 모두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전생에 난다는 왕이었고 500명의 비구니들은 그의 후궁이었습니다. 왕은 대법의 수호자였고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 대탑을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탑에 매일 공양을 올렸고, 미래에 왕과 함께 해탈을 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난다는 의용儀容 제일입니다.

순다아난다 孫陀羅難陀

순다아난다는 "행복한 스님"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음력 4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30상을 갖추었고 황금색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외모로 알려졌습니다.

한 나체 외도 수행자가 사리불과 논쟁하려고 하자 혀가 굳어졌습니다. 그 외도는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일으켰고 출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순다아난다의 출중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고, "작은 비구의 지혜는 특별하고 또한 매우 위엄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 뒤를 따라 출가했습니다.

순다아난다는 부처님의 작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순다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탁발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순다라는 그녀의 남편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갔을 때, 그의 아내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순다아난다가 발우를 채우기 위해 부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면 부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 걸음 안에 순다아난다는 집에서 5마일 떨어진 제타 숲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는 그에게 출가하라고 말했습니다. 출가 후, 그는 여전히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탁발하러 나간 동안, 그는 혼자 남아서 문을 지켰습니다. 그는 바닥을 쓸어야 했습니다. 그는 바닥 한쪽을 쓸었지만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바람으로 인해 창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 뒷길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었지만 여전히 부처님과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세존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神通력을 사용하여 순다아난다를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원숭이들을 보고 "내 아내가 더 예쁩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500명의 여신들과 하인들이 있는 궁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궁전이 사후 그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처가 묻자, 그는 "순다리는 이 여신들에 비하면 원숭이와 같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천상에 가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지옥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기름 냄비를 지키는 두 귀신을 만났습니다. 불은 꺼져있었고 기름은 끓지도 않았습니다. 순다아난다가 이에 대해 묻자 게으른 귀신들이 대답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항아리는 부처님의 동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천상의 복이 떨어지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머리카락은 곤두섰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천상의 복을 위해 수행하는 것을 멈추고 곧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아난다阿難陀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에 아버지 곡반왕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경사로 기뻐함(慶喜)"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스무 살에 부처님 밑으로 출가했습니다. 마하가섭과 함께 부처님의 시자였습니다. 앞에는 마하가섭이 서있고 아난다는 바로 뒤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전에 했던 설법을 다시 한 번 반복해 달라고 청했고 그것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마하가섭은 대해불법이 아난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전생에, 아난다는 매우 부유한 장로였습니다. 그는 독경하는 사미에게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사미가 불도를 깨달으면 나는 그의 박식한 제자가 될 것을 서원합니다."라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사미는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의 화신이었습니다.

아난다는 학문 제일이었고 그에게는 8가지 불가사의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1. 그는 결코 특별한 초대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2. 그는 결코 부처님의 낡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3. 그는 부적절한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4. 그는 여신, 아수라 여인과 용녀를 보면서도 더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5. 그는 부처님이 어떤 삼매에 들어가셨는지 알고 있었는데 다른 비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6. 그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 때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이 얻는 이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7. 그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법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8. 그에게 법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 듣고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문은 특별한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대중과 함께 공양해야 하고 혼자서는 공양할 수 없습니다.

라훌라 羅侯羅

라훌라는 그의 전 부인 야소다라에게서 태어난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애"를 의미합니다. 전생에 라훌라는 쥐구멍을 6일 동안 틀어막았고, 이에 따라 6년 동안 어머니의 자궁에 머무는 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행을 위해 왕궁을 떠나기 전에, 야소다라는 세자에게 아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녀는 라훌라를 잉태했습니다. 6년 후 라훌라가 태어났을 때, 정반왕과 온 가족은 그의 어머니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구덩이를 파서 그녀와 아이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소다라는 아이를 안고 구덩이에 올라 "내가 결백하다면 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기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구덩이에 발을 디디자 불구덩이는 어머니와 아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붉은 연꽃의 못으로 변했습니다. 이로써 왕과 백성들은 의심을 그치고 비판과 중상모략을 멈추었습니다.

라훌라에게는 해를 장애한다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전생에 그는 왕세자였는데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태양, 동생은 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영광과 부에 염증을 느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과 함께 출가했고 순수하게 계율을 지키며 조금도 계율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어두운 밤에

그는 무심코 다른 사람의 물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종을 쳐서 승가에게 참회하였습니다. 승가는 그의 잘못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그의 참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왕궁으로 들어가 달왕에게 알렸고, 도둑질에 대한 참회를 구했습니다. 달왕은 사랑하는 형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신하들에게 그를 방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욕심은 버려졌고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형을 살피는데 사로잡혀서 6개월 동안 통치를 게을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 라훌라는 6년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갇혀있는 사악한 응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라훌라는 밀행 제일입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삼매에 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법화경에 이르길 부처님이 세자였을 때 라훌라는 장로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존이 도를 얻었고, 그 장로는 그의 법왕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라훌라의 밀행의 전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세 부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1 진자眞子: 보살들입니다.

2 내자內子: 이들은 한 편으로는 공을 지닌 아라한이지만 아직 중도의 이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3 외자外子: 일반인입니다.

교범바제 憍梵波提

교범바제의 이름의 뜻은 "소 꺼안기"입니다.

과거에 그는 이가 좋지 않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늙은 비구를 두고 "소처럼 먹는다"고 놀렸습니다. 그 노승은 벽지불이었고 그에게 참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참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생을 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수행을 배웠고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천상과 사람의 공양 중 으뜸입니다.

과거에 교범바제는 밀 한 줄기를 꺾었는데 많은 낱알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먹기 위해 500생 동안 소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 비록

인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합니다. 하루종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콧소리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여 낮은 계로 떨어지고 고통을 겪는 것이 두려워, 부처님은 그에게 도솔천에 가서 선 수행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법장을 결집하는 동안 누군가 교범바제를 찾아왔습니다. 교범바제는 "세존은 평안하고 안락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에 들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교범바제는 "스승님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답하길 "사리불은 세존이 정적에 들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삼계에 쉴 곳이 없다고 하였고 또한 열반에 일찍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범바제는 그 말을 듣자 세 번 한숨을 쉬고 천상에서 땅으로 흐르는 물을 변화시켰습니다. 물줄기 안에는 계송이 있었습니다.

교범바제는 면전에서 인사드립니다.

묘한 대중 안에서 가장 단엄한

상왕은 떠났고 상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적멸에 들었으니 저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몸을 태우기 위해 불을 화하였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처님과 스승에게 충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흐르는 물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두로파라타 賓頭盧頗羅墮

그의 이름은 부동한 이근不動利根이란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라한은 그들의神通력을 쉽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한번은 한 장로가 백단나무로 그릇을 만들어 기둥 위에 두고,神通력으로 그릇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빈두로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神通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때, 그는 산에 있었는데 천안으로 멀리서 보고神通력으로 번개를 빠르게 타고 와서 왕의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태양을 가렸고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도시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임산부는 유산을 했습니다.

부처님께 이 일이 보고되자 부처님은 그를 엄하게 꾸짖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도 말고, 적멸에 들지도 말아라.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들여 그들이 복을 짓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 그는 현재 인도 남부의 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초청을 받으면 자신의 몸을 드러내어 공양을 받으려 갑니다. 그는 적절한 의식과 규칙을 청하곤 했습니다. 염부제 사람들이 삼보에 공양을 올릴 때마다, 그는 그것들을 받습니다.

빈두로는 복전 제일입니다.

가류나제 迦留陀夷

가류나제는 브라만계급으로 세자 싯다르타가 출가하기 전까지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검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의 피부색은 검었지만 그의 몸과 눈은 빛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탁발을 나갔고, 한 임산부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귀신인 줄 알고 겁을 먹고 유산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결과, 사문은 밤에 나가는 것을 금하는 계율이 만들어졌습니다.

칼로다인은 부처님의 시자이자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수많은 현자를 제도한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마하겁빈나 摩訶劫賓那

마하겁빈나는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갖기 위해 28개의 별자리 중 하나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코살라국에 살았습니다. 세존은 늙은 비구의 모습으로 화하여 그를 가르치고 그가 도를 얻게끔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양철 지팡이를 짚으면서 걸었고 초가집에서 겁빈나와 함께 지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선근이 성숙했음을 알고, 원래의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마하겁빈나는 그 상호를 보고, 즉시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을 듣고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겁빈나는 점성술에 제일입니다.

박구라 薄拘羅

박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좋은 태도"를 뜻합니다.

박구라는 용모가 매우 출중하였습니다. 비바시불의 열반 이후 한 벽지불이 심하게 두통을 앓았습니다. 비록 박구라는 가난하였지만, 병든 스님에게 약간의 과일을 공양 올렸습니다. 벽지불은 그것을 먹고 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이 공양으로 인해, 91겁 동안 그는 신과 인간계에서 부와 안락을 누렸습니다.

박구라경에 이르길 "나는 정법과 율을 연구해 왔다. 8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가벼운 병도 앓지 않았다. 약도 먹은 적이 없다.

박구라는 수명 제일로 160세까지 살았습니다.

약을 공양한 작은 원인으로 그는 질병이 없는 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을 주는 쌍인 시약 施藥에 속합니다.

또한, 전생에 박구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여자에게서 옷도 받지 않으며, 여자에게서 음식도 받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몹시 그리워해서 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분노했고 아들이 다섯 가지 바라이죄 중 하나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장차 내가 그의 어머니가 되면, 나는 그를 수많은 잘못으로 비난하고 그에게 벌을 주겠다"는 사악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시 태어났을 때, 그는 다섯 종류의 영아 살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구라는 과거에, 아주 순수하게 불살생의 계율을 지켜 어떤 생물, 풀, 나무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없는 보를 받았습니다.

1 불로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그는 다른 아기들처럼 울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귀신이라고 믿은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불 속에 던져버렸지만 그는 무사했습니다.

2. 그를 끓여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가 불로 인해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귀신이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냄비에 넣고 끓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그는 다시 무사히 나타났습니다.

3. 물로 그를 익사시킬 수 없습니다: 화가 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바다에 던졌고, 큰 물고기가 그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익사를 면했습니다.

4. 물고기가 그를 삼켜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한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그를 삼켜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5. 칼로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어부들은 칼로 물고기를 잘랐습니다. 그는 물고기 배에서 다치지 않고 나왔고 그로 인해 칼로 그를 해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박구라는 나중에 출가하여 결국 성인과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 수행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고 끊임없이 삼매의 안락을 즐기고 무거운 옷을 입지 않고 무리를 싫어했습니다. 열반 후에도 그의 탐은 적막함을 좋아했습니다. 한번은 아쇼카 왕이 그의 탐에 동전을 올렸는데 그 동전이 다시 날라와서 왕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열반 후에도 그의 탐은 방해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누루다 阿那樓駄

아누루다는 가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래 전, 부사불 시대, 아누루다는 벽지불에게 점심을 공양하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 결과, 91겁 동안 그는 가난하지 않았고 원하는 대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가에 음식을 공양하는 쌍에 속합니다.

또한, 과거에, 그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보석을 훔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상호를 한번 보자마자, 그는 보리심을 발해 활과 화살을 버리고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선량함 덕분에, 그는 출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누루다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동안 종종 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졸 수가 있는가? 조개와 같이

몇천년을 자면 부처님 명호를 들을 수 없다.

아누루다는 7일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아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후 그에게 "조명금강삼매照明金剛三昧"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으로 그는

마치 삼천세계를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누루다는 천안제일입니다.

대중에는 열여섯 명 이상의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 대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존재로 전수되는 법이 중요함이 검증됩니다.
2.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직접 받고 가르침으로부터 이로움을 얻기 위해 그 곳에 있습니다.
3. 회중을 장엄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화려함과 축하를 더합니다.

보살의 대중

그리고 문수사리법왕자와 아일다보살(미륵보살),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등의 여러 위대한 보살들과, 범천, 제석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함께 하였다: 청중에 아라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토행법을 들을 필요가 있는 보살도 있었습니다.

보살

보살은 출가자나 재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정해진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중생을 돕기 위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라한은 유여열반에 집착합니다. 신과 인간은 유有에 집착합니다 오직 보살만이 열반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고, 유에 의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대중에서 두 번째 무리입니다. 그들은 자비의 마음을 형상화합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로써 정토행회를 지지하기 위해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보살은 크게 이문二門에 속합니다.

1. 자리自利: 그들의 의식과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지혜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2. 이타利他: 그들은 무엇보다도 대자비가 있습니다. 중생들을 그들 자신과 똑같이 보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일하고 개인적인 여유와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차별없이 모든 중생들의 고난과 고통을 마치 그들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보리”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즉 출세간적인 지혜를 추구합니다. “사트바”는 모든 중생들을 차별 없이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보살들은 네 가지 광대한 서원을 세웁니다.

1. 무변한 중생을 제도합니다.
2. 무진한 번뇌를 끊습니다.
3. 무수한 법문을 배웁니다.
4. 위없는 불도를 이룹니다.

마하살의 명성은 시방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8지 보살입니다. 그들은 모두 도를 위한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하는 위대하다고 번역되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위대한 서원: 그들은 보리를 추구하기 위해 광대한 서원을 세웁니다.
2. 위대한 행: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위대한 행을 합니다.
3. 위대한 시간: 그들은 그들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4. 위대한 덕: 일승의 모든 덕을 구족합니다.

문수사리 文殊師利

문수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화엄종에 따르면 문수사리는 믿음, 실천, 지혜를 상징합니다. 믿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문수사리는 "묘하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존재들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문수사리는 또한 "묘덕妙德"으로 번역됩니다.

그의 이름은 훌륭한 묘덕을 구족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으로 4대 죄악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문수사리는 현겁시대에 7대불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보리를 얻었고 용종상존왕불龍種上尊王佛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는 부처가 되어 북쪽에 있고, 보종불寶積佛이라고 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지혜가 제일임을 나타내는 열 가지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1. 그 방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그의 반야 지혜가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 그릇들은 감로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그가 감로법을 이용하여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귀신의 머리에 감로를 뿌리면, 귀신의 나쁜 업은 즉시 없어지고 귀신은 좋은 왕생을 얻습니다.

3. 그가 사용하도록 일곱 가지 종류의 보석이 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4. 신들은 그들의 보물을 열었습니다. 전륜성왕들은 일곱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수레바퀴, 흰 코끼리, 옥녀, 말, 여의주, 군대의 장관, 보물을 지키는 신들. 이 보물들은 오래 전에 땅에 묻혀 잊혀졌습니다. 문수사리가 태어나자 신들은 이 보물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5. 닭이 봉황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상서로운 새들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 매우 큰 행운입니다.

6. 돼지가 용을 낳았습니다.

7. 말은 또 다른 상서로운 동물인 유니콘을 낳았습니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 유니콘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목에 끈을 묶었습니다. 그가 생을 마칠 무렵, 몇몇 사냥꾼들은 목에 끈을 두른 유니콘을 죽였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보고 끈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8. 소가 백마를 낳았습니다. 백마는 매우 희귀하고 길한 동물입니다. 말처럼 생겼지만 황소의 발굽을 가지고 있습니다.

9. 곡창지대의 곡식이 모두 금으로 변했습니다.

10.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열가지는 10바라밀을 상징합니다.

문수사리보살은 불법에 이미 자재하기 때문에 **법왕자**라고 합니다. 다른 보살들처럼, 그는 정위에 들었습니다. 그는 부처의 종자에 활기를 불어넣고, 결국 세자가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것처럼, 법왕(부처)의 자리를 계승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보살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정토법회를 지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토법문은 진정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지혜 보살이 제일 먼저 그것을 증득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사리불은 권혜權慧를, 문수사리는 실혜實慧를 상징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토법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질문: 이 마하살은 이미 그의 행원을 완성했고 중생을 제도하는 자신만의 불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불토를 버리고 사바세계에 나타났습니까?

답: 부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토와 다른 불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마하살은 대자애와 자비로써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법문의 전파를 돕습니다. 깨달은 자들의 너그럽고 사심 없는 행동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일다 阿逸多

아일다는 "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미륵보살로 주로 자비삼매를 수행합니다. 아무리 그를 나쁘게 대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습니다. 과거 그는 일체지一切智라고 불리는 브라만 계급에 속했고 8천 년 동안 자애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부사불弗沙佛 시기에, 그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함께 보리심을 발하고, 끊임없이 자애법을 수행했습니다. 비화경悲華經에는 그가 전쟁 중에 일체 중생을 보호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겁 시대에 중생들에 대한 지극한 자비와 자애로써 아일다는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소승 수행자들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적이라 불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했을 때, 그녀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중생에 대해 매우 자비로웠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한 관상학자는 그것이 모두 아이의 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친절의 씨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연유입니다. 태어날 때, 그는 완전한

32상호를 갖추었고, 그의 몸은 보라-황금색이었고, 그의 위의와 태도는 특이
고결하고 특별했습니다. 이제 인이 성숙하여 그는 이 정토회에 와서 정토회문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다음 부처로 용화회를 주관하며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지금 그는
도솔천의 내원에서 그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심삼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일다는 계승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남루하게 입고

배는 소박한 밥으로 채우네.

옷을 꿰매어 추위를 막고.

만사 인연을 따르네.

누군가가 이 어리석은 노인을 욕하면 받아들이네.

누군가가 때리면 물러서고 잠을 자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마르때까지 기다리네

힘을 아끼고 번뇌를 피하네.

이런 종류의 바라밀이 최상의 묘한 보배가 아닌가?

만약 이것을 안다면 도를 성취하지 못할까 어찌 걱정하겠는가?

연에 따른다는 것은, 일이 생기면 응하고 일이 사라지면 다시 정靜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건타하제보살乾陀訶提菩薩 /상정진보살常精進菩薩

건타하제는 "절대 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해왔고 단 한 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한없는
걱정의 진塵이 있습니다. 중생은 무수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랑의 강은 끝이
없고 그 물결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보살은 중생의 제도를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정신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길 '난생, 습생, 태생, 화생에서 태어나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 것까지 포함시켜서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고 멸을 깨닫겠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능엄경의 계송에 아난다는 "단 한 중생도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면, 열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상정진常精進

상정진은 생각 생각에 게으름이 없어 '항상 정진한다'는 뜻입니다. '정精'은 섞이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進'은 이치를 이해하여 나아가거나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이 보살은 한 중생을 구하기 위해 무수한 겁을 겪었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겁동안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진수행합니다. 쉬지 않고 정진합니다. 위로는 부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합니다. 지혜와 연민이 둘 다 사용됩니다.

더 많은 보살들이 있지만, 단지 네 보살만을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 문수사리 보살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정토 법문'은 정말 불가사의해서 큰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낼 수 있습니다.

2. 아일다 보살은 서원을 상징합니다. 이 보살은 과거에 대자여래大慈如來를 만나 대자大慈를 수행하겠다고 서원하고 바로 '자심삼매慈心三昧'를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고 아미타불처럼 무량한 생명과 빛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3. 건타하제보살과 상정진보살은 행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일심불란의 삼매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생각 생각에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수행을 합니다.

여러 위대한 보살들과 그 밖에도 수많은 마하살들이 만 가지 행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한 정도법회를 장엄하기 위해 참석합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위대한 자비의 대중을 나타냅니다.

사_事의 측면에서 그들의 참석은 큰 인연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삼보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보는 불도를 성취하는 큰 인연을 심어줍니다. 부처님을 자주 접하고 법을 듣는 것, 부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승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큰 인연입니다.

이_理의 측면에서, 그들이 법회에 나타난 것은 비밀장_{秘密藏}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미 부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현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아록다라삼막삼보리로 가는 더 빠른 길인 이 법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석제釋提

석제(샤크라)는 또한 인드라라고도 하며, 능엄주에서는 인타라야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천상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그는 또한 무애정 불_{無卓遼佛}이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인드라는 가섭불 시대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32명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탐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트라야스트림사 천상에 다시 태어나 내신_{內臣}이 되었습니다. 트라야스트림사 천상에는 중앙의 천상을 둘러싸고 사방에 각각 8개의 천상이 있습니다.

범_天: 샤크라는 그의 권속인 신, 여신들과 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수야마천, 도솔천 등 욕계에 있는 나머지 천상을 포함합니다.

욕계에서 가장 낮은 곳은 사천왕천입니다. 각각은 소위 샤크라의 외신_{外臣}들 중 한 명이 통치합니다.

1. 동방지국천왕_{東方持國天王}: 그의 궁전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 남방증장천왕_{南方增長天王}: 그의 궁전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3.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 그의 궁전은 하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 그의 궁전은 수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천왕들은 팔부신중을 다스리며 세상을 지지하고 보호합니다.

색계에는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정하며 성적 욕망을 뒤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색계는 더 이상 색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을 위해 그것을 버립니다. 그들은 색온이 없습니다.

신과 인간이 마지막으로 나열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들은 세속적인 상(유루와 함께)이 있습니다.

2. 그들은 범부뿐만 아니라 성현도 포함한 구역입니다. 예를 들어 팔부에는 많은 보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들은 외부 호법자 역할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수많은 신들과 여신들, 아수라들, 인간과 비인간들, 귀신들이 시방에서 왔습니다.

정토법이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넓습니다. 어떤 중생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경전의 서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문이 너무 오묘해서 성인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법의 청을 받지 않아도 법문을 설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는 이 법문이 이 넓은 범위의 청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단의 이로움을 주기 위해 이에 대해 설했습니다.

1.세간실단世間悉檀: 중생들로 하여금 복과 이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아미타불이 지금 법을 설하고 있는 서방극락정토에 대해 듣고 중생들은 행복해 합니다.

2.대치실단對治悉檀: 중생들로 하여금 악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들은 대로 정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염한다면, 신구의 삼업에서 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3. 위인실단為人悉檀: 중생들의 선근이 증장하게 합니다. 그 명호를 외으면 그의 국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진심으로 염불합니다. 염불은 불가사의한 선함, 복덕,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4.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 중생들로 하여금 이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한동안 염하면 염불의 공부가 더욱 깊어지고, 결국 삼매에 들어가 심오한 원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정중분

믿음과 기쁨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토의 정보와 의보의 장엄에 대해 설명함

경문

그 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명호(이름)를 아미타불이라 하며, 지금 현재도 그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강설

그 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불가사의한 법문은 그 깊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보편적으로 삼근을 모읍니다.

1. 탐, 진, 치
2.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3. 미혹한 자들, 이승과 보살들

또한, 정토법문은 다른 모든 법문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심오하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라한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리불에게 그것을 설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혜와 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천안을 연 사람들도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설법의 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설하여, 아라한들이 법안을 열고, 손지를 보고, 시방불을 섬기고, 보살도를 널리 닦기를 바랬습니다.

질문: 왜 보살이 아닌 사리불을 지칭했습니까?

답: 보살은 오염된 씨앗을 제거했고 정토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성문은 여전히 분별합니다. 성문의 지도자에게 이 법을 알려주어 그들은 기뻐하고 이 수승한 법을 존중합니다.

질문: 왜 다른 성문이 아닌 사리불인가요?

답: 부처님께서 스승을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십만억의 불국토를 지나서는 십사/번뇌를 조복함을 의미합니다. 숫자 10은 많음을 상징합니다. 10을 곱해서 큰 수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마음이 무한한 번뇌를 조복해서 청정해짐을 의미합니다. 그가 법장 비구였을 때 아미타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그의 번뇌를 청정하게 하겠다는 48대원을 세웠습니다.

세계는 20개의 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바세계와 서방극락정토는 모두 1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불을 향해 수평으로 서쪽 방향을 향해 갑니다.

불토는 또한 삼천대천세계라고도 불립니다.

각각의 세계 중심에는 달과 태양, 네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수미산이 있습니다. 네 방향에 각각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대륙은 84,000 요자나 넓이의 거대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부 대륙은 "뛰어난 몸"을 의미하는 불파제弗婆提라고 불립니다. 이는 이 곳 존재들의 우월한 몸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키가 8치이고 250살까지 삽니다.

서쪽 대륙은 "소 상품"이라는 뜻의 구야니瞿耶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를 상품으로 사용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의 키는 16치이고 500살까지 삽니다.

남쪽 대륙은 "우수한 금"을 의미하는 염부제閻浮提라고 불리며 나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나무의 수액은 물로 흐르고 모래와 돌을 특별한 금으로 바꿉니다. 이 대륙의 사람들은 키가 3.5 치이고 100살 미만까지 삽니다.

북쪽 대륙은 울단월單越이라고 불리는데, "우수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륙은 다른 세 대륙보다 뛰어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키가 32치이고 1,000살까지 삽니다.

이 네 대륙은 강철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강철 산맥은 네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바다 밖에 있습니다.

사천왕천과 같은 높이인 42,000 요자나 높이의 수메루 산 중간 지점에 위치한 달과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이 모든 것이 "사천하四天下"라고도 불리는 "소세계小世界"를 구성합니다.

위에는 육육천국과 초선천이 있습니다.

천개의 소세계는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천개의 소천세계는 중천세계라고 합니다. (삼선천의 가장 위)

천개의 중천세계는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사선천의 가장 위)

삼천대천세계는 불토를 형성합니다.

질문: 왜 서쪽입니까?

답: 좋은 질문이 아니군요! 만약 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왜 동쪽이냐고 물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서방극락정토의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수발제須摩提로 극락, 안양安養, 안락安樂, 청태淸泰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같습니다. 정토에는 탄생과 죽음, 고통과 위험이 없습니다. 순수한 행복과 안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영원히 고통을 떠나고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이 땅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인데 현재 법을 설하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한 아미타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무량수라는 뜻입니다. 이 부처님은 여전히 현재에도 법을

설하십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법을 설하셨고 미륵불이 미래에 법을 설하는 우리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중생은 더러움을 보는 반면 보살은 청정을 봅니다. 그래서 중생계와 달리 보살과 부처님의 정토는 재앙에 의해 파괴되지 않습니다.

서방극락정토와 같은 정토는 중생을 모아서 섬기고자 합니다. 사바세계와 같은 예토는 중생을 조복하고자 합니다.

서방극락정토에 나타난 4종류의 정토의 경과 예穢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합니다.

1. 범성동거토凡聖同居土: 능엄주에는 예를 맑은 물에 진흙을 던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바세계는 5가지 혼탁이 있고 그래서 더럽습니다. 서방극락정토는 반대로 가라앉은 진흙탕과 같고 그래서 청정합니다.

2.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는 변혁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는 이승의 수행자가 머뭍니다. 이곳에는 또한 무지를 타파하지 않은 사람들도 주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극락정토의 이 곳은 청정합니다.

3. 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礙土: 이 정토는 매우 장엄합니다. 등각의 보살이 여기 주합니다. 이곳도 또한 청정합니다.

4. 상적광토常寂光土: 이는 부처님의 정토입니다.

서방극락정토의 첫 번째 정토는 청정하고 모든 불토 중에서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바세계에서 범부와 현인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범부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행을 좋아하지 않고 종종 재난과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우리의 몸은 다양한 업장이 얽여져서 나타나지만 부처님은 다릅니다.

1. 부처의 법신은 이법이 쌓여서 모인 것입니다. 이理는 구별 없이 동일하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2. 부처님의 법신은 모든 의심을 정화하고 지혜를 완성하여 지혜를 몸으로 삼습니다. 사실, 이것은 후득지後得智를 통해 나타납니다. 보살의 지혜는 반야의 지혜를 얻은 후의 지혜를 일컫습니다. 이승의 보살의 눈으로는 보신을 볼 수 없습니다.

3. 부처님의 응신 또는 화신은 모든 중생의 연이 취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생의 기원이 성숙되면 부처님은 이에 응하여 32상과 80종호를 장엄한 다양한 9계의 중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록 세가지 몸이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들은 동체로부터 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범부와 성인이 거주하는 정토의 화신입니다.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가지 종류의 복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연장자를 공경하며 자애를 수행하고 살생하지 않고 10선행을 수행합니다.
2.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고 위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3. 보리심을 발하고 인과를 깊이 믿으며 대승경을 독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가까이 하고 수행하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모든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세가지 바른 인연입니다.

있다는 것에는 네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실입니다: 중생이 그 정토에 왕생하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원인이 됩니다.
2. 진실합니다: 청자로 하여금 일심이 되게끔 합니다.
3. 묘사된 것은 환영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조건에 따라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잘못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극단의 집착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마와 권승 혹은 이승의 집착을 파괴합니다.
4. 증득할 수 있는 진실한 성품이 완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 법을 설하시며

이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정보正報와 의보依報를 의미합니다. 이 부처님은 항상 법을 설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법을 설하신 우리 사바세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미륵불이 세계에 나타나 법을 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토에 가서 아미타불 곁에 갑니다. 삼계에서 수평으로 벗어나 불보살님들로부터 대승법을 배웁니다.

다시 말하지만

1. 있다는 것은 지금 믿음을 재확인합니다.
2. 서방 극락 세계는 실제하므로 거기 왕생하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3. 아미타불은 현재 교주입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염불하고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 그의 도움을 구합니다.

질문: 서방의 모든 정토의 안락은 동일합니다. 왜 다른 정토가 아닌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권합니까?

답: 평범한 사람들의 업은 무겁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들은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르길 “중생은 모든 곳을 취한다. 그들은 해탈로 가야 한다. 게다가 서방정토의 교주는 매우 강한 수승한 원이 있다. 우리는 그의 원력에 힘입어 왕생을 얻도록 중생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문

사리불아, 그 나라 이름을 어찌하여 극락이라 부르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받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그 나라 이름을 어찌하여 극락이라 부르는가 하면, 이제 석가모니불이 극락에 대해 설명해서 청자가 믿음을 발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지만 그는 무엇을 물어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받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중생은 5온-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법상法相이 합해져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사대요소가 거짓으로 합해져 일어난 것으로 색온色蘊에 속합니다. 첫 5개의 식은 5진을 인식하고 수온受蘊을 만듭니다. 육식은 육진의 연에 매달리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상온想蘊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다른 생각을 끝없이 쫓고 칠식은 항상 평가합니다. 그것이 행운行蘊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식은 색色과 의보依報의 씨앗을 저장합니다. 그것이 식온識蘊입니다. 가장 낮은 중생부터 등각의 지위에 이른 보살을 포함한 모든 중생은 이런 요소를 갖습니다.

이 불토의 모든 중생은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생으로 태어나 청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기 사바 세계는 감정에 의해 태어나고 결과적으로 고통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잘 견뎌냅니다.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면 수명은 무한하고 육신통을 모두 갖추고, 법계를 자재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천상의 옷과 음식이 풍성하고 원하는 대로 주어집니다.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법을 듣고 법락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토에서 그들의 안락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행복이 함께 뒤섞인 사바 세계와는 달리 오직 안락만을 경험합니다! 그 행복이 어떨까요?

고통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이 새로운 소식인가요?

고통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고苦苦: 우리의 몸은 고통의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2. 괴고壞苦: 사바세계에서 행복의 수명은 짧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에서 행복이나 안락은 괴고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진정한 행복이나 안락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3. 행고行苦: 이것은 위의 두 가지 괴로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온을 버리고 고통도 기쁨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온의 형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상"은 쉬지 않고 변화하여 결국 소멸합니다.

이런 종류의 고통의 상相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공자가 냇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밤낮 내내 끊임없이 흐르는구나.

궁극적으로 서방정토의 안락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사바 세계의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서방정토의 안락은 사바세계의 고통을 피하고 극락의 땅에서

왕생하기를 바라게 합니다. 사바세계와 서방정토의 열가지 고통과 안락을 10가지 측면에서 대조하였습니다:

1. 사바세계에는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서방정토의 중생들은 연꽃이 피자마자 아미타불을 만납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안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바세계는 불법을 듣지 못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서방정토에서 중생들은 물과 새와 나무들이 모두 법을 설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3. 사바세계는 사된 도반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어두운 쪽으로 끌어당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서방정토에는 오직 선하고 수승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모임에 있는 행복을 얻습니다.
 4. 사바세계는 바깥의 수많은 마의 무리들로 인해 고통 받고 내면에 번뇌가 있습니다. 서방극락정토에는 부처님의 호념으로 중생들은 안락을 경험하고 마로부터 보호받습니다.
 5. 사바세계는 끊임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휘말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서방극락정토에는 수평적으로 생사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환생을 피합니다.
 6. 사바세계는 삼악도에 쉽게 떨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서방극락정토에는 삼악도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안락을 얻습니다. 그곳에는 심지어 그 삼악도의 이름조차 듣지 못합니다!
 7. 이 세상은 진연 塵緣으로 인해 수행이 장애받는 고통을 겪습니다. 서방극락정토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8. 사바세계는 고난으로 가득한 짧은 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서방극락정토에서의 수명은 부처의 수명과 마찬가지로 무한합니다.
 9. 사바세계는 퇴보하고 수행을 저버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서방극락정토에는 올바른 삼매를 구족하고 불퇴의 안락이 있습니다.
 10. 사바세계는 도를 얻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서방극락정토에는 한생에 불도를 성취하고, 해야 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안락을 경험합니다.
- 사바세계는 분절사分段死를 겪습니다. 분분은 수명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절段은 몸의 크기, 높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서방정토극락세계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들은 연꽃에서 화생하여 태어나 마지막 몸을 연습니다. 그들은 한 생애 불도를 성취할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분절생사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8가지 종류의 고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방극락정토에서는 뱃속에서 9개월을 지내야 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태어나는 등 출생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대신, 꽃에서 화생으로 태어나는 안락을 경험합니다.
2. 노화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모두 완벽한 이목구비와 몸을 갖추는 안락이 있습니다.
3. 병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재를 얻고 안전합니다.
4. 4대 요소가 무너지는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무한한 수명의 안락을 연습니다.
5.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바다처럼 거대한 성현들과 현인들의 모임의 일원이 되는 안락을 누립니다.
6.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대신, 수승한 근기의 사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7.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사실, 모두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성취하는 안락을 연습니다.
8. 맹렬한 오온의 고통이 없습니다. 대신, 온을 비추고 모두 공함을 보고 안락을 연습니다.

질문: 그 땅은 고통이 없습니다. 왜 극락이라고 합니까?

답: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예토와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많은 중생들이 그곳의 왕생을 구하도록 고취시킵니다.

질문: 보통 사람들은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을 열망하며 안락을 위해 고통을 버리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완벽한 법문이라고 하나요? 보살들은 스스로 열반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으며, 고통에서 중생들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살들은 고통에도 안락에도 집착하지 않고 취함과 버림에 대한 집착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염불하는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왕생을 구하지 않습니까?

답: 무생법인만으로 여전히 중생을 제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배가 가라앉는 것과 같으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토에 왕생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것을 보고 듣기 위해, 무생법인을 얻기 위해 염불합니다. 일단 이를 성취하면, 모든 불토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바 세계의 고통을 저버리는 것은 다름아닌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방정토의 왕생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보살이 안락을 구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에게 안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보살의 위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소승 수행자들은 주로 그들 자신의 안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서방극락정토는 삼계에 속합니까?

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1.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계가 아닙니다.
2. 서방극락정토의 존재들은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색계가 아닙니다.
3. 게다가, 그들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무색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미 삼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더러운 씨앗을 만들지 않고, 밖으로는 외적인 것에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윤회의 바퀴를 벗어나 영원히 삼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극락의 땅에서 중생은 단지 생각만으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종류의 정토-범성동거토의 고통과 안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정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여방편토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뛰어난 수행자들은 공과 적멸 중 한 쪽의 고통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서방극락정토에서는 일방적인 공과 적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토를 정화시키고 중생들을 돕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보장엄토實報莊嚴土: 보살은 일심과 삼관三觀을 통해 이 정토에 들어갑니다. 비록 법계는 분별이 없지만, 무명의 습기는 가볍고 지혜는 강하고 날카롭습니다.

비록 세 가지 관조적 지혜는 완전하지만, 습기는 여전히 무겁고 지혜는 다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토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보장엄토에서 보살들은 불가사의하고 장애없는 안락을 누립니다.

상적광정토는 부처님의 안락한 상태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사바세계는 별교에 해당합니다. 비록 처음 12가지 무지가 근절되더라도, 안락은 여전히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초지보살부터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단계의 무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경문

사리불아, 또한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의 난간이 있으며, 일곱 겹의 그물이 드리우고, 또한 일곱 겹의 가로수가 무성한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금. 은. 유리. 파려 등의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두루 온 나라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또한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의 난간이 있으며, 일곱 겹의 그물이 드리우고, 또한 일곱 겹의 가로수가 무성한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금. 은. 유리. 파려 등의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두루 온 나라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다음으로, 부처님은 서방극락정토의 의보를 묘사합니다. 심지어 사리불조차도 이런 종류의 장엄을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장엄은 인과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건적이고 유루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서방극락정토의 모든 장엄은 아미타불의 복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무조건적이고 무루법입니다.

난간은 수평적 장벽을 의미하는 欄과 수직적 장애인 楯을 나타냅니다. 이 난간은 계율을 상징하는 경계를 장엄합니다.

그물 서방정토에서 그물은 빈허공을 장엄합니다. 이는 집중을 상징합니다.

가로수: 정토에서 나무는 길과 땅을 장엄합니다. 각각의 나무는 모두 보물로 만들어진 7겹의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 사이에 5천만 송이의 묘한 꽃과 매우 장엄한 궁전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각 층은 다음 층과 연결되었습니다.

7: 7은 7가지 계층을 상징합니다. 깨달음의 37조도품은 7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4념처(四念處,) · 4정근(四正勤) · 4신족(四神足) · 5근(五根) · 5력(五力) · 7각지(七覺支) · 8정도(八正道)

금, 은, 유리, 파려 등의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이 네 가지는 열반의 네가지 덕목을 나타냅니다. (상락아정) 혹은 이 네 가지 보물은 중생이 모이도록 아미타불이 사용한 네가지 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보석들은 7가지나 4가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수히 많은 보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에서 금나무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과일 등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황금 뿌리와 은빛 줄기를 가진 나무들이 있는데, 나뭇가지와 잎, 꽃과 열매는 금과 은의 두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일곱 가지 보석의 조합은 다양합니다.

관경에는 일곱 열의 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나무는 8,000 요자나 높이입니다. 각각의 꽃과 잎은 다른 종류의 보석과 색깔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리에서는 황금빛이, 크리스탈에서는 붉은빛이, 나무에는 귀한 진주 그물이 덮여 있습니다. 각각의 나무 열에는 7종류의 그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물 사이에는 5억 송이의 멋진 꽃과 궁전이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묘사하였습니다.

장엄을 설하는 것은

1. 범성동거토에서 장엄은 수승한 좋은 업이 감응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관의 다섯 가지 등급에서 일어납니다. 體體는 조건부로 생긴 수승하고 묘한 다섯 개의 진입입니다.

2. 방편유여토에서 장엄은 공관지空觀智와 상사삼관相似三觀이 감응한 것입니다. 체는 묘공진오진妙空眞五塵입니다.

3. 실보장엄토에서 장엄은 '묘속관지妙俗觀智'와 분증삼관分證三觀가 감응한 것입니다. 체는 묘속진무량오진妙俗眞無量五塵입니다.

4. 상광정토에서, 장엄은 중관의 감응입니다. 또한 구경삼관究竟三觀이 감응한 바입니다. 체는 묘중제칭성오진妙中諦稱性五塵입니다.

이 서방극락정토의 모든 장엄은 중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토의 장엄들은 인과법, 공, 속, 중관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청정이 공존하는 서방극락정토에서 공과 속이 한없이 완벽하게 융합되는 이유입니다.

질문: '적광寂光'은 단지 이리의 특성인데, 어떻게 장엄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각각의 장엄은 전체 이성理性입니다. 각각의 이성은 장엄을 구축합니다. 이는 제불이 구경에 과에 의지諸佛究竟依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광정토가 승묘오진勝妙五塵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공법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방정토의 존재들은 8가지 대자유가 있습니다.

1. 한 몸이 무한한 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미진 크기의 몸이 대천세계를 완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3. 이 거대한 몸은 떠다니거나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4. 무한한 종류의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모든 감각 기관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됩니다.
6. 어떤 법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않고도 모든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경에서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묘사됩니다.
7. 한 구절의 의미는 무한한 겁에 설명될 수 있습니다.
8. 몸은 허공처럼 모든 곳에 퍼져 있습니다.

질문: 난간, 그물, 줄지어 서 있는 나무들은 7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숫자가 아니라 7일까요?

답: 이것은 그곳에 왕성한 사람들이 모두 깨달음의 일곱 가지 사지를 얻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몸과 입과 일곱 가지 업은 일곱 가지 현인의 보물을 타고났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경문

사리불아, 또 극락세계에는 七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청정한 물이 그 안에 가득하며, 그 보배 못 바닥은 순전한 금모래가 깔려 있고, 사방 못 가에는 층계가 있는데, 금.은.유리.파려 등의 보배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그 층계 위에는 누각이 있으며, 그것은 금.은.유리.파려.자거. 진주.마노 등의 七보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또한 보배 연못 가운데는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수없이 피었는데, 푸른꽃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른 꽃에서는 누른 광채가,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가, 흰 꽃에서는 하얀 광채가 나는데

강설

앞 장에서 우리는 중생이 머무는 장소에 대한 묘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중생이 태어난 연못에 대해 묘사합니다.

사리불아, 또 극락세계에는 七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칠보

1 금: 금은 5가지 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황금이 최상입니다. 오랫동안 묻혀 있어도 어떠한 손상이 없습니다. 속성을 잃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흙에서 만들어져서 금을 뜻하는 한자에는 흙을 의미하는 한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 은

3. 유리: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4. 자거(수정). 대지논에 이르길 수정은 산 속에 있는 동굴의 돌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되기 전에 1000년 동안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토에는 추위나 더위가 없고 땅도 얼지 않는데 어떻게 결정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비록 수정이 돌의 일종이지만, 그것은 진짜 돌이 아닙니다.

5. 산호

6. 적진주

7. 마노

우리의 사바 세계의 돌과 자갈은 유루의 현혹된 업에 의한 것입니다. 서방극락정토에서 보석은 무루의 순수한 업에 의한 것입니다. 대아미타경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안, 밖, 왼쪽, 오른쪽 모두 10개의 요자나에서 30개의 요자나에 이르는 연못이 있습니다. 어떤 못은 심지어 10,000개의 요자나입니다. 어떤 것들은 바다만큼 큼니다. 각각의 못은 한 종류 혹은 두 가지 종류 또는 일곱 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구성됩니다.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청정한 물이 그 안에 가득하며,

연못의 물은 여덟 가지 덕이 있습니다.

1. 미지근함: 각자의 바램에 따라 따뜻하거나 시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사바 세계에서는 물이 꽤 차갑거나 뜨거울 수 있습니다.
2. 맑음: 물이 더럽고 탁해지는 사바 세계와 달리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3. 감미: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사바세계의 물은 짜거나 싱겁거나 맛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4. 부드러움: 딱딱하고 무거워질 수 있는 사바세계의 물에 비해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5. 촉촉함: 더러움을 바로 씻어냅니다. 이에 반해 사바세계의 물에서는 악취가 나기도 하고, 맛과 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세균이 증식하기도 합니다.
6. 조화로움: 사바세계의 물은 때로는 급류가 되거나 격렬해지는 것과 반대로 정토의 물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7. 배고픔과 갈증을 없애줍니다.
8. 사람들을 익사시키고, 질병이 증식하는 사바세계의 물과 달리, 모든 뿌리를 자양합니다.

그곳의 물은 단지 이 8가지 덕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수한 미덕이 있습니다. 관경에는 각각의 못이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들은 매우 부드럽고 여의주왕에서 생성되었습니다. 그 못은 14가지 개울로 갈라집니다. 각각은 일곱 가지 보석의 색상을 나타내고, 꽃 사이로 다양한 색상의 물이 흐르며 고통, 무상, 무아와 공의 법을 설합니다.

무량수경에 이르길 그 선하고 수승한 근기의 중생들이 못에 들어갈 때, 물의 온도는 그들의 바람대로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몸을 자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씻으면서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은 중생들의 바람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이 덕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가뭇이 들거나 홍수가 나는 우리 세계의 물과 달리, 이 물은 알맞습니다. 각 개인에게 깊이가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상체를 씻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마치면 자동으로 무릎까지 내려와 다리 아래를 씻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원하는 대로입니다.

못의 물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부드럽게 흐릅니다. 표면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물결로 가득합니다. 염불하는 자연스러운 소리, 문자지혜 법 소리, 문자지혜 승가 소리, 고요하고 조용한 소리, 공과 무아의 소리, 대자비의 소리, 바라밀 소리 등 수많은 아름다운 법 소리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법을 무엇이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근이 성숙해지며, 위없는 보리로부터 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물은 본질적으로 무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한 법과 바라밀에 대해 설합니다.

몸을 씻은 후, 어떤 이들은 연좌에 앉거나 땅에 앉아 경을 설하거나, 경을 읽거나, 경을 배우거나, 경을 받거나, 경을 듣거나, 경을 암송하거나, 도를 관하거나, 좌선하거나, 행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능력에 따라 우주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과를 아직 얻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수행의 인으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퇴전의 보살의 지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도 보살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은 이런 불가사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보배 못 바닥은 순전한 금모래가 깔려 있고 못 바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관경에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황금 모래에는 정말 다양한 색상의 금강석이 있습니다. 대아미타경(단순히 대경이라고도 함)은 각 못의 바닥에 실제로 모든 종류의 보석으로 된 모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못은 100개의 거대한 바다만큼 큼니다. 전륜성왕의 마차에 달린 바퀴는 직경이 1요자나입니다. 작은 요자나는 40마일, 중간 요자나는 60마일, 큰

요자나는 80마일입니다. 각각의 연은 지름이 80마일입니다. 그 못은 물처럼 보이지만 만지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물은 아주 향기롭습니다.

사방 못 가에는 층계가 있는데, 금.은.유리.파려 등의 보배로 이루어졌느니라. 못은 4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층계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 위에는 누각이 있으며, 그것은 금.은.유리.파려. 자거.진주.마노 등의 七보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못 사이와 꽃 위에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높은 궁전들이 있습니다. 이 궁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계단으로 승가가 거주하고 법을 설하는 정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의 법당은 일곱 가지 보석으로 장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육육천의 궁은 일곱 가지 보석으로 장엄되었고, 인간계보다 십만 배나 더 장엄합니다. 또한 보살들의 궁은 천궁보다 10만 배나 더 장엄합니다. 여기에도 같은 승수가 적용됩니다.

금은 네 가지 덕목으로 인해 가장 먼저 나열되었습니다.

1. 내구성이 있습니다. / 2.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 3. 색깔이 밝습니다. / 4. 비싸고 귀중합니다.

또한 보배 연못 가운데는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수없이 피었는데, 푸른꽃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른 꽃에서는 누른 광채가,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가, 흰 꽃에서는 하얀 광채가 나는데 네 가지 색깔의 연꽃은 사념처, 사정근, 그리고 사신족을 나타내는 빛을 발합니다.

발하는 네 가지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란색: 파란색 연꽃은 산트크리트어로 우발라優鉢羅라고 하는데 십주를 상징합니다.
2. 노란색: 구물두拘勿頭이고 십행을 상징합니다.
3. 빨간색: 발두마鉢頭摩이고 십회향을 나타냅니다.
4. 흰색: 분다리芬陀利이고 십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색은 사십위인덕四十位因德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과果로부터 나옵니다. 네 가지 색의 연꽃은 과의 감응한 바입니다.

관경에 이르길 서방극락정토에는 마차 바퀴 연꽃을 장엄하는 무한한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연꽃에는 칠보로 된 6억 개의 연꽃이 있습니다. 대경에 이르길 각각의 연꽃의 크기는 1 요자나에서 1000 요자나까지라고 합니다.

각 연꽃은 염불자의 쿵푸에 따라 크기가 다릅니다. 많이 염불할수록, 연꽃은 자신의 염불 능력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반면에 염불을 멈추면, 연꽃은 시들고 죽습니다. 임종 후 이 연꽃을 통해 왕생합니다. 그래서 연꽃을 부모로 삼아 정토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정한 탄생입니다. 연꽃이 피면 바로 아미타불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차바퀴는 아미타여래의 큰 힘을 의지하여 이 법이 시방에 퍼져 중생들을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도록 나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가지 색만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색은 무한합니다.

질문: 왜 4가지 색만 언급되었습니까?

답: 이 네 가지 색은 실제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방극락정토의 존재들은 아침하거나, 왜곡된 말을 사용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네 가지 종류의 열반을 성취할 수 있고 네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극히 미묘하여 향기롭고 청정하느니라.

이러한 특성은 연꽃의 네 가지 덕을 상징합니다.

"미묘함"은 모양이 아니라 질과 체를 반영합니다. 각각의 연꽃은 마음가짐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희귀함"은 장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장애없이 자재하다는 것은 중생의 염불 쿵푸를 반영합니다.

"향기"는 우리 세계의 향기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인지에서, 아미타불은 세 가지 무루의 학문, 즉 계정혜의 향기를 구축합니다. 이제 그의 수행의 과실에서 연꽃의 향기는 불가사의합니다.

"청정"은 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수하고 훌륭한 보리심을 반영합니다.

연꽃의 개념은 좀 특별합니다. 그것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벽이 있는 궁전과 달리 경계가 없고 지혜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서방극락정토는 종종 연꽃의 나라라고 합니다. '정토법문'은 흔히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염불회는 종종 연화회라고 합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을 종종 연꽃 도반이라고 합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모든 장엄은 아미타불의 위대한 서원과 수행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장엄은 아미타불의 공덕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성취: 앞에서 언급한 못, 계단, 궁전, 연꽃 등을 이루는 아미타불의 능력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수질, 못의 크기, 모양 등 보報의 다양한 경계를 지칭합니다.

아미타불의 32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과 나무나,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풍기면,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되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입니다. 그 후 아미타불은 아승지겁 동안 보살도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대경전에는 이르길 인지에서 아미타불이 세자재왕불 앞에서 21억 개의 불토를 정화시켰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은 위대한 서원을 세웠고 모든 심오한 수행을 성취했습니다. 중생은 그의 명호를 염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리 단계에서 모든 장엄은 일체 중생과 분리되지 않은 아미타불의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부처님은 청자의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극락의 땅을 묘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질문: 왜 서방의 부처님과 현자들은 꽃과 아름다움을 탐내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나요? 우리 나라의 성인과 현자들은 초가집에서 지냅니다. 그들은 궁전을 피하고, 작은 처소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골목길이나 빈민가에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덕을 존중하고 장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진정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겉모습에 감명 받지 않습니다.

답: 장엄은 아미타불 서원의 결실입니다. 장엄은 또한 수승하고 선한 이들의 정행에 대해 감응한 바입니다. 장엄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불가사의한 장엄들은 아미타불이 사용한 방편의 결과입니다. 이는 중생들이 자연적으로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을 동경하는 것에 상응합니다. 그리하여 서방극락정토를 만들어서 서방의 중생이 고통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발하고, 서원을 세우고, 염불하여 그의 국토에 왕생하고 수평적으로 삼사라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방편입니다.

먼저 욕망을 갖게 한 후에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게 합니다.

희원 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들고 배고프고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안전하고, 잘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곳에 대해 듣게 된다면, 크게 기뻐하며 기존에 있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생하면 해탈을 얻기 때문에 정토법문은 접인接引방편의 한 예입니다.

덕은 무루의 덕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장엄을 구족합니다. 부처님의 힘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아미타불은 중생에게 연을 만들어 서방정토를 장엄하고 그의 수행을 완성했습니다. 중생들은 이 연을 통해 정토를 장엄하고 예토를 싫어하며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업을 쌓고 자신과 다른 존재의 힘으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능: 아미타불이 유지합니다. / 소: 서방극락정토가 유지됩니다.

능: 아미타불의 덕이 장엄합니다. / 소: 서방극락정토가 장엄됩니다.

능: 아미타불이 장엄합니다. / 소: 서방극락정토가 장엄됩니다.

3가지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1. 기세간: 서방극락정토 / 2. 유정세간: 중생 / 3. 정각세간: 부처님

이 세가지 세계는 하나의 체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러 依正一如라고 합니다. 자와 타는 둘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이 중생입니다. 모든 타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경문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청아하게 울려퍼지고,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위에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천상의 만다라꽃이 비오듯이 흩날리고 있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언제나 새벽마다, 가지가지의 미묘한 꽃을 꽃바구니에 담아서, 다른 십만억 불국토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느니라. 그리고 바로 식전에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는 산책을 즐기느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와같은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강설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청아하게 울려퍼지고,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위에는 이 경은 서방극락정토의 5진의 수승한 경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음악(성), 땅(색), 꽃(색, 향), 음식(미), 꽃바구니 /산책(촉)입니다.) 정토의 먼지는 미세하지만, 사바 세계의 먼지는 거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먼지가 거칩니다. 마음이 미세할 때, 먼지는 그에 상응하여 미세합니다.

우리의 세계와 달리, 서방극락정토에서 음악은 항상 그치지 않고 연주됩니다. 천상의 음악이 허공을 채웁니다. 나무나 번에 매달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두 법을 설하는 교향곡으로 연주되어 듣는 이로 하여금 좋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음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천상의 음악은 부처와 성현들의 모임에 공양 올려집니다.
2. 자연의 음악은 인간이 관여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땅 위와 아래에 7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빛을 발하여 햇빛과 달빛이 필요없습니다. 사바세계와 달리 서방정토는 항상 밝아서 밤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천상의 만다라꽃이 비오듯이 흩날리고 있느니라 우리 사바 세계에는 남쪽에는 비가 오고 북쪽에는 눈이 옵니다. 정토에는 연꽃비가 내립니다. 땅에 꽃이 떨어지면 정기적으로 바람이 자동으로 불어 꽃이 깨끗이 치웁니다.

만다라화는 백화라고 번역됩니다. 보통 천인들이 꽃비를 내리는데 공양을 상징합니다. 만다라 꽃은 다른 국토에서는 보기 드문 천상의 꽃입니다. '꽃'은 모든

공양을 나타내는데, 이는 보현보살의 십무량행 중 하나인 광대한 보시 수행과 상응합니다.

법화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꽃에는 네 가지 덕이 있습니다.

1. 꽃이 정토를 장엄하는 것은 정토에서 선법이 몸을 장엄함을 상징합니다.
2. 연꽃이 피는 것은 일승법, 진법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3. 처음에는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원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과가 따릅니다. 이는 정토 왕생이 이전에 심은 인의 과임을 상징합니다.
4.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서,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기쁘고 안락합니다. 이는 덕업과 높은 명성이 시방에 걸쳐 멀리까지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꽃비가 내리는 이유입니다.

질문: 정토의 흰 꽃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답: 오직 흰 업만이 그곳에서 수행됩니다. 일승이 모든 법의 근원인 것과 같이 흰 색은 모든 색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언제나 새벽마다, 가지가지의 미묘한 꽃을 꽃바구니에 담아서, 다른 십만억 불국토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느니라. 모두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꽃바구니: 그들은 흰 꽃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를 공양합니다. 마하 만달라, 대백화 등입니다.

그들은 꽃을 공양하기 위해 다른 세계로 가서 그 세계의 부처들이 말하는 법을 듣습니다. 사바세계는 명성과 이익을 얻고 생계를 꾸리는데 너무 바쁩니다. 이와 반대로 서방정토의 존재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바라밀 실천에 바쁩니다.

네 종류의 연꽃은 다른 방향의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십만억: 이것은 사바세계에서 서방극락정토로 제도하는 불토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정토에서 우리는 석가모니불과 미륵불께 언제든지 공양을

올리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미타불의 신력으로 어디든지 공양을 올리러 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시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전에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는 산책을 즐기느니라. 이는 서방극락정토의 모든 주민들이 놀라운 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은 신족통이 있습니다. 공양을 올리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 가도 여전히 공양 시간에 맞추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미타여래의 23번째 서원에서 기이한 것으로, 모든 보살들이 그의 신력에 의지하여 한순간에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신통력이 있습니다.

1. 몸이 능히 도달합니다. 멀리 날아가거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떠다니고 먼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2. 몸이 작은 몸으로, 큰 몸으로, 하나 또는 많은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뜻대로 변화하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중생에게 감응하고 상응하기 위해 불가사의하게 화현할 수 있습니다. 서방정토를 떠나지 않고도 모든 방향의 국토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양을 올리러 먼 불토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서방정토와 다른 불토들은 서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 멸진정滅盡定을 일으키지 않지만 모든 묘의威儀를 드러냅니다. 이는 달이 동시에 많은 수면에 반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시방의 땅에서 빠르게 서방정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신통력으로 그들의 순수한 행동에 대한 감응입니다. 이는 또한 아미타불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에서, 이는 소리, 진塵, 겁이 장애 없이 시방의 삼보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사개무장애법계(事事皆無障礙法界)입니다. 서방극락정토의 체는 법계이며, 시방의 삼보를 포함합니다. 반대로, 시방의 삼보의 체는 단지 법계일 뿐이며, 따라서 서방극락정토의 정보와 의보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마치 샤크라의 진주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각각의 진주는 많은 진주를

포함합니다. 많은 진주들도 각각의 진주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와 많은 수가 장애하지 않고 서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실, 사바 세계에서 우리의 탁濁은 다소 깊고 무겁고, 우리의 사악한 업은 많은 장애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록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서방정토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극락의 땅에서는 공덕이 심오하여 비록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현인과 범부가 다르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면 생각만으로 저절로 음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양의 안락을 얻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테이블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은 자동적으로 그릇에 적당한 양이 담깁니다. 식후에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아미타불경에는 "공양시간에 금그릇, 은그릇, 온갖 귀한 그릇들에 각자 취향에 맞게 수백 가지의 맛으로 가득 차서 바라는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원하는 만큼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지만, 우리 세상만큼 애착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황금 종이 공양할 시간이 되면 저절로 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모입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먹어야 하나요? 실보장엄토에서 그들은 선열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화현정토에서, 그들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 음식에 의존합니다.

공양 후에 그들은 1.법당 / 2.아름다운 숲을 거닐거나 / 3.혹은 그저 오고 갑니다. 발로는 걷고 입으로는 경을 외웁니다.

공양 후에, 그들은 실제로 걷기 명상을 수행하는 것이지 단순히 걸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드러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숙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과 지혜를 똑같이 수행합니다. 사실, 그들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수행에 노력합니다.

이런 종류의 수행은 매우 안락합니다.

1. 대경전에 이르길 바람이 사방에서 꽃과 나무 사이에 저절로 불면서 500여 가지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꽃들의 향기는 온화한 바람에 의해 사방으로 퍼집니다. 심지어 금속의 성질도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2. 땅이 평평합니다. 산과 바다도 없습니다. 구덩이도, 계곡도, 어두운 곳도 없습니다.

3. 근이 진을 만나도 여전히 안락합니다.

4. 이런 안락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를 돕습니다.

질문: 서방 정토의 환경은 뛰어나고, 그 곳의 존재들은 무지를 끝냈고, 낮과 밤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답: 금색 종이 저절로 울리거나 옥색 종이 스스로 흔들리면서 동이 터오름을 알립니다. 일부 새들은 밤에 숲에서 휴식을 취합니다(즉, 그들은 밤을 나타내기 위해 노래를 멈춥니다). 보살들은 또한 시간과 어둠을 표현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와같은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천상의 음악과 꽃, 영적인 왕래, 음식과 걷기 명상 등 서방 정토의 모든 장엄과 화려함과 덕목들이 아미타불의 서원과 수행, 공덕에서 비롯된 장엄이라고 합니다.

경문

그리고 또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여러 빛깔의 기묘한 새들이 있는데, 백조와 공작과 앵무새.사리새.가릉빙가.공명새 등이 밤낮없이 항상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하느니라. 그 소리는 한결같이 설법 아님이 없으며 五근(根)과 五력(力)과 七보리. 八성도(聖道) 등 성불하는 가르침을 아뢰고 있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느니라.

강설

그리고 또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여러 빛깔의 기묘한 새들이 있는데, 백조와 공작과 앵무새.사리새.가릉빙가.공명새 등이 밤낮없이 항상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하느니라 여섯 가지 종류의 새만 언급이 되었지만 항상 모든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기쵸: 그들의 수승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묘妙: 그들은 법을 설합니다.

잡색雜色: 그들은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조白鶴는 순백색으로 정통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백조는 머리에 빨간 깃털이 있는 반면, 몸의 나머지 부분은 서리처럼 하얗습니다. 그들은 다른 새들과는 달리 매우 소리가 크고 우아하게 춤을 춥니다.

공작새孔雀들은 우아하고 연약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이 새들은 천성적으로 영적이고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녹색 왕관을 쓰고 있고 몸이 매우 화려합니다.

앵무새鸚鵡들도 또한 몸이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깃털은 에메랄드색이고 부리는 밝은 빨간색입니다. 깃털이 가벼워 날 수 있습니다. 혀는 얇고 길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리새舍利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쁩니다. 매우 멀리 그리고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매우 선율적입니다. 작고 잘생겼지만 꽤 영적입니다.

이 네가지 종류의 새는 사바 세계에 존재합니다.

가릉빈가는 "소리가 좋은 새"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부화하기도 전에 어떤 새보다 더 좋은 선율로 노래합니다. 그 소리는 인간과 천상의 모든 소리를 능가합니다. 오직 부처님의 소리만이 이보다 더 좋습니다. 그들의 몸은 매혹적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보는 것에 싫증 내지 않을 것입니다.

공명새(머리가 두 개인 새)는 한 몸에 머리가 두 개입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고 가볍게 납니다. 몸통은 새의 몸이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성욕에 심하게 빠져 있는 남편과 아내는 두 개의 다른 의식을 한 몸에 지니고 다시 태어납니다. 축생계가 없는 정토에서는 이런 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의 새들은 아미타불의 화신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두 종류의 새(가릉빈가와 머리가 두 개인 새)는 히말라야 산맥에 존재합니다.

이 새들은 항상 계속해서 소리를 냅니다. 정토의 존재들은 화신으로 태어나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새들도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음을 설명하겠습니다. 경전에는 다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한결같이 설법 아님이 없으며 오근(根)과 오력(力)과 七보리.八성도(聖道) 등 성불하는 가르침을 아뢰고 있느니라. 그 국토에서, 새들은 마치 교향곡처럼 끊임없이 조화롭게 노래합니다.

연창演暢: 막힘없이 유창하게 노래합니다.

37조도품은 7개의 범주로 이루어졌습니다.

1사념처 2사정근 3 사신력 4오근 5 오력 6칠각 7팔정도

대지논에 이르길 37조도품은 모든 법을 포함합니다. 그 안에는 한량없는 법이 있습니다.

열반경에 이르길 8정도를 관하면 불성을 보고 깨어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정토의 4관(4념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토의 존재들은 몸이 불결하거나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1.신관: 정토에서 육체는 궁극적으로 사바세계의 더러운 육체와 다르게 순수합니다.

2.수관: 수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이곳과 달리 정토의 존재들은 모두 불가사의한 안락을 누립니다.

3.상관: 그들의 정신은 생, 멸, 상을 떠나서 진실하고 실제적입니다.

4.법관: 정토에서 오온은 진정한 자아입니다. 법에 자아가 없는 이곳과는 다릅니다.

이 네 가지는 지혜를 체로 삼습니다.

오근(五根)

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능지能持: 나뭇가지와 잎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시들어 죽습니다.

2.능생能生: 성숙을 상징하는 꽃과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심: 특히 정통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도正道(모든 중생이 기본적으로 부처임을 믿고, 보리심을 발하고 불도를 향해 발전하는 것)와 조도助道(모든 선법을 수행하고 선인을 섬어서 수행을 돕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2.정진: 정도의 법을 수행하고 쉽없이 도를 돕습니다.

3.마음챙김: 다른 생각 없이 정도와 조도에 대한 법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4.선정: 산란함 없이 정도의 법과 조도에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5.지혜: 정도와 조도법에 대해 지혜가 분명히 비추고 분별합니다. 만익蕩益 대사는 이르길, "사성제를 관하고 지혜의 빛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고제를 관하고 체가 법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제를 관하고 체가 단지 반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도제는 해탈의 원인이며, 멸제는 해탈의 결실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뿌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체는 선修的 기초가 됩니다.

5근은 성숙하여 5력이 됩니다. 5근이 성숙하고, 모든 힘과 기능을 구축하면, 다른 법들에 의해 굴복하지 않고, 다른 법을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오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력: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부처의 작용을 한다고 깊이 믿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중생이 가지는 회의감을 무너뜨립니다. 신력이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삿된 가르침은 그들을 혼란시키고 전도되게 하지만 신력이 있으면 번뇌를 끊고 삿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정력: 온갖 육체적, 정신적 나태함을 극복하고, 육신의 견해에 매이지 않고, 용맹스럽게 일하고 고통을 참으며, 혼매하거나 침체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게으름을 타파하고 생사를 끝내는 위대한 출세간적인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3. 염력: 모든 삿된 생각(예: 공이나 유의 한 면만을 보는 것)들을 파괴하고, 정념에 머물고, 출세간적인 중도 정념을 성취하고, 모든 공덕을 념합니다.

4. 정력: 미혹하지 않은 마음을 얻고, 산란함을 극복하고, 삼매를 발합니다. 얕은 쿵푸는 사삼매에 들고, 깊은 쿵푸는 이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5. 지력: 지혜의 빛이 모든 혼란과 무지를 꿰뚫을 때, 무루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 오력의 체는 오근입니다. 이 력들은 쉽게 조복할 수 없습니다.

칠보리분은 칠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의 다섯 가지 지력이 굳건해지면 지혜가 발달하고 지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후에 깨어나고 이해합니다. 정위를 증득한 사람은 실지를 펼치고, 다음을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택법擇法: 오온법 가운데에 유루가 없는 정법과 사법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고 잘못된 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법은 무엇입니까? 오온을 자아로 잘못 받아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오온은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는 진실로 잘못 받아들입니다. 아상과 법상은 모두 거짓입니다. 무루 지혜와 상응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아와 법이 공하다는 진정한 이치는 무루의 지혜와 상응합니다.

2. 정진精進: '정精'은 섞이지 않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진進은 퇴보하지 않고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수행하면서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고, 생사를 초월하지 않는 무익한 고행을 하지 않으며, 진실한 법을 수행정진합니다. 정토 수행자들의 염불 수행은 염과 예찬에 기반합니다. 더러움을 버리고 청정을 택하며 괴로움을 떠나고 안락을 얻습니다.

3. 희희: 법을 수행하여 기쁨을 경험합니다. 참된 법을 충분히 오래도록 수행하면 감응을 얻습니다. 수행에서 얻는 안락은 허무주의, 항상함, 공 또는 유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삿된 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 염불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토 수행자들은 매우 기쁘게 가르침을 따라 염불합니다.

4. 제除: 견혹과 번뇌의 거친 의혹을 제거합니다. 견혹은 신견(身見), 변견(邊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계금취견(戒禁取見)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이사(利使)라고 합니다. 번뇌는 탐, 진, 치, 만, 의로 사혹(思惑)에 속합니다. 이들은 작용이 둔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둔사(鈍使)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열가지 사使들로 인해 중생들은 업을 짓고 보를 받아 윤회의 바퀴를 돌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명호만을 염하여 다른 모든 생각을 물리치면 우리는 육근을 모으고 순수한 생각이 계속 될 것입니다.

5. 사捨: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견혹과 사혹을 버리면, 우리는 경계가 거짓이고 꿈과 같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추구하지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토 수행자들은 마음을 부처에 지극하게 두고, 모든 연을 버리고, 이 사바세계를 혐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생각을 낼 수 있습니다.

6. 正定: 외도들은 무심정無心定을 성취할 수 있고, 육식六識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500겁의 수명으로 무상천無想天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첫 499겁 동안 그들은 단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겁이 다함에 따라 삼매의 힘을 잃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보를 비방하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상무무상삼매無想無無想三昧에 도달할 수 있고 8만 겁동안 천상의 안락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 역시 결국 떨어질 것입니다. 멸수상정滅受想定에 들지 못하면 생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정법만이 애정을 끝내고 견혹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토의 수행자들은 항상 명료한 상태에 머물고 모든 삼매가 거짓임을 깨닫기를 열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다양한 삼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염불이 깊고 견고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으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7. 념念: 정법을 수행하는 동안, 항상 삼매와 지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이는 걷는 두 다리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삼매의 힘이 지나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1) 태, 2) 정진, 3) 희의 처음 세 가지 보리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혜의 힘이 지나쳐 마음이 동요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다른 보리분 세 가지를 이용하여 마음의 동요를 억누르고 조화를 이루어 삼매와 지혜의 힘이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념입니다.

옛 선조들은 "부처가 있는 곳이면 머무르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이면 서둘러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有와 비유非有라는 두 가지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염을 하지만 염하지 않으며, 염하지 않지만 염합니다.

8정도: 팔정도는 올바릅니다. 여기서 "도"는 열반으로 인도함을 나타냅니다. 팔정도에는 8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정견見: 유루의 견해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눈이 분명하고, 그 원리가 올바르고 진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정사유思惟: 올바른 생각은 분별심보다는 출세간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올바른 생각은 무루의 마음과 일치하며 그 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생각과 연결되는 말과 언어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사성제에 대한) 각성, 이해, 평가를 시작하고, 관지觀智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혹을 끊고 진실을 증득하여 위대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정어語: 네가지 악한 구업을 짓지 않고 네가지 샷된 구업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네가지 샷된 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구식方口食: 사방의 권력에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2)유구식維口食: 만트라와 점술을 사용합니다. 3) 앙구식仰口食: 천체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4) 하구식下口食: 농사를 짓거나 의술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샷된 구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말, 경박한 말,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의 네 가지 악구를 범하지 않습니다.

4. 정업(業;신업): 청정한 브라만의 행동을 수행하여 마음이 삼독에서 벗어납니다. 능엄경에 이르길 "살생, 투도, 사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정명命: 악한 신구의 업이 없습니다. 출가자들의 샷된 삶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이상한 모습을 거짓으로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예: 오곡을 먹지 않거나, 못 위에 눕거나, 불 위를 걸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감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별한" 위업을 하는 것 등) 2) 자신의 공덕을 이야기하여 남을 꾀거나 속입니다. 3) 점괘: 점괘를 치고, 징조를 읽고, 예언을 하고, 길흉을 해석합니다. 4) 소리치고, 자랑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존경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합니다. 5)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공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익을 얻기 위한 샷된 수단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나 인정을 바라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야 합니다.

6. 정진精進: 나태함이나 지루함 없이 정통법을 수행합니다. 이는 무루의 지혜에 상응합니다.

7. 정정定, 삼매 : 항상 올바른 삼매에 있기 때문에 삿된 견해를 낳지 않습니다. 산란, 삿된 삼매, 유루의 삼매 등과 멀어집니다.

8. 정념念: 모든 망상을 물리치기 위해 무루의 지혜를 사용하고 일심으로 진여와 만가지 조행助行을 넘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섭법, 사무애, 육바라밀과 같은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 왜 경에는 념처念處, 정근正勤, 신족神足에 대해서는 열거하지 않습니까?

답: 서방 극락 정토에서 사관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신관(몸은 순수하고, 연꽃에서 화생으로 태어납니다.)과 2) 수관(서방극락정토에 고통은 없습니다.) 사바 세계와는 달리, 정토에서는 몸과 감정이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전에는 사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진은 악이 없음을 관하고, 악이 일어나는 것을 삼가며 이미 일어난 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락의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근기가 수승해서 악이 발생하지 않으며 악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전에는 정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족통은 외적인 경계를 구하고, 돌아다니기를 바라며, 쾌락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서방정토에서는 모든 것이 바램대로 되기 때문에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족 또한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토에는 새들 혹은 다른 방식에 의해 법이 전해집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섭법(四攝法)

1. 보시布施: 인연 없는 존재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먼저 보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애어愛語: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면 중생이 도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이행利行: 모든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합니다.

4. 동사同事: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중생과 함께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에 종사합니다.

육바라밀

1. 보시: 인색함과 탐욕을 치유합니다.

2. 지계: 악을 치유합니다.

3. 인욕: 화와 미움을 치유합니다.

4. 정진: 게으름을 치유합니다.

5. 선정: 산란함을 치유합니다.

6. 지혜: 어리석음을 치유합니다.

이 6가지가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불법의 약입니다.

'정토'에서 설명되는 또 다른 법은 '십력'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처비처지력은處非處智力: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인과와 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인과가 상응할 때 선행을 하고 좋은 보를 얻을 때 시처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인과가 상응하지 않을 때 나쁜 업을 짓지만 좋은 보를 기대할 때 비처가 일어납니다.

2. 업業지력: 부처님은 삼세 모든 중생의 업을 압니다.

3. 정定지력: 부처님은 세간 혹은 출세간 (소승과 대승)의 모든 삼매를 지닙니다.

4. 근根지력: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근(하근기, 상근기)을 알고 역량에 따라 적절하게 가르칩니다.

5. 욕欲지력: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욕망과 집착을 압니다.

6. 계界지력: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계를 압니다.

7. 지처至處지력: 부처님은 각 법문이 어디로 이끄는지 압니다.

8. 숙명宿命지력: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무한한 속생 동안 일어난 일을 압니다.

9. 천안天眼지력: 부처님은 중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10. 누진漏盡지력: 부처님은 더이상 생을 겪지 않습니다.

정토에서는 사무외無畏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1. 일체지무소외一切智無所畏: 모든 법을 철저히 알고 봅니다. 철저함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내면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는 것은 외적인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안과 밖을 모두 완전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2. 누진漏盡무소외: 모든 유루가 소진되면 오주는 구경입니다. 오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분단생사와 변단생사가 영원히 멈춥니다. 더 이상 유루가 없으니,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 설장도說障道무소외(미혹, 업, 고는 모두 장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장애에 대해 알고 이에 대해 언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무소외에 자재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4. 고진도苦盡道무소외: 이 무소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길(수행도)을 알고,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토는 오주지번뇌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주지번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일처주지(見一處住地): 도에 들어서면 삼계의 다양한 견혹(見惑)이 모두 한 곳에서 끊어집니다.

2. 욕애주지(欲愛住地): 여기에는 견과 무명을 제외한 욕계의 모든 번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번뇌는 바깥 오욕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바깥 오욕은 색, 향, 미, 촉, 법입니다.

3. 색애주지色愛住地는 견과 무명을 제외한, 색계의 모든 번뇌를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 바깥의 오욕은 버리지만 색신에 집착합니다.

4. 유애주지(有愛住地): 이것은 견과 무명을 제외한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색에 대한 탐을 여의지만, 여전히 나머지 육신의 번뇌에 집착합니다.

5. 무명주지(無明住地): 이 마지막 주지는 삼계의 모든 무명을 포함합니다. 무명은 마음을 어리석고 어둡게 하고, 그 체는 지혜와 밝음의 부재입니다. 무지는 모든 번뇌의 근본입니다.

유식종에서는 처음 네가지 주지의 미혹을 번뇌장의 씨앗으로, 다섯 번째 주지는 소지장의 씨앗으로 간주합니다.

천태종에서는 첫 번째 주지는 삼계의 견혹으로, 두 번째 주지부터 네 번째 주지는 삼계의 사혹으로 간주합니다. 이승 수행자는 처음 네 개의 주지를 끊고 삼계를 초월합니다. 다섯 번째 주지혹은 외계의 혹으로 이를 끊을 수 있다면 대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르침과 같이, 사정근(四正勤)은 경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정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악을 끊습니다.
2.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3.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은 일어나게 합니다. 특히 무루정도無漏正道를 지키고 보호하여 수행이 퇴보하지 않고 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악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미 일어난 선은 계발하여 자라게 하고 모든 악을 끊습니다.

정진은 정단正斷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여의족四如意足이 있습니다. 사여의족은 신력神力을 일으키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합니다.

1. 욕欲: 예를 들어, 서방극락정토를 찬탄하면 그 곳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진精進: 세 가지 불퇴는 정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3. 심/념心/念: 생각 생각에 보리의 서원과 수행을 엮합니다.
4. 사유/혜思惟/慧: 생각 생각에 부처님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 마음이 자재하고 점점 밝아집니다.

사여의족의 체는 삼매입니다. 왜냐하면 삼매는神通력의 수행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매력에 의지하면, 사람의 마음을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죽"이라는 한자는 이러한 력을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삼매력에 의지하면 영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생의 고통과 질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번뇌에 대응하기 위해 무한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가르침은 중생의 다양한 연과 잠재력에 따라 설해집니다.

37각지는 각각의 가르침의 기간마다 다릅니다. (천태종의 지자^智者 법사의 글에 근거합니다.)

1. 장교藏教 : 이 시기에는 소승의 삼장을 가르쳤습니다. 나머지 3교는 대승에 속합니다. 장교는 반자교半字教라고도 합니다. 소승은 사성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삼매는 이 사성제로부터 일어납니다. 고제는 생생, 주住, 멸滅의 삼상三相이 끊임없이 변화함을 나타냅니다. 집제는 탐진치와 네 가지 마음이 모두 변하고 움직임을 가르칩니다. 네 가지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단심肉團心 2) 연려심緣慮心 3) 집기심集起心: 8식으로 중자를 쌓아 현상과 행동이 일어나게 해서 집기심이라고 합니다. 4) 견실심堅實心: 도제는 변화와 침해에 대치합니다. 멸제는 멸滅과 유有가 무無로 돌아감을 나타냅니다.

2. 통교通教: 이 기간은 대승으로 들어가는 법문으로, 상근기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경전들은 무생의 사성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고제는 고통은 어떤 억압의 상도 없이 환상이나 변화라고 가르칩니다. 집제는 화합상이 없이 환화幻化와 같습니다. 하지만, 도제는 불이상不二相, 멸제는 무생상無生相이 있습니다.

3. 별교別教: 이 가르침은 보살만을 위한 것으로 이전의 통교 혹은 이후의 원교와는 별개입니다. 이 시기의 경전은 무량사제無量四諦를 가르칩니다. 고제苦諦는 10계과보十界果報가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량한 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제集諦도 오주번뇌五住煩惱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량한 상이 있습니다. 갠지스강 모래만큼 많은 불법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도제道諦'는 무량한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제滅諦'는 모든 바라밀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4. 원교圓教는 무작사제無作四諦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진여의 진상이며 어떠한 작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제苦諦는 오온이 근본적으로

여래장如來藏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끝낼 수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집제集諦' 번뇌가 즉 보리이고, 따라서 단절될 수 있는 집集은 없습니다. 도제는 극단과 샷됨이 모두 '중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멸제滅諦' 생사는 즉 열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득할 수 있는 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느니라.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고 모든 법을 설합니다. '서방극락정토'에서는 모든 소리가 법을 설합니다. 설법을 듣고 중생은 큰 이로움을 얻고 자연스럽게 삼보를 념합니다.

1. 아미타불은 자애롭고 (그는 모든 중생을 섭수하고자 합니다.)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의 묘덕으로 중생을 조복합니다.) 그래서 정토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부처님의 출현과 그의 덕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불념佛念입니다.

2. 법념法念: 법을 들으면 자연히 마음이 평화롭고 안락하며, 들은 것을 기억하고 더 듣고자 합니다.

3. 승념僧念: 선지식을 친근하고 수행에 대한 지침을 받으면 여러 중요 단계에 이를 때마다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승의 자애, 지도, 보호를 념합니다.

삼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경 받아야 합니다.

불보는 지덕이 완전합니다.

법보는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승보는 복전입니다.

삼보 주지住持:

불상은 금, 은, 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상은 조각하거나 주조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노란색으로 장엄하고, 두루마리에 정리하며, 삼장으로 분류합니다.

승가는 위엄있고, 청정하며,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삼보는 일체一體입니다. 그것은 자성에서 생겨납니다. 불보는 영각체성입니다靈覺體性. 그것은 완벽하고, 밝고, 널리 빛을 비춥니다.圓明照了
법보는 칭성공덕稱性功德을 구족합니다. 승보는 이와 지가 둘이

아닙니다理智不二. 화합하고 어김이 없습니다和合無違.(다투지 않고 가르침을 범하지 않습니다.)

일체一體는 자성의 삼보입니다. 성상性相은 일여一如이며(성과 상이 하나의 진여입니다.) 분리되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별이 없지만 분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둘이지만 둘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승가는 화합의 집단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승가는 다음의 여섯 가지 화합을 수행합니다.

1. 신身: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삽니다.
2. 어語: 입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습니다.
3. 의意: 뜻으로 화합해 함께 일을 합니다.
4. 계戒: 계율로 화합해 같이수행합니다.
5. 견見: 바른 견해로 화합하여 같이 해탈합니다.
6. 이利: 이익을 균등히 나눕니다.

질문: 많은 새들이 법을 설하고 정토의 존재들은 삼보만을 연합합니다. 모두 '일승법'을 설합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답: 새, 나무, 바람, 물은 모두 법을 설하며, 무진함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선을 구족한 삼보를 연합합니다.

경문

사리불아, 그대는 이 새들이 이 세상의 새들처럼 실제로 죄업의 과보로써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극락세계에는 지옥.아귀.축생 등의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그 불국토에는 삼악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찌하여 축생인 새가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러 새들은 모두가 아미타불께서 범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위신력이 변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강설

사리불아, 그대는 이 새들이 이 세상의 새들처럼 실제로 죄업의 과보로써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극락세계에는 지옥.아귀.축생 등의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아미타불의 첫 번째 서원으로 그의 불도에는 삼악도가 없습니다. 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는 이 새들이 보로써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극락의 땅에는 축생계가 없습니다. 사실, 아미타불의 열여섯 번째 서원에서 그의 정토 사람들은 삼악도의 이름조차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새의 이름조차 나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궁극적인 공덕을 상징하는 좋은 보입니다.

삼악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옥: 산스크리트 용어 나락가那落迦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통의 기구라는 뜻입니다.
2. 아귀: 두려움이 많고 오랫동안 굶주리며 매우 수척합니다.
3. 축생: 축생은 종종 인간들이 기릅니다. 또한, 그들은 업을 짓고 보를 받는 방생傍生이라고 불립니다.

질문: 왜 서방 극락 정토에는 악도가 없습니까?

답: 아미타불의 서원력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토의 존재들은 선업이 매우 깊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몸을 영원히 끝냈고 모두 과거에 지은 선업에 의해 천상의 복과 같은 복을 즐깁니다. 그들의 마음은 삼독에서 자유롭습니다. (탐: 아귀계에 떨어지는 주요 원인, 진: 지옥에 떨어지는 주요 원인, 치: 축생계에 떨어지는 주요 원인)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리불아, 그 불국토에는 삼악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삼악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어휘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삼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새들은 모두가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위신력이 변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사바세계에서, 오온은 업보에 속합니다. 서방 정토에서 오온은 선보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정토의 새들은 좋은 이름이지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삼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은 분노, 5바라이죄, 십악입니다.
2. 아귀계에 떨어지는 원인은 탐욕과 인색함, 질투입니다.
3.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어리석음과 어둠입니다.

삼악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악도에 떨어진 사람들은 벗어날 희망없이 수많은 고통의 겁을 겪습니다.

아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함께 먹이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문에서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음식을 찾는 즉시 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아귀는 대문으로 들어갔고 다른 아귀는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던 귀신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문 앞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아귀가 직장直腸 고름 두 방울을 발견했습니다. 아귀는 탐욕스럽게 그것을 먹었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문으로 돌아와서 바깥에 있던 아귀에게 물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바깥에 있던 아귀는 도시가 세 번 무너지고 세 번 재건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귀는 여러 해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일곱 구멍에서 피가 나왔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토의 새들은 사실단四悉檀을 나타냅니다.

1. 세간실단世間悉檀(중생이 안락과 이익을 얻도록 공통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중생들은 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새들을 만들었습니다.
2. 대치실단對治悉檀(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들은 법을 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시할 수 없습니다. 정토의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축생계로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악을 근절합니다.
3. 위인실단為人悉檀(일체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환경으로 청자들은 삼보를 넘하고 마음 속에 선이 일어납니다.
4.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일체 중생과 궁극적인 진리를 나눕니다.): 그들은 이치에 들어가는 이로움을 얻습니다. 그들은 아미타불과 하나가 됩니다.

경문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사늘한 미풍이 불어서 갖가지 보배 나무와 보배그물을 흔들면, 마치 백천 가지 음악이 일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느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참으로 이러한 해아릴 수 없는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사늘한 미풍이 불어서 갖가지 보배 나무와 보배그물을 흔들면, 마치 백천 가지 음악이 일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미풍은 촉진입니다. 미묘하고 거칠지 않으며 아미타불의 서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이 바람은 무수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중생의 번뇌에서 비롯된 무상과 치매의 바람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토의 바람은 순수하고 정직하며 단순하고 자애롭고 선한 마음의 수승한 보報입니다. 바람은 소란스럽지 않고 비는 토양을 부수지 않습니다. 정토에서 바람과 비는 모두 시기에 맞고 적절합니다.

보배 나무와 보배그물: 이들은 색진, 향진 그리고 미진들입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지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계정혜 등과 같은 법을 분명하게 설하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백천 가지 음악: 성진을 의미합니다.

위의 모든 것들이 심진心眞의 형태로 자취를 남깁니다. 이들은 모두 의보依報법으로, 정보正報법인 일체 중생과 다릅니다. 즉, 이들은 모두 아미타불의 세 가지 몸(법신, 보신, 화신)과 네 가지 덕(상락아정)의 체體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느니라.

무정과 유정은 모두 법을 말하여 우리가 삼보를 염하게끔 합니다. 무정이 어떻게 법을 설할 수 있을까요? 만법은 모두 법을 설하지만 우리는 단지 아직 듣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런 것이 아미타불의 정토에 사는 이익입니다. 나무와 보석으로 장식된 그물은 여러분을 산란하게 하는 대신, 여러분의 정념을 키우는 즐거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중생들은 너무 행복해서 밖으로는 삼보를 더욱 옹하고, 안으로는 삼보와 같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하나이고 같음을 깨닫고, 보리심을 발합니다!

정토의 존재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옹합니다.

1. 마음: 염불로써 마음을 묶습니다.
2. 가벼운 소리: 귀로 불명호를 듣습니다.
3. 보통 소리: 소리를 크게 내서 옹불합니다.

부처를 옹하면 열 가지 덕이 있습니다.

1. 졸음을 쫓습니다.
2. 천상의 마들이 두려워합니다.
3. 소리가 시방에 이릅니다.
4. 삼악도의 고통이 소멸됩니다.
5. 외부 소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6.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7. 용맹스럽게 정진합니다.
8. 제불이 환희합니다.
9. 삼매가 현전합니다.
10. 정토에 왕생합니다.

또한, 염불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마음으로는 염불하지만 입으로는 염불하지 않습니다.
2. 입으로는 염불하지만 마음으로는 염불하지 않습니다.
3. 마음과 입이 모두 염불합니다.
4. 마음도 입도 염불하지 않습니다.

1~3번으로는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단상경瑞相經에 이르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맑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보석으로 장식된 그물과 나무들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법성을 낸다고 합니다. 듣는 자는 진塵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삼매를 얻듯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참으로 이러한 해아릴 수 없는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믿음이 깊어지게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멋진 장엄들은 아미타불의 위대한 서원과 순수한 수행의 결과입니다. 아미타불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 땅에 현전한 것이고 반대로 모든 정토는 마음이 현전한 것입니다. 정토는 정심淨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진리, 공, 속, 중도를 관통하고 세 가지 지혜, 모든 지혜, 도의 지혜, 모든 모드의 지혜가 원융할 때, 큰 각성이 일어나고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생각 생각이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고 매 단계에 수월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한 수행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수행이 모든 사람의 수행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으며, 아미타불이 다른 것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가 하나이고 아미타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르길 서방극락정토는 중생을 돕는 연을 조성하고 진리를 깨닫는 두 가지 수행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수행의 공덕이 그 국토를 장엄합니다.

경문

사리불아, 그대 생각에 저 극락세계의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지를 아느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으니, 그러므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無量光佛) 곧 아미타불이라 하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그대 생각에 저 극락세계의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지를 아느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으니, 그러므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無量光佛) 곧 아미타불이라 하느니라.

이전 장에서는 수승한 의보와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보는 교주와 도반 모두를 가리킵니다.

질문: 극락 정토의 존재들은 분단생사 혹은 변역생사를 따릅니까?

답변: 태어난 정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실보정토에 태어났다면, 변역신變易身에 속합니다. 화정토에 태어났다면, 분단에 속합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 명호를 염할까요? 그것은 아미타불의 무한한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는 무한으로 번역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명호를 통해 무한한 공간(빛은 시방에 퍼집니다.)과 시간(수명은 삼세에 이어집니다.)을 나타냅니다. 빛은 고요하지만 항상 연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춥니다. 수명은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고, 연에 따르지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빛 속에 적寂이 있고, 적 속에 빛이 있습니다. 진법계의 전체가 그러한 것과 같이 공간과 시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은 단순히 중생의 본각리성本覺理性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염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시각始覺입니다. 염불되는 부처님 명호는 본각本覺입니다. 시각은 본각과 분리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과 본각은 둘이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응신의 빛은 부처님의 덕에 따라 가까이 또는 멀리까지(일 요자나 혹은, 십, 혹은 천, 혹은 한 세계, 혹은 십, 백, 천 세계) 비춥니다. 아미타불 응신의 빛은 어디서나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내는 빛과 달리 이것은 자연광입니다. 아미타불은 어디서나 중생들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빛은 막힘없이 모든 세상에 빛납니다!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내광內光: 지혜는 내면의 원리를 밝힙니다.

2. 외광外光: 이는 경전에 나타난 신광을 의미합니다. 아미타불의 몸은 금강체로, 장애가 없고 청정합니다. 그것은 모든 법계에서 나타납니다. 장수경에 이르길 그의 몸에는 무한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중생이 이 빛을 만나면, 세 가지 더러움이

근절됩니다. 삼악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빛을 만나면, 고통이 갑자기 멈추고, 생의 마지막에 그들은 해탈을 얻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만 빛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게다가, 만약 그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면, 왜 굳이 염불해야 할까요?

답: 어떤 사람들은 쿵푸가 성숙하거나 전생의 장애가 적어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해서 태양이 빛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심불란으로 그의 명호를 열 번 외우면 빛은 물론이고 아미타불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경문

또한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승지겁이니, 그러므로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無量壽佛) 곧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불아,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지는 이미 열 겁(+劫)의 세월이 지났느니라.

강설

또한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승지겁이니, 그러므로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무량수불, 無量壽佛) 곧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법신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보신의 수명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으며, 수행의 결과입니다. 화신의 수명은 부처님의 본래 서원과 중생의 인연에 따릅니다. 수명은 짧거나 길며, 수행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미타불의 서원 열세번째와 열다섯번째에서 그는 그의 수명이 무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방극락정토의 존재들 또한 똑같이 무한한 수명을 가질 것입니다.

심성心性은 비추지만 영원하고 고요하여 정토에서 수명은 무한합니다. 깨달은 심성의 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명 또한 무한합니다. 법장비구의 서원은 무한하며 따라서 그의 결실 또한 무한합니다.

아승지는 무량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미타불은 10겁 전에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서원 또한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그의 정토에 왕생해서 설법을 들으십시오.

아미타불의 수명은 무한하지만 결국 끝이 있어 한밤중에 정통 법은 사라집니다. 그 후, 관음보살이 조광공덕산왕여래普光功德山王如來라는 칭호로 불도를 이룹니다. 그의 정법 시대 또한 무한합니다. 그 후 선주공덕보왕여래善住功德寶王如來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 땅의 모든 중생은 한생에 등각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 근거로 인지에서 아미타불의 과거 서원과 수행을 나타내는 여덟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1. 과거에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 앞에서 법을 듣고 출가를 결심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장法藏비구였습니다. 그는 48가지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의 서원과 수행은 완성되었고, 그래서 그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2. 법화경에 이르길 지혜의 대통승여래大通智勝如來 시대에 16명의 왕자가 출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위없는 보리를 얻기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청정행을 수행했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정에 들어갔고 그들은 끊임없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불도에 도달했습니다. 아미타불은 아홉 번째 왕자였습니다.

이 예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도 정토 법문임을 보여줍니다.

3. 비화경悲華經에 이르길 과거 무한한 겁에 무쟁념無諍念이라고 하는 전륜성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장여래寶藏如來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때, 왕은 그가 불도를 이룰 때, 그의 나라는 모든 종류의 청정과 장엄을 갖출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보장여래는 왕에게 갠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겁을 지나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안락,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 극락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4. 대승방광총지경大乘方廣總持經에 이르길 무구염칭기왕여래無垢焰稱起王如來의 시대에 14억의 모든 경을 결집하고 지닌 정명淨命 비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중생의 욕망에 따라 법을 널리 설했습니다. 그는 아미타불의 전신입니다.

많은 출가자들은 정토법문이 단지 부처님 명호를 염하고, 소아미타불경과 48대 서원(무량수경에서 인용함)을 염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미타불을 본보기로 따르고, 또한 다른 교리를 연구하고 널리 설명해야 합니다.

5. 보겁경賢劫經에 이르길 변엄정운음후여래辯嚴淨雷音吼如來시대에 정복보중음淨福報衆音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보리심을 발하여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시켰습니다. 그가 지금의 아미타불입니다.

6. 현겁경(賢劫經)에 이르길 금룡결광불(金龍決光佛) 시대 때, 무한량보음행(無限量寶音行)이라 불리는 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전파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현재 아미타유스입니다. 불법의 흥포를 도우면 또한 왕생의 복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7.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에 이르길 공왕불空王佛 시대에 번뇌가 가득한 네 명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에게 부처님을 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념삼매를 얻었습니다. 아미타불은 이 비구들 중의 세 번째 비구였습니다.

번뇌가 가득하다"는 것은 성욕의 불이 타오름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스님들의 선례를 따라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8. 여환삼마지무량인법문경 如幻三摩地無量印法門經 에 이르길 사자유희금광여래 獅子遊戲金光如來 시대에 승위존중 勝威尊重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선을 수행했습니다. 그 왕은 이제 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과거 서원과 인지 수행의 짧은 목록입니다.

사리불아,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지는 이미 열 겁(+劫)의 세월이 지났느니라.

법신은 얻음이 없으므로 이 관점에서는 십겁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신과 화신은 모두 실현이 필요하므로 겁의 관점에서 논할 수 있습니다.

소겁은 한 번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합니다. 평균 수명이 100년마다 1년씩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번 증가한다는 것은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8만

4천년으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 감소한다는 것은 평균 수명이 84,000년에서 10년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100년 마다 1년씩 변화합니다. 중겁은 20개의 소겁입니다. 4개의 중겁은 하나의 대겁입니다.

아미타불은 원래 십대겁 전에 보리를 성취한 이래로 법을 설했습니다. 중생들이 부처님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아미타불은 무한한 수명을 서원하고 성취했습니다. 이는 그의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경문

사리불아, 저 아미타불에게는 무수히 많은 성문(聲聞)제자들이 있어서 모두 아라한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는데, 그 수는 산수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또한 여러 보살 대중들도 이와같이 많으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저 아미타불에게는 무수히 많은 성문(聲聞)제자들이 있어서 모두 아라한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는데, 그 수는 산수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또한 여러 보살 대중들도 이와같이 많으니라.

정토에는 수많은 아라한과 보살들이 있습니다. 정토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지식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미타불의 제자들이며, 그의 지도 아래서 과위를 얻었습니다.

서원 1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성문(聲聞)들의 수효가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의 성문과 연각(緣覺)들이 백천 겁 동안 세어서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의 아라한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라한들은 모두 보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불토에 왕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종시에 보리의 서원을 세우는 소승 수행자들은 그곳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타불은 그들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할 것입니다.

법을 들으면 그들이 관점과 생각의 미혹을 끊는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토는 또한 모든 단계의 보살들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보살들은 아라한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질문: 이승 수행자는 실보정토에 왕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라한이 화생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전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과위가 아닌 네 번째 단계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답: 무량수경에 이르길 아라한은 정토에 왕생하지 않습니다. 실보정토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경전에서는 간략히 단지 네 번째 실보정토 과위만을 언급하는데, 만약 우리가 정토의 네 번째 실보정토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나머지 세 과위를 얻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대아미타불경은 이러한 보살들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1. 그들의 지혜는 대해처럼 깊고 광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과 달리 보살은 지혜를 열기 위해 수행합니다.
2. 그들의 삼매는 수미산처럼 부동합니다. 그들의 수행의 기반은 삼매력입니다. 따라서 정통 불교는 삼매력의 수행과 개발을 강조합니다.
3. 그들의 지혜의 빛은 태양의 빛을 넘어서서 밝고 순수합니다. 지혜로써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비추어 어둠 속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올바르고 곧습니다.
4. 보살들의 청정법은 설산처럼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여기서 청정이란 욕망, 특히 성욕의 부재를 말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할까요? 지나친 욕망에서 기인합니다.
5. 보살은 땅처럼 평평하고 평등합니다. 그들은 악하고 선한 모든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들은 날뛰고 차별하는 마음을 멈추고 이분성을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더 큰 집, 더 멋진 차, 더 예쁜 부인 등)을 원하여 고통 받고 차별심으로 탐심은 커집니다.
6. 보살들은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물처럼 청정합니다. 더러움을 참을 수 없으므로 씻어 버립니다.

7. 보살들은 모든 번뇌의 연료를 태울 수 있는 불왕과 같습니다. 6번과 7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물은 외부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반면, 불은 내부의 불순물을 태웁니다. 마치 높은 온도에서 금을 제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의 단계에서 물과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선을 하거나 다리를 걸가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대중입니다.

8. 보살은 바람과 같아서 어떤 장애 없이 모든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바람은 형태가 없고 저항에 부딪힐 때까지 진정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람은 자연의 끊임없는 힘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세계는 풍륜에 의해 지탱됩니다.

9. 보살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공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자재합니다. 그들은 모든 환경에 적응합니다.

10. 보살은 연꽃처럼 청정하고 모든 더러움이 없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을 의미합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생겨나지만 진흙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더러움이 없는 선함에서 생겨납니다.

불교의 수행은 청정 수행입니다. 일단 청정해지면, 우리는 청정을 완성하기 위해 진흙 속으로 다시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11. 보살은 큰 수레와 같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널리 나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 안전하고 안락한 해안으로 중생을 나르는 거대한 배입니다.

"크다"는 것은 작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승은 나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소승은 작은 나를 나르고, 대승은 큰 나를 나를 수 있습니다. 작은 나란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큰 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유정의 무정들의 결합체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법신입니다.

게다가, 승은 보살들의 불가사의한 법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것은 중생을 안전한 곳으로 나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정들은 가르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날라야 합니다.

중생을 나르는 데 있어서 큰 법은 무엇입니까? '정토'입니다.

12. 보살은 법천둥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흔들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들의 법은 중생을 놀라게 하고 경외하게 할 수 있으며, 혼미와 꿈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무거운 손길이 필요한 것은 중생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3. 보살은 감로와 같은 존재로, 중생을 기르고 이롭게 합니다. 감로는 모든 중생을 달래고 영양을 공급하여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비는 각 개인이 그들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을 흡수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보살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14. 보살은 금강산과 같아서, 마와 외도들은 그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금강은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대승 수행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파괴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또한 그것을 파괴할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마와 외도들을 물리치고 제압하기 위해 금강산을 세우는 것에 비유됩니다.

15. 보살들은 모든 선들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브라흐마 천왕과 같습니다. 선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악은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도덕 규범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계법을 통해 불법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선은 십악을 삼가는 것입니다. 망어(妄語), 악구(惡口), 양설(兩舌), 기어(綺語) 입으로 범하는 4가지 악행, 몸으로 범하는 3가지 악행 (살생, 투도, 사음), 그리고 마음으로 범하는 3가지 악행 (탐, 진, 치)입니다.

브라흐마 천왕은 보석으로 장식한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살들은 경쟁하지 않고 대승과 서로의 수행과 덕을 장엄합니다.

질문: 부처님께서서는 비관적이고 어두운 것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가요? 왜 그는 선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를테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나요?

답: 좋은 질문입니다! 이상주의자들(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압니다.)의 관점에서 이는 합당합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접근 방식이 더 크고 더 나은 선을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선에 집중하고 사소한 잘못을 허용한다면, 여러분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는데 집중한다면 유혹에 저항하기 훨씬 어렵기 때문에 덕이 더 큼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낙담하기는 이릅니다. 제가 잘 알려진 불교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의미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고, 매우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모두에게는 자비심, 친절, 용기, 사심, 관대함, 보살핌 등이 있습니다. 부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히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점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부처가 될 것이고 본래의 선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점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궁극적으로 가장 최고의 선을 창출할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관적이고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16. 보살들은 어떤 중생에게나 그들을 드리우고 비를 피하는 쉼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수왕과 같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비 뿐만 아니라 분노와 증오의 뜨거운 열기를 잠재웁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안식을 드리우는 최고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대승의 수행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살 주위에는 벽이 많이 둘러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돕고자 하지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곳에서 그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부처이거나 화신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능력이나 영적인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탐욕이나 질투를 부추길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살 곁으로 가면 번뇌가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보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제가 선화 상인 밑에서 사미로 있었을 때, 절 안에서 보호와 보살핌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유혹에 더 노출되었고, 계율을 범하기가 쉬웠습니다. 어느 법납 있는 스님이 이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화상인은 밖에 나갈 때마다 그의 이름을 염하면 계율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보살은 우리 마음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보살은 우리를 보호하고 도울 것입니다.

17. 보살은 우담발라 꽃과 같습니다. 이 꽃은 매우 희귀하고 만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드물게 개화하고 몇 시간 동안만 꽃이 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살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순간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큰 인연이 필요합니다.

이 꽃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행을 상징합니다. 불상과 보살은 순수한 선이기 때문에 사람을 매우 끌어당기고 외모가 출중합니다.

18. 보살은 금시조와 같아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외도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새는 불가사의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엄청난 신력을 가진 용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외도들은 그들의 영적인 힘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들은 보살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19. 보살은 날아다니는 새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저장하거나 비축하지 않습니다. 가장 집착이 적고 의존도 적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가난한 스님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물뜨는 국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절에서 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는 목이 마르면 물뜨는 국자를 들고 물을 마시기 위해 강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십시오. 비록 여전히 물 뜨는 국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친구, 자동차, 집, 기타 등등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수도승보다 훨씬 더 미혹합니다.

질문: 물 뜨는 국자에 어떤 은유적인 의미가 있나요?

답변: 질문에서 학문적 성향이 드러납니다. 아닙니다. 이 스님은 물을 마시기 위해 물국자에 의지합니다. 이 외의 모든 습기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국자를 가지고 물을 마시러 강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국자에 대한 집착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을 강에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같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듯이 앞으로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 절에 가서 다시 가져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로 다시 갔습니다. 스승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자네의 견처는 어떠한가?" 이것은 선의 용어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해봐라."라는 뜻입니다. 또는 재가자의 용어로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나의 공양을 계속 받으니까?"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너무 가난해서 바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가지도 없어서 훨씬 더 가난합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여시여시"이는 당신도 이해했고 나도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선의 용어로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았음을 입증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단지 네 단어에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새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20. 보살은 무찌를 수 없는 소왕과 같습니다. 소왕은 천성적으로 강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왜 보살은 무적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결점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아무것도 그들을 다치게 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결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패배당하기 전에 능숙하게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적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은 무적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으로 무적이 되나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스승과 끊임없이 그들을 호념하는 시방의 부처님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선한 편에 속하고 부처님과 보살을 믿는다면 우리도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 보살들은 잘 제어하고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끼리 대왕과 같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힘이 있지만 성공적으로 그것을 억제합니다. 그들은 번뇌를 억제합니다. 코끼리를 가래로 견제하는 것처럼, 보살들은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계율을 지킵니다.

22. 보살은 두려움 없는 사자왕과 같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비할 수 없는 힘과 실력 때문입니다. 인지에서, 두려움 없음은 두려움 없음을 보시한 결과입니다.

23. 보살은 빈 허공처럼 넓습니다. 그들은 대자비와 평정을 갖춥니다. 빈 허공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빈 허공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몸은 제한적이지만, 마음은 무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자비와 평정을 수행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입니다. 대자비는 동체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불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와 적, 가족과 낯선 이를 분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자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사捨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질문: 자원에 제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자비심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해합니다. 물론, 대개 최대 100세 정도까지 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게다가 자산의 제약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됩니다.

특히 질문자는 가장 나쁜 요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질문자의 가장 큰 제약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함입니다.

질문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병입니다. 다들 결과에 너무 집중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은 정말로 "내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무한한 상태, 즉 대자비심을 갖추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라는 의미입니다.

성공을 기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몇가지 보살들의 특징입니다. 보살의 모든 특징을 말하자면 무수한 겁이 걸립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앞에서는 의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경에 이르길 아미타불은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보리를 얻으면, 내 빛이 무수한 세계를 비추고 어둡고 애매한 모든 곳이 밝아지리라. 내 빛을 감지하는 모든 신들, 인간들, 독이 있는 축생들과 곤충들은 자비롭고 선하여 내 나라로 왕생할 것이리라.' 또한, 그의 열세번째 대서원은 그의 수명이 1조 나유타 겁을 넘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수명이 한계가 있다면,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대경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만약 마하목건련과 같은 영적 힘을 가진 비구가 1조 나유타라고 가정했을 때 아미타불의 최초 법회에서 성문들의 수는 기껏해야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미타불은 또한 그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의 국토에 살고 있는 보살들은 신통력, 지혜, 달변, 상함과 종호種好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놀라운 정신을 가질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정토의 수승한 이점을 강조하고 서원을 세울 것을 권함

경문

사리불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다시 미혹되지 않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다음 생(生)에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一生補處)의 보살들도 한량없이 많아서 산수로는 능히 다할 수 없으며, 다만 무량 무수한 아승지로 비유할 뿐이니라.

강설

우리 사바 세계에는 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여래는 매우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법을 지니고 세상에 나타나 중생이 퇴보하고 낮은 계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음계를 지키면 축생계에 떨어지는 연을 피함으로써 축생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단 정토에 화생으로 태어나면, 퇴보하는 연이 없습니다. 정토에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성욕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 곳의 연들은 꾸준히 진전하고 보살도를 수행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 제자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명한 치과의사로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제자가 49재로 친구의 서방 정토 왕생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서방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정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딸의 꿈에 이를 연속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딸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그곳이 꽤 편안하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다시 미혹되지 않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다음 생(生)에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一生補處)의 보살들도 한량없이 많아서

아비발치: "퇴보하거나 되돌아가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정토의 존재들은 네 가지 종류의 불퇴를 모두 얻습니다.

1. 불퇴지: 그들은 현인의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단계로 퇴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수다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2. 불퇴행: 항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승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삼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3. 불퇴사: 생각 생각이 보살계에 들기 위해 그들은 중도에 마음을 둥니다. 그들은 공이나 유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는 깨달음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4. 보리를 구하는데 불퇴합니다. 그들은 부처가 됩니다.

그들은 보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퇴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과도 얻지 못한 범부와 같지 않습니다. 이승은 보살도를 수행하지 않지만 범부보다 더 높은 성취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은 '다른 생'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중생의 성성과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승은 아직 법신을 증득하지 않았습니다.

1. 사불퇴: 다른 생을 얻지 않습니다.
2. 행불퇴: 오직 도만을 봅니다.
3. 위불퇴: 그들은 범부가 아닙니다.

질문: 불퇴가 왜 중요합니까?

답변: 불퇴를 위한 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들은 크게 이롭습니다.

1. 병고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2.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경전과 법을 독송합니다.
4. 선한 일을 합니다.
5. 원칙에 부합하며, 모든 쟁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대부분 수행에서 퇴보합니다. 욕망과 외적 상태에 의해 잘못된 길로 이끌릴 때, 대부분은 퇴보하고 포기합니다.

십이론十疑論에서는 정토에서 불퇴를 얻는 다섯 가지 인연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아미타불의 대비원력입니다. 법장비구는 서원을 세우길 그가 부처가 될 적에, 그의 이름만 듣고도 삼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큰 배를 타고 광대한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익사하지 않습니다.
2. 아미타불의 빛이 끊임없이 비추어 보리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게 합니다. 달빛이 어둠을 밝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듯이, 아미타불의 빛이 우리 안에 모여 선이 증장합니다.
3. 물, 새, 나무, 숲, 바람은 항상 법을 설하고, 청자는 삼보를 념하고 불퇴합니다. 미혹한 사람이 종소리를 들으면 정념을 갖습니다.

4. 많은 보살들이 수행 도반입니다. 밖에는 마나 샷된 도반이 없습니다. 안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불퇴를 연습니다. 수승하고 선한 사람만이 모여서 수행하는 환경의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 그들의 수명은 부처님처럼 무한 겁입니다. 상당한 성취를 이루고 현인의 지위를 증득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아주 먼 길을 따라 마침내 보물산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바 세계에서는 태어날 때마다 미혹합니다. 이와 반대로, 서방 극락 정도에서는 화생으로 연꽃에서 태어나 망상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 퇴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생에 정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퇴보하지 않고 모두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忍은 마음을 편안하고 자재롭게 합니다. 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음향인音響忍: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는 법을 듣고 깨어나는 십신十信에 속합니다.

2. 유순인柔順忍: 참된 원칙에 따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관력觀力에 의존합니다. 이는 삼현三賢이 그들의 미혹의 보를 조복하고, 육진이 생하는 것을 막는 것을 포함합니다.

3. 무생법인無生法忍: 참된 이치를 이해합니다. 이는 제7지보살 또는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모든 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진정한 상을 깨닫습니다.

화엄경에 따르면, 세가지 종류의 인욕이 있습니다.

1.해를 견디어야 합니다. 특히 사악한 사람들에 의한 해침을 견딥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화롭게" 견디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2.평화롭게 고통을 견딥니다. 첫 번째 유형의 인은 외부의 요소를 견딥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적개심을 더할 뿐, 그 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인은 내면의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병, 재난, 혹은 다른 여러 사건들이 내면의 번뇌를 유발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압박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길이 없습니다. 내적 압력은 폭발할 때까지 축적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법인: 모든 법이 거짓이고,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됨을 이해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인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인을 갖추면, 다음은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출가 프로그램에서 이 세 번째 유형의 인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인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진실한 수행자와 악한 수행자는 섞여 있습니다. 악한 수행자들을 통해 참된 수행자들은 인의 시험을 견뎌냅니다.

질문: 어떻게 법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답: 어떤 사람은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소유하되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말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값비싼 손목시계를 산 후 그것을 즐길 뿐 집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 집착이 없는지 시험하는 것은 과연 그것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진정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 힘든 것이 적어도 10,000개는 된다고 합니다. 계속 주다보면 결국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법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신론起信論에 이르길 서방극락정토에서 왕성한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고 결국 불퇴지를 얻는 반면, 사바 세계의 대부분 수행자들은 퇴보하는 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격언에 이르길 도가 1척이면, 마는 1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는 종종 우리를 괴롭혀 우리가 포기하거나 물러나게 합니다.

오늘 불철 법문에 처음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왜 대개 청법의식으로 법문을 시작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는 대승불교를 미국에 들여온 위대한 스승 선화상인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절에는 이러한 청법의식이 없습니다.

사실, 청법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사바세계를 관한 후 사람들이 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안 브라흐마천왕은 즉시 샤크라와 함께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 불법을 가르칠 것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청법의식을 행했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불도를 가르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끝내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을 요청해 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질문: 부처님께서서는 지혜가 무한한데 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기로 결심한 후 마음을 바꿨습니까?

대답: 부처님은 자신이 이해한 것을 중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 우리의 아상이 방해가 됩니다. 불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인 자아를 없애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아가 위협을 느낀다면 가르침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설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의 자아는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에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 우리 작은 도량이 빛난다고 하고, 석양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는 명상을 가르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속적인 법입니다. 불법은 진실을 말하여 종종 당신의 자아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절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작은 절에 계속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너무 불쾌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2. 부처님이 보고 이해한 것은 말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법을 설해달라는 천왕의 지극한 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어서 질문하길 인내를 갖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처님의 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부처님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부처님과 같은 시각과 이해를 얻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답: 불법은 이치와 지침입니다. 이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보살님과 조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진정 보기 위해서는 지침을 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불교는 불명호, 만트라, 경전, 선과 다른 무수한 행에 대한 것입니다.

산수로는 능히 다할 수 없으며, 다만 무량 무수한 아승지로 비유할 뿐이니라.

우리의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 그가 법화회에서 미륵불에게 말했듯이, 그의 휘하에서 소송과 대승법의 수많은 과위를 이룬 중생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모두 불퇴지를 얻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문의 원문을 첨부하겠습니다.

아미타불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미타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였을까요!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힘 덕분에, 오악이나 십악을 저지른 중생들도 올바른 조건하에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악행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다섯 가지 죄악은 1) 부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2)아라한을 죽이는 것, 3)아버지를 죽이는 것, 4)어머니를 죽이는 것, 5)승가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미타불의 이름을 진심으로 열 번 염할 수 있다면, 8억 겁의 생사 동안 지은 죄가 소멸하고, 자신의 업보를 가지고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만큼 큰 금빛 연꽃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단 한 생각에 왕생할 것입니다. 비록 낮은 품에 왕생하더라도, 여전히 세가지 불퇴지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서방극락정토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으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고 이에 대해 스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큰 바위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큰 바위를 배에 싣는다면 여전히 가라앉을까요?" 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미타불의 위대한 서원력에 의지하면 고통의 바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들도 또한 부처님 명호를 염함으로써, 옛 업을 지니고 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을 알게 된 후 지은 새로운 업은 항상 지니지 않습니다. 정토 수행자는 한편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잘못을 범하면, 임종시에 장애가 생겨서 정토의 왕생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잘못을 범한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왕생의 품은 염불력에 비례합니다.

정토의 조사인 영명수 선사永明壽禪師는 이르길 "선과 달리 정토법은 만 명이 수행하면 만명이 왕생합니다. 속히 서원을 세우면 왕생할 것입니다. 만약 수행하지 않으면, 정토에 왕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질문: 왜 선 수행자는 염불을 하지 않습니까?

답변: 어째서 선 수행자들은 일생 동안 선 수행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염불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묻고자 했던건가요?

저는 질문자가 언급하는 그 선 수행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 견해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스승의 잘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승의 역할은 제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해탈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각자의 근기에 맞게 적절한 법문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은 상근기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와 같은 둔근기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속히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생에 깨닫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상근기의 정토 수행자들에게 정토만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에 선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어째서 선을 성취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생사를 끝내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 자동차, 집, 보석, 개, 아이들, 아내 등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집착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나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황제 직속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모든 예술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황제는 그를 매우 좋아했고 그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의 성직자로 임명했고 그에게 부와 명예를 수여했습니다. 황제는 그의 첫번째 후궁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젊은 성직자도 그녀의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황제의 여자입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질 정도로 그녀를 오래 쳐다보면 안 됩니다!

궁정에 있는 젊은 성직자의 반대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재빨리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젊은 성직자를 불러 그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말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수행원들에게 명해 젊은이를 끌고 가서 이 과심한 행동에 대해 머리를 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황제는 성직자의 정직함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나는 자네와 그녀가 7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

젊은 성직자는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알고 보니 황제가 가장 좋아하는 후궁도 그 청년의 열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달아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는 부나 왕국보다 그가 은밀히 소중히 여기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성직자는 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매우 우울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의 보좌관들은 놀라서 지락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머무는 궁전 근처에 박람회 열었습니다. 황제는 우연히 창문 너머로 한 공연자가 면도칼을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매우 놀랍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총리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성직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하길 "네, 폐하.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황제는 그 어려움의 정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장 아끼는 물건을 주는 것 외에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성직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답으로 황제의 마음은 치유되었습니다.

정토의 모든 존재는 단 한 생에 불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화엄경 경전 39품 "입법계품"에 나와 있습니다. 선재동자는 근본지根本智를 배우기 위해 문수보살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52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차별지差別智를 배웠습니다. 가장 마지막 선지식은 보현보살이었습니다. 보현보살은 선재동자에게 한생에 불과를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서방극락정토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열가지 무한한 행으로 공덕을 쌓고 이를 모두 정토 왕생을 위해 회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미타경에서는 정토의 경이로움과 그곳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중생들이 얻는 이로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중생들이 믿음을 발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서는 그곳에 왕생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라고 권합니다.

질문: 많은 보살 마하살이 불도에 가까이 있는데 왜 다음 부처님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만 거론하고 다른 보살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답: 법계에는 무한한 불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면 부처님의 승계자는 무한히 많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방정토뿐만 아니라 다른 불토도 담당합니다. 승계자가 두 명만 되어도, 우리는 그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경문

사리불아, 극락세계의 거룩한 장엄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극락세계에서, 가장 선량한 이들과 한 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리불아, 적은 선근과 하찮은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극락세계의 거룩한 장엄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서원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행력은 부처님의 공덕을 깊이 믿는 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부처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의 서원력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사실, 아미타불의 서원력 덕분에 서방극락정토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깊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과 서원은 서방정토를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신심과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수행을 해도 왕생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서원이 굳건하다면 일심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열 번 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처님 명호만 지니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염불 수행은 우리를 보호하는 금속의 벽과 같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삼매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임종시에 우리의 모든 근은 분해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권속 권력과 영향력, 코끼리, 말, 그리고 희귀한 보석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서원의 왕만이 남아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질문: 서원의 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직 왕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거듭 왕생의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서원에 대해 조금 더 진실해야 합니다. 매순간 더 진심으로 서원을 세웁니다. 결국 충분히 오래도록 서원을 세우면 그것은 서원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왕생의 서원을 세웁니다.

행운을 빕니다!

심지어 시방의 등각보살도 서방에 왕생하는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왕생에 대해 지은 짧은 게송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모든 고통을 끊고, 아미타불을 뵈고, 평화와 안락의 불토에 왕생할 것을 서원합니다." 속히 서원을 세우세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극락세계에서, 가장 선량한 이들과 한 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리불아, 적은 선근과 하찮은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가장 선량한 이들: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다른 등각보살처럼 그 땅에서는 범부와 성인들이 모두 모여 함께 수행합니다.

이 법문을 듣고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바램을 갖는다면 큰 복이 있습니다. 서원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직 세울 수 없다면, 계속해서 복을 쌓으세요. 복이 충분히 쌓았을 때, 서원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상근기의 사람은 선한 가운데 선한 사람입니다. 대논에서는 다섯 가지 유형의 보리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1. 발심보리 發心菩提: 특히, 무수한 생사의 바다에서 대보리심을 발합니다.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지니고 큰 깨달음을 일으킵니다.
2. 복심보리 伏心菩提: 모든 번뇌를 끊음으로써, 마음을 조복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염함으로써 올바른 마음가짐이 드러나고 번뇌는 저절로 소멸됩니다.
3. 명심보리 明心菩提: 모든 법은 일심 밖에 있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이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지니면 진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출도보리 出到菩提: 삼계를 넘어서 부처님의 과를 얻는 무생인을 얻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지니면, 생사를 수평으로 초월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삼인을 열 수 있습니다.
5. 무상보리 無上菩提: 위대한 보리만다에 앉아 최정각을 증득합니다. 부처님 명호를 지니면 불퇴지를 얻고 바로 불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승한 안락은 안락 가운데 안락입니다. '아미타불'은 만 가지 덕을 구족합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전도되지 않을 때까지 부처님 명호를 외우세요. 일심불란으로 부처님 염불 삼매에 도달할 때 자연스럽게 육바라밀을 성취합니다.

1. 질투와 탐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는 보시바라밀입니다.

2. 모든 악이 없습니다. 이는 지계바라밀입니다.
3. 화 혹은 분노가 없습니다. 이는 인내바라밀입니다.
4. 게으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정진바라밀입니다.
5.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삼매 바라밀입니다.
6. 어리석음과 어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는 지혜바라밀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길 보살은 보시를 수행하면서 상에 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안락과 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안락 가운데 안락일 뿐입니다.

서방 극락정토에서 우리는 연꽃에 화생하여 태어납니다. 친척도 가족도 없고 법문의 권속만 있을 뿐입니다. 아미타불은 생사를 줄이고 도를 늘리도록 도와줍니다. 사바의 권속은 도움이 되든 방해를 하든 모두 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당신은 내가 삼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밧줄로 나를 묶는 부드러운 적입니다. 사악한 친구, 사악한 관리, 사악한 도둑, 사악한 권속들과 같은 우리의 채권자들은 강력하거나 단단한 적입니다. 이 강력한 적들은 우리의 도업을 방해하며 우리가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들을 꿈, 환상, 거품 또는 환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시당하거나 비방을 받는 것과 같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입니다. 악도로 떨어지고 경시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인내하면 이전의 잘못은 소멸되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보는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정토에 왕생하기 전에 그러한 보를 관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부처님의 명호를 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외울 수 있다면, 마나 괴물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질문: 미륵불의 천궁도 매우 안락하고 훌륭한 수행도반으로 가득한데, 왜 중생들에게 먼 서방 극락 정토에 가라고 권합니까?

답: 도솔천 내원은 인간의 영역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하지만, 서방정토와 비교하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토에는 10가지 장점이 있고, 도솔천궁에는 10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방 정토의 10가지 장점입니다.

1. 아미타불이 주불입니다.
2. 수명이 길고 무한합니다.
3. 정토는 사바세계와 달리 계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바세계는 삼계에 의해 제한됩니다.
4. 탐욕이 없습니다. 번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5. 여자도 아이도 없습니다.
6. 수행에 불퇴합니다.
7. 오염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청정합니다.
8. 매우 장엄합니다.
9. 부처님을 념하면, 부처님은 우리를 불토에 데려갑니다.
10. 부처님의 명호를 열 번 염하면 왕생이 보장됩니다.

미륵부처님의 천궁에는 열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1. 땅은 제한적입니다.
2. 수명은 정토의 수명보다 훨씬 짧습니다.
3. 여전히 삼계의 일부로 계의 경계가 있습니다.
4. 욕망이 있는 천국입니다.
5. 남녀 모두 동거합니다.
6. 수행은 퇴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7. 오염되었습니다.
8. 확실히 정토만큼 장엄하지 않습니다.
9. 아미타불의 서원력이 아닌 선한 생각으로 유정들은 모입니다.
10. 수행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백정이 임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죽인 모든 소들이 자기에게 대가를 요구하러 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내는 몇몇 스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업의 빛이 너무 무거워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는 것만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불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계속 염불을 했고, 아내에게 아미타불에게 올릴 향을 부탁했습니다. 곧, 그는 "아미타불이 왔어."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복이 충분하여 말년에 정토 법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왕생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 중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왕생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평생토록 잘못을 저지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후 그는 잘못에 대한 벌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왼손에 향로를 오른손에 향을 들고 서쪽을 바라보며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했습니다. 열 번의 염불을 마치 마지기 전에 그는 부처님께서 보좌에 이르렀다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마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생의 복으로 현생에서 '선지식'을 만나 믿음을 발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본격적으로 염불하여 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경에는 또한 보리 서원, 특히 네 가지 위대한 서원이 왕생에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네 가지 위대한 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생은 무한합니다. 중생을 제도할 것을 서원합니다.
- 2) 번뇌는 무진합니다. 번뇌를 끊을 것을 서원합니다.
- 3) 법문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법을 배울 것을 서원합니다.
- 4) 불도는 위가 없습니다. 불도를 이루겠다고 서원합니다.

왕생을 서원한 후에는 부처님 명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불을 할 때마다 모든 종류의 망상이 사라집니다.

질문: 선 수행자는 부처님 명호를 염불하지도 않고 왕생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복이 부족한 것인가요?

대답: 그런 사람들은 이해와 지식은 뛰어날지라도 이 생애 생사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왕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들의 큰 복으로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해탈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복으로 훗날

부와 권력과 궁극적이 않은 욕망에 탐닉할 것입니다. 영명 조사永明壽祖에 의하면 정토법문의 수행없이 선만 수행하는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길을 잘못 든다고 합니다. 음의 경계가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수행을 선택하세요!

질문: 부처님의 명호를 열 번 외우면 왕생한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근기와 복덕이 없는 사람은 그 국토에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대답: 죽을 때 그의 이름을 열 번 염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에 시도했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윤회의 바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를 더 잘하십시오: 지체 없이 그의 명호를 염불하고 왕생 가능성을 높이세요.

질문: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선근과 복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경전을 인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두 가지 참고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1. 대자경大悲經에 이르길 부처님 명호를 한 번 염하면 선근이 끊어지고 대열반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칭양제불공덕경稱揚諸佛功德經에 이르길 무량수불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수지독송하고 마음에 지니는 사람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삼악도를 여월 것입니다. 임종시에, 그들은 불토에 왕생할 것입니다.

수행의 길을 보이기 위해 염불의 이점을 드러냄

경문

사리불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니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 동안을 두고 일심분란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면, 그 사람이 수명이 다할 때, 아미타불과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그래서 그는 끝내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니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 동안을 두고 일심분란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면, 그 사람이 수명이 다할 때, 아미타불과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그래서 그는 끝내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앞 장에서 왕생의 서원을 세우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염불의 시작을 권합니다. 이는 마치 여행을 시작할 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은 다섯 가지 계율을 지니고 십선행을 행합니다. 그들은 승가의 일을 돕기 위해 승가 곁으로 다가갑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인식에 대해 칭명경관중생품淨名經觀衆生品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리불이 문수보살을 따라 유마거사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마거사의 방에서 꽃을 흩뿌리고 있는 한 천녀에게 "왜 당신은 여성의 몸을 바꾸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여성의 상을 구하였지만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마술사가 환상의 여자를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그녀에게 '왜 여자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남자의 질문은 맞습니까?" 사리불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은 고정된 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그 천녀가 가로되 모든 법은 이러하니 고정된 상이 없습니다. 왜 아직도 여성의 몸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 물으십니까?" 그러자 천녀는 신력을 이용해 사리불을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고, 그녀 자신은 사리불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여성의 몸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천녀의 모습을 한 사리불은 "내가 어떻게 여자 몸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천녀가 이르길, "사리불이여, 만약 이 여성의 몸이 바뀔 수 있다면, 모든 여성의 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여, 당신이 여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여성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법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선근이 있습니다. 선근은 우리를 보리의 길로 이끕니다. 보리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시, 지계, 복덕의 수행과 같은 법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길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을 돕는 그러한 길은 보리의 씨앗이 성숙해지게 합니다.

이승은 선한 보리의 뿌리가 없습니다. 신과 인간은 유루의 복을 짓습니다. 복덕이 적은 사람들은 비록 바라밀을 수행하지만, 인간과 천상의 복과 안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을 꿰뚫지 않았고, 아직 무루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기가 없는 사람들은 정토에 왕생할 수 없습니다.

복 중의 복은 만덕을 구족한 부처님의 명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육도사생(자궁, 난생, 습생, 화생)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많은 겁 동안 선근을 쌓았습니다. 근기가 없으면, 부처님 명호를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재세시에 수도 스라바스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도에는 9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1/3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들었습니다.

1/3은 부처님의 명호를 들었지만 친견하지 못했습니다.

1/3은 부처님에 대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설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아무도 우리를 위해 불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고통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는 왕생을 하기 위한 인연으로 믿음, 서원, 수행의 세 가지 필수 조건이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서원과 수행력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은 왕생을 서원하고 그의 명호를 염합니다. 그의 명호를 반복해서 염하여 위없는 복덕을 짓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일심불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복덕을 얻고, 임종 시에 부처님과 성현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자 지혜는 듣고 믿음을 가지며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관조 지혜는 생각생각마다 끊이지 않고 부처님을 념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 동안 일심분란으로: 상근기의 사람은 하루 만에 염불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둔근기의 사람들은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 7일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근기는 그 중간입니다.

염불 삼매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원하는 법들은 경전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대경에 따르면 재가자들은 채식을 하고 열흘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으며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도에 왕생합니다.

지음성왕경鼓音聲王經에도 10일 동안의 수행에 대해 언급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받들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열흘 밤낮 동안 부처님의 명호를 잊지 않고 산란함을 없앤다면, 아미타불을 반드시 친견할 것입니다.

대집경大集經에는 49일 동안의 수행에 대해 언급합니다. 49일 동안 앉거나 서거나 간에 부처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염하고 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면, 이 생에 왕생할 것입니다.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에는 90일간의 수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90일 동안 서거나 앉아서 (반은 서고 반은 앉아) 내내 열심히 염하면 삼매에 들어가 아미타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에도 90일간의 수행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90일 동안 서쪽을 바라보며 똑바로 앉아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한다면, 쿵푸가 깊어지며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즉 하루 동안 염하거나 일심으로 열 번 염하거나 간에 부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쿵푸가 충분히 깊어야 합니다.

대경에 이르길 법장 비구가 단 하루만이라도 끊이지 않고 일심으로 그의 이름을 염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그의 국토에 왕생할 것이다라고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재가자들은, 똑바로 앉아 서쪽을 바라보고, 매일 아침과 밤에 열 번 그의 명호를 외운다면, 그들 역시 왕생할 것입니다.

오랫 동안 혹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일심이 될 수 있다면, 서방극락정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염불법입니다.

또한,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에 이르길 염불삼매를 성취하는데에는 다섯 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1. 계를 범하지 않고 지킵니다.
2.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3. 아첨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습니다.
4. 화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5. 용맹정진합니다.

이 염불 삼매는 일심불란이라고도 합니다. 일심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둘 혹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일심으로 부처님의 명호에 집중합니다.

마음은 섞이거나 산란하지 않습니다.

입과 마음이 모두 염불합니다.

산란하지 않으면 일심이라고 합니다.

불란은 망상이 없고 삼매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부처님의 명호를 어떻게 염해야 이로움을 크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답: 절대적인 단호한 결심으로 염불합니다.

질문: 단호한 결심이란 무엇일까요?

답변: 그저 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해보면 이해할 것입니다. 그건 묘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마음은 근본적으로 민첩하고, 마법적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단호한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명성, 돈 등에 연연하지 말고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데 집중하세요. 옛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망상을 사형에 처하고 법신을 위해 생명을 구하라." 예를 들어, 도둑질을 그치면 도둑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죽었다면 누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고 있을까요?

염불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사지事持: 정토법을 듣고 의심 없이 깊은 믿음을 발합니다. 행주좌와에 생각 생각마다 일심으로 분명하게 염불합니다. 부처님 명호 외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한 생각이지만, 아직 이理를 꿰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면 모든 번뇌를 끊고 견혹과 사혹을 없앱니다. 그런 다음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정토(범성동거토와 유여방편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현상 염불은 네 가지 완전한 보시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깊은 믿음을 발하고 왕생을 서원합니다. 그런 후 수행을 하고 안락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이로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선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은 선의 이로움입니다. 또한 혼탁함에 대한 혐嫌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악을 파괴하는 이로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치 안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오한 이치에 들어가는 이로움입니다.

2.이지理持: 위와 같이, 공에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으로 염불합니다. 그러면 염불하는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외에 염불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과 부처는 하나이고 동체입니다. 염불을 하지만 염불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염불을 하지 않지만 염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치를 꿰뚫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유와 공의 두 극단에 의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성을 볼 때까지 계속 염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실보무장애토와 상적광정토입니다.

사事염불을 달성한 후 이理염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발신논에 따르면, 염불은 세 가지 마음으로 구성됩니다.

1.직심直心: 미혹함 없이 진여에 올바르게 마음을 두고, 유념(부처가 있으면 거기 주하지 않습니다.)이나 무념(부처가 없으면 재빨리 지나갑니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 혹은 무유에 집착하지 않고 중도에 머무릅니다.

2.심심深心: 모든 선법을 쌓고 육바라밀과 만법의 수행을 즐깁니다. 이러한 마음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모든 선 중에서 마음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마음속에 지니면 다른 모든 법이 따라올 것입니다.

3.대비심大悲心: 삼매를 얻고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마음입니다.

염불은 점의 법문이면서 돈의 법문입니다.

문수사리 반야경에 이르길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행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외딴 곳에 머물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상과 겉모습을 취하지 말라. 한 부처님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의 명호를 외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서쪽을 향해 똑바로 앉아야 합니다. 만약 한 부처님에 대해 계속해서 마음을 고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아난다가 들은 법은 무한합니다. 일행삼매를 얻으면 모든 경전과 법문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말하고 선언합니다. 지혜와 재변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게다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한다면, 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법은 심오하고 미묘하지만, 중생의 마음은 산란합니다. 산란한 마음으로 관법을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경에서는 16번째 관으로 염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 주제를 참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 명호만을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염불하고 마음은 집중합니다. 각각의 음절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입으로 발음합니다. 마음은 맑고 밝으며, 탁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를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들고 머리카락을 곤두세웁니다. 둘째,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것은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암탉은 갈증이나 배고픔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염불할 수 있다면, 비록 현상 염불이지만, 여러분은 왕생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치를 깨우치게 됩니다. 공구선사는 이르길, "누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지 참구할 필요가 없다. 일편단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고 참구할 수 있다면, 이를 정토와 선의 병행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지염불 혹은 이지염불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력(염불)과 함께 노를 젓는 것(선)에 의존합니다. 용명수 선사는

이르길 "정토와 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뿔이 달린 호랑이와 같다: 이 생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며, 미래에는 조사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구할 때는 다른 주제를 참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만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서 마음(능) 밖에는 염불되어지는 부처(소)가 없고, 부처(소) 밖에는 염불하는 마음(능)이 없다는 것을 관해야 합니다. 능과 소가 모두 사라지고 자아와 부처님의 상이 합쳐집니다.

만약 그것들이 존재한다면, 염불하는 마음은 색과 분리되고 상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염불되어지는 부처는 얻을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만약 그것들은 공하다고 한다면, 염불하는 마음은 민첩하고 흐릿하지 않으며, 염불되어지는 부처는 맑고 분명하며 밝습니다. 유와 공은 분리되지 않고 마음과 부처는 동체입니다.

이렇게 참구하면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을 '진상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네 가지 방법 중 후자의 형태는 전자보다 더 심오하지만, 이지염불을 성취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직접 연결됩니다.

그 사람이 수명이 다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그래서 그는 끝내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염불삼매를 이룬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들을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력입니다. 또한 대경전에 이르길 법장 비구가 부처가 될 때 이미 보리심을 발하고 온갖 공덕을 닦고 극락토에 왕생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시방의 신들과 인간들은 임종 시에 부처님과 성인들이 와서 그들을 정토로 데려가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력입니다.

자력의 정도에 따라, 그들은 네 정토 중 한 곳에 왕생합니다.

1. 범성동거토: 이곳의 존재들은 아직 자기 집착을 조복하지 못했습니다.
2. 유여방편토: 이승의 성취한 수행자를 위한 곳입니다.
3. 실보장염토: 더 이상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않는 보살들을 위한 곳입니다.
4. 상적광토: 무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죽음 후에 먼저 두 발이 차가워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정수리에서 팔식이 떠나므로 정수리는 차가워지는 마지막 부위입니다. 상근기의 사람들은 중음신을 거치지 않고, 화생으로 연좌를 타고 한순간에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쿵푸와 복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품으로 왕생합니다. 삼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명호만을 외우세요!

왕생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몸의 부위를 통해 우리는 어디에 왕생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수리: 부처님 정토에 왕생합니다.

눈/이마: 천상에 왕생합니다.

심장: 인간계에 왕생합니다.

배: 아귀계로 떨어집니다.

무릎: 축생계로 떨어집니다.

발바닥: 지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질문: 관경에는 관을 강조하는데, 왜 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까?

답: 그 답은 또한 다양한 관법(예: 아미타불찬에 나타난 보신을 관하는 것)을 설명하는 바로 그 경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행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열세번째 관은 "노상劣像" 관 (8피트 황금의 몸)입니다. 하지만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 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여섯번째 관은 말법시대에 특히 중생의 업장이 심할 때 염불법이 적합함을 가르칩니다.

관경의 하품왕생장下品往生章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임종시에 염불을 권하는 '선지식'을 만나고 지극하게 끊이지 않고 부처님 명호를 열 번 외울 수 있다면, 한 번 염불할 때마다 8억의 생사의 잘못을 근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후에, 그는 태양만큼 큰 금빛 연꽃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고, 사의 공간에서 그는 왕생할 것입니다.

비록 말법 시대의 중생은 근기가 둔할지라도, 여전히 불성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과 아미타불의 명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의 명호를 만들어 냅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경전에 이르길 '여래'는 모두 법계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중생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은 32상 80종호입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을 만듭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질문: 왜 우리는 조사가 가르친 대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참구해야 할까요?

대답: 조사들은 자비심으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몽매함에서부터 자성의 아미타불을 갑자기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수단입니다.

질문: 아미타불의 모습이 마가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 염불하지 않는데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 마입니다. 능엄경에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동안 마가 온다면, 사건의 마음을 씻으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에는 "마가 오면 마를 베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베어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질문: 7일 동안 방해받지 않고 염불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정답: 네.

질문: 그 후에 다시 미혹함이 일어나고 잘못을 범하여도 여전히 왕생할 수 있습니까?

답: 후에 마음은 더이상 미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번뇌, 칭찬과 비방, 득과 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주는 부처님 염불 삼매에 들어가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상을 일으키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대경의 심념법에 이르길 매일 이른 아침에 입을 행구고, 사방에 향을 바치고, 합장하고, 한 호흡에 부처님 명호를 열 번 외운다고 합니다. 낮에도 염불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열 번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은 왕생할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기를 기다려서 도를 닦지 마십시오. 고독한 묘의 절반은 젊은이들의 묘입니다." 사전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임종시 혼란스럽지 않고 열 번의 염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질문: '서방극락정토'는 수십 억개의 국토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왕생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에만 불과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 생각의 공간에서 크게 밝혀줍니다.

왜 우리는 왕생을 얻기 위한 세 가지 필수조건이 모두 필요한가요? 믿음만 있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서원을 세우되 믿지 않거나 염불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만 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없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하나입니다.

비록 관경에는 이르길 임종 시에 지극하게 열 번 염한다면, 한 번 염할 때마다 8억 겁의 생 동안 지은 죄를 소멸한다고 하지만, 보통 때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밝은 태양처럼, 염불 지혜의 빛은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질문: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을 해도 업을 소멸할 수 있나요?

답: 부처님 명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확실히 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왕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이래로 쌓은 업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한 염불 실력으로는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를 깨뜨릴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처님의 명호를 단 한 번 염한 80세 노인의 일화를 기억하니까?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하였지만 인연이 무르익자 제도되었습니다. 일심으로 염불하면 얼마나 더 효과적일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 업이 형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온 허공조차도 이 업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불을 100년 동안 하루에 10만 번 하고 한 번 염불할 때마다 8억 겁의 생의 잘못이 근절된다고 합니다. 근절된 잘못이 참외라고 한다면, 나머지 근절되지 않은 잘못들은 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염불 수행인들은 중간에 망상 없이 108 염주로 염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념 없는 일심이 선근의 인연입니다.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위없는 이익이 되는 도리를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대열반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나”의 여덟 가지 자재를 증득했습니다.

1. 화신이 미진수만큼 많습니다.
2. 모든 법계에 몸을 나눕니다.
3. 갠지스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불토에 날 수 있습니다.
4. 무수한 중생의 모습으로 나투지만 여전히 한 곳에 있습니다.
5. 육근(감각 기관)이 서로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달성했습니다.
6. 모든 법을 얻었지만, 어떤 법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 법을 설함에 자재하여 무한겁 이후에도 법의 의미가 여전히 타당합니다.
8. 모든 곳에 가지만, 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로움을 볼 수 있는" 오안을 구족합니다. 그는 모든 궁극적인 법의 진상眞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움"은 미혹에서 벗어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로움은 삼사라를 수평으로 벗어나 서방극락정토에서 왕생하고 3가지 불퇴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로움"은 불가사의한 공덕에서 얻는 이점을 일컫습니다. 이것이 이理의 단계입니다.

사事의 단계에서 '이로움'이란 임종 시에 염력(자력)과 아미타불의 힘에 의지해 마음이 전도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큰 이로움입니다. 이러한 전도가 없기 때문에 극락정토에 왕생하고 고통을 떠나 행복을 얻으며 생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제6의식)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으며, 제8식에 저장된 습관 에너지가 증폭되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토법문 수행자들은 복과 지혜를 모두 기르고 왕생을 서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종시에 자연히 마음은

전도에서 벗어나고 복, 지혜, 왕생을 추구합니다. 복과 지혜는 왕생의 원인을 돕습니다.

능엄경에 이르길 "청정한 생각(순상純想: 악한 생각이 아닌 청정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승천합니다: 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승천하는 마음이 이미 복, 지혜, 청정한 서원을 구축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시방의 부처님을 뵈고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거나, 외도의 법문을 수행하여 샷된 지혜를 얻는다면 분명 왕생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정토를 수행하지 않고 선만을 수행하는 자들은 샷된 지혜에서 자유로울지라도 왕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삼매의 정도에 관계없이, 임종 시에 습기가 일어나서 그들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라한과 보살들도 그들 나름의 미혹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자궁에 머물면서 미혹이 생깁니다. 보살들은 온을 분리하는 미혹이 있습니다. 이전의 온이 소멸되면 중음신을 거쳐 새로운 온의 형태로 왕생하여 다시 세상에 나타납니다. 아라한과 보살은 전생에 미혹합니다. 서방정토에 왕생한 존재들은 전생을 기억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한생에 불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왕생의 서원을 세우도록 촉구합니다.

당나라 시대 헤림사에 원택 법사와 이원은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원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둘 다 아미산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원은 형주를 통과해서 가기를 원했지만, 원택 법사는 수도를 통과해야 하는 계곡쪽으로 가기를 선호했습니다. 이원은 세속적인 일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수도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택법사는 친구의 뜻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갔는데 강에서 물을 길는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원택 법사는 그녀를 보고 울었습니다. 이원은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원택 법사는 그녀가 3년 동안 아이를 고대하였고 그는 그녀의 아이가 되기를 3년 동안 미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법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법사는 3일 후 친구에게 그 집에 오면 그에게 미소 짓는 것만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사는 13년 후, 강주에 있는 티베트 사원 밖에서 그들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은 슬퍼했습니다. 법사는 그날 밤 목욕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 후, 이원은 그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법사가 그 집안에 왕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법사의 장례식이 끝난 후, 이원은 절로 돌아왔습니다. 13년 후, 이원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뤼양에서 강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소를 몰면서 계송을 읊는 소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삼생(과거, 현재, 미래)의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우리는 함께 달과 바람을 즐기곤 했지만, 더 이상 그것(과거 함께한 향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질없네.

옛 지인이 이렇게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오니 부끄럽네.

이 몸은 다르지만 내 영혼은 그대로이네.

이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원법사, 괜찮은가?"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원이여, 당신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군요! 세속의 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면 다시 만날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다른 계송을 읊었습니다. "전생의 몸이든 후생의 몸이든, 삶은 매우 바쁩니다. 인연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슬픕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여러 번 올랐습니다. 이제 옛 동네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는 사라졌고 이원은 절로 돌아갔습니다.

이 스님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집착 혹은 다른 숭고한 열망에 대한 집착으로 인간계에 돌아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걱정해서 인간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서방극락정토에서 훨씬 더 잘 지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최선을 다해 그들이 서방정토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청선사靑禪師는 위대한 선종의 스승입니다. 비록 숙명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생사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는 염불하기로 결심하고, '일심불란'의 사와 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생을

위해 부처님의 힘에 의존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생사를 끝낼 수 있다면,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질문: 만약 부처님의 마음이 앞서 말한 대로라면, 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인 부처가 아니라 아미타불의 힘에 의지해야 할까요?

답변: 화엄경에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에는 구별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동체입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고 일심불란을 얻으면 그 이치를 증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처님은 단지 자기 본성의 부처일 뿐입니다. 이 질문자는 아직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과 타인을 분별합니다.

질문: 중생의 죄악은 무수한데 부처님 명호를 염하면 어떻게 장애를 근절하고,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을까요?

답: 십의논+疑論에서 이르길 악행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재심在心: 우리는 악심과 망념으로 잘못을 짓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할 때, 진실은 거짓을 물리칩니다.

2 재경在境: 우리는 잘못을 짓고 전도된 상태에 집착합니다. 반면에 염불을 하면 아미타불의 수승하고 훌륭한 덕목에 오릅니다. 수승함이 열등함을 압도합니다.

3 재정在淨:: 비록 더러운 마음으로 잘못을 짓지만,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 우리의 더러움이 정화됩니다.

염불법문은 위없는 원돈법문입니다. 그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세요. 생각하고 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은 마음으로 염하세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 참된 이치에 상응하지도 않는 희론戲論을 넘어서 일체 의견意見이 끊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법문은 상근기의 수행자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말의 비명' 마명馬鳴은 브라만이었는데 500 전생에 왕이었습니다. 그는 출가 후 당나야사 밑에서 법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왕은 대중의 미혹을 근절하고자 하였고 일곱 마리의 말을 6일 동안 굶주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마명의

법을 듣도록 국내외의 모든 사문과 학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왕은 집회 앞에 굶주린 말들을 묶고 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곱 마리의 말은 눈물을 흘리고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일곱 마리의 말은 법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설법자는 평범한 스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명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심인을 전수받았고 열두 번째 조사로 인정받았고 대승기신론을 지었습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르길 서방정토와 아미타불을 마음에 념하고 수행의 모든 공덕을 정토 왕생에 회향하면 정토에 왕생하여 부처님을 뵈고 퇴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신을 관하고, 정진하고, 올바른 삼매에 머물면, 반드시 극락 세계에 왕생할 것입니다.

용수(龍樹 용나무)보살은 나무 정령이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나무에는 법을 듣는 500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가비마라 迦毘摩羅스님을 만나서 심인을 전수받았습니다. 능엄경에 이르길 용수보살은 1지 환희지를 얻었고, 그 후 서방극락의 정토에 왕생했다고 합니다.

지자(智者) 스님의 어머니는 오색향이 나타난 꿈을 꾸었습니다. 스님이 태어났을 때 방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7살에 그는 한 번 구두로 배운 보문품을 기억하여 염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사문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해심선사를 만났는데 선사는 이르길 그들이 과거 영산에서 법을 듣곤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법화경의 "약왕보살장"까지 염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진, 참된 법 공양이다"라는 구절을 염할 때, 갑자기 법화 삼매에 들어 장애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후에 천태산에 머물며 천태종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부처님 명호를 염하고 적멸에 들었습니다.

위대한 영명선사는 관료였는데 종종 방생을 하여 연수延壽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다가오자 그는 두려워 하지 않고 "저는 이미 무한한 중생을 구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칼날이 목에 닿자 칼은 세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당시 영명 선사는 재가자였지만, 출가하여 천태종에서 공부했고, 특히 정토법문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72세에 적멸에 들었습니다. 후에 병이 위중한 한 스님이 염라대왕이 한 스님의 동상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염라대왕에게 누구의 동상에 절을 하느냐고 물었고, 염라대왕은 영명 선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영명 선사는 상상품에

왕생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선사의 훌륭한 덕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의 동상에 절을 했습니다.

대아미타경에 따르면, 왕생에는 크게 세 가지 품이 있습니다.

1. 상품上輩: 이 품은 보리심을 발하고, 온갖 공덕을 쌓고, 왕생을 서원하고, 염불하는 존재들을 위한 품입니다. 임종시에 불보살님들이 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정토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황금빛 연좌 위에서 태어나 불퇴지를 얻고, 깊은 지혜와 광대한神通력, 완전한 자재를 갖추니다. 그들은 칠보로 만들어진 하늘의 궁전에 머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서 사념事理念을 모두 성취합니다.

2. 중품中輩: 중품의 존재들은 큰 공덕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낮습니다. 그들은 사념事念은 성취하지만 이념理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3. 하품下輩: 하품은 공덕을 쌓지도 않았고 보리심도 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념을 주로 수행합니다. 그들의 궁전은 땅에 있습니다. 此僅得事念, 未諳理念者生此.

다시 한 번 부처님의 불안으로 보는 정토법문의 주요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라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미혹하고 보살은 자궁에 머무는 동안 미혹합니다. 반면, 정토법문은 오탁에서 수평적으로 벗어나 즉시 불퇴지를 얻습니다. 정토 수행자는 임종시에 마음이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루"의 이로움입니다. 중생은 왕생할 때 업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그들의 업은 진성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 이르길 이리는 갑자기 깨우칠 수 있지만, 사事は 점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왕생의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경전의 증명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 경전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법의 청이 없었지만 법을 설하였습시다. 육방의 부처님들이 모두 증명하였습니다.

의심을 단절하기 위해 부처님의 찬탄을 인용함

경문

사리불아, 내가 이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동쪽 여러 세계에 계신 아촉비불.수미상불.대수미불. 수미광불.묘음불을 비롯한 향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護念)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내가 이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불가사의(아미타불 공덕의 이로움)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삼계를 수평으로 초월합니다. 미혹이 다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 서방정토는 네 가지 정토를 구족합니다. 모두가 갑자기 세가지 불퇴를 증득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을 증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생에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3. 부처님의 명호만 외우면 됩니다. 선을 하거나, 다른 방편의 법문을 관하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기간은 1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많은 겁, 많은 생, 수 년 또는 수개월 동안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한 부처님 명호를 염하면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명호를 염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서로의 공덕을 공유합니다. 아미타불의 공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른 부처님의 공덕일 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 경에 정토행문(正徒行門)이 포함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경에는 육 방의 부처님들의 명호를 열거하는데, 그들은 다른 입에서 모두 같은 소리를 내고 경을 찬탄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품지 말고, 깊은 믿음을 내어야만 합니다.

동쪽은 만물이 태어나는 봄을 상징하고 모든 움직임의 수장이기 때문에 동쪽이 먼저 언급됩니다.

부처님의 덕은 무한하기 때문에 명호가 무한합니다. 이름은 거짓이지만 덕은 진짜입니다. 그 이름은 중생에 상응하거나 인행(因行), 과덕(果德), 성성(性性), 상상(相相), 서원 또는 행에 기반을 둡니다.

육방은 일체시방을 상징합니다.

동쪽 여러 세계에 계신 아촉비불.수미상불.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을 비롯한 아촉비는 "부동하고 영원히 주하는 법신"을 의미합니다. 그의 법신은 부동하고 영원히 주합니다. '부동'은 팔풍(八風)에 의해 부동하다는 뜻입니다. 팔풍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팔풍이라고 합니다. 팔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리: 우리 대부분은 이익에 대해 집착합니다.
2. 실 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참을 수 없습니다.
3. 휘 毀: 다른 사람을 싫어하여 휘합니다. 상대를 해치기 위해 말을 조작합니다.
4. 탄 譔: 이는 다른 사람을 좋아함에서 나옵니다. 특히 그들이 없을 때, 그의 행위를 찬탄하기 위해 좋은 말을 합니다.
5. 칭 稱: 공개적으로 그의 좋은 점을 찬탄하여 상대를 높입니다.
6. 기 譏: 상대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7. 고흘 苛: 억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몸과 마음을 억압하는 악연과 악의 경계에 부딪칩니다.
8. 락 樂: 안락이라고도 하며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좋은 연과 경계를 만납니다.

"신체수족이 적연하고, 평안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팔뚝에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삼악도에 의해 부동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삼매에 있고, 부동합니다. 이 부처님은 약사불입니다.

수미상불: 수미는 "놀라운 높이"라는 뜻입니다.

수미산은 금, 은, 유리, 수정 등 4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묘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몸이 복과 장엄을 구족하고 상호의 빛이 찬란함을 상징합니다.

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높습니다. 이 부처님의 상호는 수미산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는 그의 복과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머지 9계(보살계, 벽지불계, 아라한계, 신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가 그를 흠모함을 상징합니다.

대수미불: 수미산은 산의 왕입니다. 높이가 84,000 요자나이고 하늘 아래 가장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공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법계에서 제일 존경 받습니다. 또는 이 부처님이 대법왕이고 다른 구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미광불: 수미산은 네 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찬란합니다. 이 부처님의 만덕은 완전하고 그들의 빛은 널리 빛납니다. 그는 자신의 팔식을 모든 중생을 보편적으로 비추는 4가지 지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묘음불: 그의 음은 완벽하고 훌륭하며 다른 어떤 중생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의 한음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구족합니다. 정명경에 이르길 부처님이 한음으로 법을 설하면 여러 종류의 중생이 각각 적절하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동음을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근기가 위대하면 이해가 위대합니다. 그들은 대승법을 듣습니다. 근기가 얕으면 이해가 얕습니다. 그들은 소승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인종과 자재, 성취를 얻습니다.

항하 모래 수와 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갠지스 모래처럼 많은 동방의 부처님들은 모두 이 경전을 찬탄합니다.

모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상징합니다.

갠지스는 또한 "많음"을 상징합니다. 갠지스 강에는 모래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갠지스강의 물은 축복의 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으로 그 물은 잘못을 근절할 수 있다고 믿어 사람들은 강물에 몸을 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자를 강에 넣으면 망자가 승천한다고 믿습니다. 부처님들은 종종 그 곳을 다니면서 설법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곳입니다.

넓고 긴 혀는

1. 사실을 말하고 / 2. 어디에나 보편적임을 의미합니다.

불망어의 계율을 3생 동안 엄격히 지킬 수 있다면 혀가 코에 닿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들은 순수하게 삼 아승지 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렇게 크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의 혀는 넓고 길며 부드럽고 유연하며 빨갛고 넓습니다.

“미치는” 둘러싸고 덮음을 의미합니다.

삼천 대천세계는 불도를 의미합니다.

화엄경 이세간품에 이르길 부처님의 혀는 열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일체중생에게 무진하게 분별해설分別解說합니다.
2. 끝없는 법문을 말하고 설명합니다.
3. 부처의 끝없는 공덕을 찬탄합니다.
4. 법을 설함에 한없는 변재가 있습니다.
5. 끝없는 대승법문에 대해 말하고 설명합니다.
6. 시방의 모든 허공을 덮을 수 있습니다.
7. 모든 불토를 널리 비춥니다.
8.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찬탄합니다.
9. 모든 부처님을 따르고 상응하며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10. 모든 마와 외도들을 길들이고 제압하며 생사를 끝내고, 열반에 도달하게 합니다.

위에서 설한 법을 성취한 보살들은 삼천대천세계를 덮는 '여래'의 위없는 혀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넓고 긴 허는 수행을 통해 얻어집니다. 대승의 이치와 법문들을 찬탄하기 위해 방대하고 긴 허가 필요합니다.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의구심을 갖지 마세요. 부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르길 "문자로는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요약할 수 있지만, 이치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護念)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

동쪽 방향에는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1. 시방의 부처님들은 그 국토의 존재들에게 설합니다.
2.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설합니다. 그들은 모두 서방정토의 존재를 증명하여 정토 법회에 참석한 이들이 믿음과 존경의 마음을 내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들을 호념합니다.

1. 이들은 부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 1) 그러므로 그들은 더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 2) 장애나 어려움도 없습니다.
2. 이들은 부처님의 호념을 얻습니다.
 - 1) 따라서 그들은 더욱 정진합니다.
 - 2) 그들은 퇴보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만이 아닌 시방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질문: 다른 부처님들은 이 경전을 설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호념합니까?

답: 왕의 말은 명령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서방정토를 찬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불에 대해 설합니다. 다른 부처님들도 모두 같은 것을 설합니다. 그들은 모두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이 무상의 법문을 호념합니다.

질문: 왜 모든 부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들의 경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왔습니다. 법신은 법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경문

사리불아, 남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일월등불.명문광불. 대염건불.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남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일월등불.명문광불. 대염건불.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을 비롯한

다른 모든 방향의 부처님들도 이 경전을 찬탄하고 보호합니다.

또한 남쪽 방향에도 헤아릴 수 없는 불토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정토 법문을 찬탄합니다. 여기서는 다섯 부처님만 언급됩니다.

일월등불은 세 가지 지혜(진, 속, 중도)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의 몸의 빛과 지혜의 빛이 안팎을 비춥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고 만 가지를 기릅니다. 이는 부처님의 세속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지혜는 현상에 빛을 비추고 중생들이 도를 성취하게 합니다. 달은 밤을 밝히며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는 이치를 밝히고 모든 무지를 파괴하고 근절하는 부처님의 참된 지혜를 상징합니다.

명문광불名聞光佛: 그의 이름은 만덕을 포함하고, 법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문은 그의 이름이 매우 유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광은 안팎을 비추는 그의 빛을 의미합니다. 친절의 빛은 모든 중생을 돕고 보호하면서 보편적으로 빛냅니다. 그의 명호와 빛은 네 가지 유형의 정토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명호를 듣거나 그의 빛을 접하는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대염건불은 어깨에서 빛이 납니다. 이 부처님의 명호는 실과 권의 두 지혜에서 유래합니다. 이 두 가지 지혜는 위대한 빛을 발하고, 따라서 "훌륭하게 활활

타오릅니다."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두 지혜의 큰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수많은 중생의 고통을 태워버립니다.

수미등불 그의 몸의 빛은 어둠을 파괴할 수 있는 등불의 빛과 같습니다. 그의 명호는 네 가지 지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수미산은 네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은 등불처럼 빛을 비춥니다. 이는 부처님이 팔식을 네 가지 지혜로 변화시켰음을 상징합니다: 육식이 묘관찰지가 되고, 칠식이 평등성지가 되고, 첫 오식은 성소작지가 되고, 팔식이 대원경지가 됩니다. 육식과 칠식은 먼저 인을 통해 변형되고, 나머지 의식들은 보의 결과로 변형됩니다. 그의 네 가지 지혜의 빛은 견혹, 사혹, 무명의 3가지 미혹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량정진불이라는 명호는 그의 수행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량"은 삼아승지겁 동안 육바라밀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수행은 둘 다 무한합니다. 그는 인지에서 항상 정진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다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법의 문을 증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정토의 법문에 대해 들었으니, 그 기회를 헛되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 수행에 노력하세요.

경문

사리불아, 서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무량수불.무량상불.무량당불. 대광불.대명불.보상불.정광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서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무량수불.무량상불.무량당불.대광불.대명불.보상불.정광불을 비롯한

서쪽 방향에는 정토 법문을 찬탄하는 부처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경전에는 7명호만 열거됩니다.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입니다. 그는 또한 이 경전을 설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시방의 부처님이 무수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명호는 무수한 덕목에 유래하여 많은 부처님들이 같은 명호를 공유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질문: 유교에서도 자화자찬은 피합니다. 왜 아미타불은 자신을 불가사의한 존재로 묘사합니까?

답: 아미타불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이 정토 법문을 찬탄합니다. 아미타불이 자화자찬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왕생을 열망하게 한다면 무슨 해로움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과 달리, 부처님은 사실을 말할 뿐 자기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무량상불은 무한한 상이 있습니다. 그의 명호는 무한한 상을 갖춘 것에 유래합니다. 그의 응신은 32개의 상을 갖춘 반면, 보신에는 측량할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님은 삼신을 가지며 각각은 측량할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무량당불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무한한 당기로 장엄합니다. 그의 몸의 크기와 공덕은 모두 높고 당기처럼 가장 화려합니다. 그의 명호는 법에 바탕을 둡니다. "당기"는 "삿됨을 깨고 정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당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수한 법을 세워 삿법을 멸하고 정법을 세웁니다. 중생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설함으로 헤아릴 수 없는 당기라고 합니다.

대광불: 그의 명호는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상 상에 근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몸과 지혜의 빛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순수의 빛이 사방으로 스며듭니다. 이 빛은 지혜의 빛으로 고요하지만 모든 허공을 비춥니다. 몸의 빛은 끊임없이 빛을 발산하고 멀리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것도 비춥니다. 법화경에는 백발상광이 동쪽의 18억 개의 불토를 비추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법을 설하기 전에 대광불은 빛을 발합니다. 이 부처의 위대한 지혜의 빛, 일체종지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법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대명불: 그의 명호 또한 지혜에 바탕을 둡니다. 그는 세가지 신통력, 천안통, 속명통, 누진통을 얻었고, 오주五住와 번뇌의 어둠을 멸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세가지 신통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정변지라고 합니다. 세가지 미혹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상불: 그의 명호는 상상에 기반을 둡니다. "보寶"는 애경하고 귀한이란 의미를 담습니다. 이 불상佛相은 매우 장엄하고 정제되고 수승하여 중생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게다가, 그의 전신은 고운 금과 같습니다. 그의 모든 상은 보석으로 장엄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내적, 외적인 상은 모두 존경받습니다.

정광불의 빛은 매우 밝습니다. 그의 명호는 지혜에 유래합니다. "청정"은 더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빛"은 몸과 지혜의 빛을 말합니다. 둘 다 매우 청정한 빛을 발산합니다. 그의 지혜의 빛은 완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순수하며, 빛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의 빛은 모든 번뇌와 더러움을 정화시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다시 시방제불이 이 법문을 증명합니다.

경문

사리불아, 북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염견불.최승음불.난저불. 일생불.망명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북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염견불.최승음불.난저불. 일생불.망명불을 비롯한

염견불: 그는 '세속과 진실'이라는 두 가지 지혜를 이용해 중생들을 짚어잡니다. 이 내용은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최승음불: 그의 소리는 아름답고 훌륭해서 다른 모든 소리를 능가합니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힘을 구족합니다. 중생의 구계九界의 어떤 소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부처의 삼업이 가장 뛰어납니다. 소리는 구업을 지칭합니다. 그가 법을 설할 때, 완벽한 소리로 다른 종의 중생들을 이해시킵니다. 그의 소리는 매우 불가사의하고 완전한 자재를 반영합니다.

난저불: 그의 가르침은 명예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내구성이 강한 이치를 지켰습니다. 진실이 전체가 되고 망상이 고갈되면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법신은 영구히 주하며 멸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마들이 방해하거나 전혀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일생불: 그는 세상에 나타나 태양처럼 밝은 지혜의 빛을 이용해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과 어둠을 떨쳐냅니다. 그는 태양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법을 널리 펼칩니다. 혹은 태양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중생들에게 선법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나타나 태양과 같은 지혜로 세속적인 자아와 다른 어리석음과 어둠을 밝히고 파괴합니다. 그는 밝은 태양과 같아서 하늘을 장엄합니다. 군중의 혼란은 불타 없어집니다.

망명불: 그는 중생들을 찾기 위해 가르침의 그물을 확장합니다. 법문은 그물 구멍처럼 끝이 없습니다. 교리의 밝음은 중생의 어리석음과 어둠을 없앱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의 그물을 주어 중생들이 명료함과 이해를 갖추게 합니다. 각각의 교망은 부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며, 맑고 밝으며, 완전히 꿰뚫고, 혼란과 어둠을 없앨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 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다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이 법문을 증명합니다.

경문

사리불아, 저 아래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사자불.명문불.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저 아래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사자불.명문불.명광불. 달마불.법당불. 지법불을 비롯한

하방에는 수많은 세계와 부처님들이 있는데, 이들도 또한 '정토'의 완벽한 법문을 찬탄합니다. 수륜水輪은 중생이 사는 대륙을 지탱합니다. 수륜은 금륜金輪에 의존합니다. 금륜 아래에, 풍륜風輪이 있습니다. 풍륜과 금륜이 서로 마찰하여 그 사이에 화륜火輪을 만듭니다. 이 사바 세계는 풍륜에 의해 지탱됩니다. 그 아래에는 공륜空輪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삼계(삼사라)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층층이 있습니다.

사자불: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는 굉음을 내어 100마리의 동물들을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법왕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모든 마와 외도들은 놀라서 제정신을 잃습니다. 법왕은 자재하게 설법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천상의 마와 외도들은 모두 조복받고 믿음을 냅니다. 법을 설할 때 부처님의 자재는 짐승들 사이에서 사자의 자재와 비슷합니다.

명문불은 법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명호는 시방을 흔듭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명광불: 그의 지혜의 빛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지혜의 빛은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비추고, 어둠을 떨쳐버리고, 만 가지를 길러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명호를 듣거나, 그의 빛을 접하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달마불: 법은 길을 함축하여 승이 그 길을 따라가고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불법은 중생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과 같습니다. 이 부처님의 수행은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모범이 됩니다. 특히, 그는 중생들이 피안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 무루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불법을 몸으로 삼습니다. 조건화된 법과 조건화되지 않은 법은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법당불: 기는 높고 눈에 띄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부처가 법을 말할 때, 그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궁극적인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는 높은 깃발처럼 우수하고 잘 알려진 모든 종류의 법(사성제, 12연기, 6바라밀 등)을 설립했습니다. 삼승의 수행자, 신, 용과 팔부, 인간, 비인간 등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법기불: 그는 오로지 불법을 받습니다. 소송, 대승, 돈법, 밀법을 받들어 그들의 역량에 따라 중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과거의 불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보존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다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이 법문을 증명합니다.

경문

사리불아, 저 위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범음불. 숙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건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등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저 위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범음불. 속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건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등을 비롯한

상방에는 앞에서 설명한 하방과 마찬가지로 세계가 층층으로 쌓였습니다. 이 육계 위에는 육욕천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사선의 열여덟 개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천 위에는 사공천이 있습니다. 공천 위는 공륜입니다. 공륜 위에는 풍륜이 있습니다. 풍륜 위에는 화륜이 있습니다. 화륜 위에는 금륜이 있습니다. 금륜 위에는 수륜이 있습니다. 수륜 위에는 측정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륜은 측정이 불가능한 층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방에도 수많은 부처님과 불토가 있습니다.

질문: 사방에 정토가 있는데 왜 서방 불토를 찬탄합니까?

답변: 동방토를 찬탄하더라도 당신은 역시 불평할 것입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질문: 왜 법계의 모든 정토를 찬탄하지 않습니까?

답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새로 입문한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부처님은 그와 인연있는 자들만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인지因地에서, 그는 심오하고 광대한 덕을 완성했습니다. 그후 그는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에 심은 씨앗을 활성화시켜 마의 장애가 우리를 쉽게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체성이 펼쳐지고 번영할 수 있게 합니다.
3. 부처의 씨앗은 연에서 일어납니다. 인연은 법계에 두루합니다. 한 생각은 모든 생각일 뿐입니다. 한 중생은 모든 중생일 뿐입니다. 향 하나, 꽃 한 송이, 하나의 소리, 하나의 형태를 공양하면 참회를 증득하고 수기를 하고 마정수기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시방과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하나의 보편적 체입니다. 이 서방정토는 법계 전체에 두루한 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분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기가 얇은 사람들은 서방 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근기일지라도 서방을 버리고 화엄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분별하지 마십시오! 화장이 실교實敎이고

서방정도가 권교權敎이거나 서방이 작고 화장이 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속적인 계산과 분별입니다. 그것은 권과 실의 동체를 얻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소는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고: 화엄경에 따르면, 화장세계는 비로자나불이 보살행에서 창조한 세계를 지칭합니다. 이 화장세계 안에는 수많은 소천세계가 있고, 그 중에 연화장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바세계와 서방극락정토는 연화장세계의 13층에 있습니다.

범음불의 소리는 맑고 깨끗합니다. 그의 성상은 아름답고 멋져서 듣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이 부처님의 소리는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도 법에 대한 집착도 없습니다.

숙왕불: 숙왕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달은 밤의 왕입니다. 다른 모든 별자리들이 아무리 밝게 빛나더라도 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법왕입니다. 다른 어떤 중생도 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자재하기 때문에 보살과 이승 현자, 중생의 왕입니다.

2. 북극성은 밤의 왕입니다. 다른 별자리는 존경심으로 모두 이 별을 둘러쌉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구계의 모든 중생이 귀의할 수 있는 깨달음의 왕입니다.

향상불: 향상불은 다섯가지 법신향을 구족합니다.

1. 계향 / 2. 정향 / 3. 혜향 / 4. 해탈향 / 5. 해탈지견향

계향과 덕향보다 더 좋은 향은 없습니다.

우두찬향은 모든 종류의 향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 중 6주(약 7.8125 그램의 중국 측도)가 사바 세계의 모든 향 중의 최고입니다. 능엄경에 이르길 이 향을 한번 태우면 40리(평균 약 2,400마일)에서 동시에 향내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5부 법신향을 증득하셨고, 우두찬향보다 더 시방에 향을 널리 스며들게 합니다.

향을 피우면 **향광불**은 빛을 발합니다. 그 향기는 아주 멀리 퍼지고 빛은 법을 설합니다. 그는 또한 염불법문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향과 빛으로 장엄했고, 불도를 얻었습니다. 『능엄경』의 대세지보살원통장에 이르길 부처님을 회상하거나 그의 이름을 염하는 것은 확실히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부처님도 멀지 않습니다. 아무런 방편도 없이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향을 피우는 사람처럼 몸에 향기가 스며듭니다.

세속적인 향기는 더러움을 없앨 뿐 어둠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처님의 계향, 정향, 혜향은 견해와 생각의 더러움을 멈추고 근절할 뿐만 아니라 고요함을 비추고 허공을 아우르며 무지의 어둠을 밝히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남쪽 세계와 마찬가지로 **대광견불**은 어깨에서 빛을 뿜어내며, 권과 실의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잡색보화엄신불: 갖가지 색깔의 보석-육바라밀과 만행의 인화로 그의 과덕을 장엄합니다. 과덕은 법신을 장엄합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그의 행에 근거합니다. 마음 꽃이 피기 때문에 스스로를 장엄합니다. 아니면 다양한 빛깔의 보석으로 몸을 장엄하여 몸을 가장 아름답고 좋게 만듭니다.

사라수왕불: 사라수 나무는 인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 키가 크며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추위도 시들지 않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법신체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다른 9계를 뛰어넘는 궁극의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법신체를 증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왕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나뭇잎을 드리우는 큰 나무 왕처럼, 부처님은 또한 모든 중생을 덮고 그들을 제공합니다.

보화덕불: 그는 인지에서 만행을 수행하여 과덕을 장엄했습니다. 그의 인지 수행은 보화만큼 장엄합니다.

그의 몸과 지혜, 공덕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이 부처님은 만 가지 덕을 구축합니다. 그는 보화처럼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의 꽃들은 시들 수 있지만, 보화는 견고하고 튼튼하며,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 부처님의 덕목도 그렇습니다.

견일체의불: 그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봅니다. "의意"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다섯 개의 눈으로 모든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모두 무궁무진합니다. "상태"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처님은 일체중지를 얻었고, 올바른 지식과 견해를 구축합니다. 그는 모든 법의 구경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이든 실이든, 왜곡되거나 완벽하든, 돈이든

점이든, 일반적이든 특정적이든 간에 그는 모든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수미산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미산은 네 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부처님의 네 가지 덕목을 상징합니다.

질문: 왜 다른 정토가 아닌 서방의 극락 정토로 왕생을 권하나요?

답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근기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왕생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정토 법문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실행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쉽게 일심이 됩니다.

2. 아미타불은 그의 땅을 장엄하기 위해 널리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그를 찬탄합니다.

3. 아미타불은 우리 세계의 중생들과 인연이 큼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며 그들을 도울 때, 그 중생이 성취하는 정도는 세 가지에 따라 다릅니다.

1. 부처님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전의 연이 얕다면, 중생은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실, 아미타불은 인지에서 세운 광대한 48가지 서원으로 인해 중생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3. 정토의 가르침 없이 중생들은 그곳에 왕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대아미타경에서 아미타불은 미륵보살에게 7억 2천만 명이 정토에 왕생했다고 합니다. 이들 각각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1) 광불토의 8억 명의 보살들이 정토에 왕생하고, 2) 보장불토의 9억 명의 보살들이 왕생하고, 3) 무변음불토의 2억 명의 보살들이 왕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다른 세계의 많은 존재들이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였습니다.

근기가 약한 사람은 단지 염불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것이고,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시방의 모든 불토에 왕생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방을 두고 화장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방극락정토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대천세계에 미치는 간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다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법문을 인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대아미타경에서 법장 비구는 그가 부처가 되면 모든 부처님은 그와 그의 불토를 찬탄할 것을 서원합니다.

질문: 모든 부처님께서 정토 법문을 찬탄하는데, 왜 육조조사는 이르길 "동방 사람들은 잘못을 짓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며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한다. 서방 사람들은 잘못을 짓고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며 어느 땅에서 왕생을 구하는가"라고 했습니까?

답: 이것은 선종의 상근기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정토 법문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기가 둔한 사람은 정토 법문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6조 조사는 실상염불을 찬탄합니다. 실상은 부처도, 정토도 마음 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진성의 일부입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인 아미타불을 제창하고, 서방정토는 청정심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정토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경문

사리불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 경 이름을 [모든 부처님들께서 호념(護念)하시는 경]이라고 하는 지를 아느냐? 그것은, 만약 착한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바 [아미타불의 명호(이름)와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잊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기억하여 보호하시게 되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불아, 그대들은 마땅히 내 말과 여러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잘 믿어야 하느니라.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방의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육방의 부처님은 시방의 부처님을 모두 대표합니다. 부처님 명호는 위없는 구경의 만덕을 구족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경전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사리불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 경 이름을 [모든 부처님들께서 호념(護念)하시는 경]이라고 하는 지를 아느냐? 그것은, 만약 착한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바 [아미타불의 명호(이름)와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잊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기억하여 보호하시게 되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만약 선남자가 경을 수지하면, 모든 부처님은 경을 호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퇴보하지 않고 불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대아미타경에 이르길 "과거에 복과 지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정법을 들을 수 없다. 이미 '여래'를 받들고 섬겨서 이 이치를 듣는 인연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길 "천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명호를 듣지 못하느니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참고 부처님의 명호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듣고 수지하기 위해서는 근기가 수승하여야 하고, 그 결과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경을 듣고 받드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사람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세 가지 덕을 갖추십니다.

1. 반야덕: 지혜와 덕은 구경에 도달합니다.
2. 해탈덕: 절단의 덕은 구경입니다.
3. 법신덕: 심성이 구경에 도달합니다.

질문: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을 해도 세 가지 불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둘 다 있습니다.

선악업보탐구경에 이르길 지장보살의 이름을 산란하고 오염된 마음으로 염하면 지장보살은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란하고 오염된 마음은 견혹(88등급)과 사혹(81등급)에 의해 마음이 더러워짐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염불해도 문자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삼매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혜의

성품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해信解의 마음을 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좋은 보를 받을 수 있지만 삼매력을 키우지 않는 한, 불퇴를 초월한 세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염불삼매를 얻으면 지혜가 펼쳐지고 견혹과 사혹이 파괴되어 더러운 마음이 청정하게 변합니다. '상이위相似位'에 들고 상이무생법인相似無生法忍 혹은 상이제일제相似第一諦 혹은 제일제실단第一諦悉壇을 얻고 이익理益에 들어갑니다. 시방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호념을 받기 전에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염하고 우리의 견혹과 사혹을 없애야합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염불삼매를 얻든 얻지 않든간에 부처님의 명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고 미래에 왕생하게 하는 우수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처님들은 매우 자비롭고 자애합니다; 그들은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염불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들의 명호를 통해 불가사의한 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에게 말했습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다른 경이 사라진 후 100년동안 더 이 경을 받들 것이다." 이 경전과 대아미타불은 같은 정토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경전은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올바른 인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경을 받드는 모든 선남자 선여자를 호념합니다.

중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사정취邪定聚 / 2. 부정취不定聚 / 3. 정정취正定聚

올바른 삼매에 들어간다면, 모든 부처님들은 우리를 호념할 것입니다.

불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연인불성緣因佛性: 부처님 명호를 들음으로써, 부처의 씨앗은 팔식에 심어집니다. 현생과 후생에 우리는 반드시 부처님을 뵈고 해탈할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탑이나 절에 들어가 산란한 마음으로 '나무불'을 염해도 이미 불도를 이룬다."고 합니다.

2. 요인불성了因佛性: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그 뜻을 설하고 행하는 선남자 선여자가 일심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염불삼매이고 정토가 드러납니다. 그는 정토가 마음임을 이해합니다. 법화경에 이르길 "법을 듣는 사람 중에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3. 정인불성正因佛性: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서는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자가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 등과 같이 몇 가지 선근을 불법 안에 심는다면, 도력을 사용하여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그들이 위없는 법을 수행하고 퇴전하지 않게 해야 한다."

법을 듣거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씨앗은 처음 두 가지 유형, 즉 조건과 이해의 인에 속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인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보리심을 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를 호념하고 우리는 아록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으로도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호념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1. 정토 법을 듣는 것은 문자반야입니다. 들음으로써 염불법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에 깊은 믿음을 냅니다.
2.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조반야입니다. 법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소중한 여기며, 더러움을 피하고 청정을 흠모하며, 왕생을 구할 것을 서원합니다.
3. 법을 지니는 것은 실상반야입니다. 부처님 명호를 지닙니다. 청정한 염불은 "일심불란"을 얻을 때까지 서로 이어집니다.

이 경전과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는 중생들은 분명 대근기입니다.

모든 중생은 **내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내 말"은 정보, 의보와 장엄을 설명하는 이치를 나타냅니다. 특히 우리에게 왕생을 추구하고 부처님 명호를 염할 것을 권합니다.

"믿어야 하느니라"는 어떤 의심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이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수지하고 잊지마십시오. 이는 모든 중생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대아미타경에 이르길 "믿지

않는 자들은 악도에서 옵니다. 재앙이 아직 남아서 어리석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경문

사리불아, 어느 누구이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이미 발원하였거나, 이제 발원하거나, 또는 장차 발원한다면 그들은 모두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극락세계에 벌써 왕생하였거나, 이제 왕생하거나, 또한 장차 왕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불아, 나의 가르침을 믿는 선량한 이들은 마땅히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해야 하느니라.

강설

앞 장에서는 중생들에게 정토법을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서원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사리불아, 어느 누구이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이미 발원하였거나, 이제 발원하거나, 또는 장차 발원한다면 그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극락세계에 벌써 왕생하였거나, 이제 왕생하거나, 또한 장차 왕생할 것이니라.

서원을 반복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서원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왕생의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은 희망을 의미하고 생은 오온을 의미합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은 자력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접인하겠다는 아미타불의 서원은 타력입니다. 이 정토법은 두 가지의 힘을 모두 구족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삼생 동안 왕생에 대한 서원을 세우면 반드시 그곳에 왕생할 것입니다.

이 경전에는 왕생의 서원을 세울 것을 세 번 권고합니다.

1. 정보와 의보에 대한 장엄을 설명하는 장에서 처음으로 서원을 세우도록 권고합니다 . 왕성한 중생은 모두 불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생의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2. 두번째로 서원을 세울 것을 권고한 부분은 염불을 하고 염불삼매를 얻으면 임종시에 혼란스럽지 않고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3. 세 번째로 이 장에서 서원을 세울 것을 권고합니다.

질문: 시방의 중생들이 서원을 세우고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한다면, 서방정토가 과밀해지지 않을까요?

답변: 유마거사의 방은 크기가 1장(3미터와 1/3미터)에 불과하지만 32,000명의 사자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미타불의 서원에 제한이 있을까요? 서방극락정토는 광활한 바다와 마찬가지로 모든 개울과 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토 법문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인 믿음, 서원, 행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서원으로 이끕니다. 서원 없이는 왕생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같이 작용합니다. 서원은 믿음을 위한 티켓이며, 서원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이로움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고 서원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약속된 땅에 갈 수 있는 표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서원은 행을 단단하게 지지합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에는 믿음과 행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가 하나이고 각각은 전체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원에는 서방극락정토의 안락에 대한 동경과 사바 세계의 고통에 대한 염증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문은 4대 서원을 구축합니다. '고제'에 입각하여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한 사바세계를 염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발합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번뇌가 쉽게 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제를 통해 끝없는 번뇌를 끊을 것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방극락정토를 동경하고 그곳의 왕생을 구하기 때문에, 법의 연이 충분하면, 도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법문을 배우겠다는 도제를 바탕으로 서원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서방극락정토에 사는 모든 중생이 세 가지 불퇴를 얻고, 멸제를 바탕으로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여, 도를 이루겠다고 서원합니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산스크리트어로 무상정등각이라는 뜻으로 의미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번역하지 않는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만트라와 같이 비밀스런 뜻인 것, 2) 반야와 같이 송양받는 것, 3) 비구와 같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것, 4) 염부제와 같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5) 아녹다라삼막삼보리와 같이 과거에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삼보리"는 육도를 넘어서고 샷된 깨달음이 아닌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삼막'은 '올바르고 평등한'이라는 뜻으로, 평등하지 못한 (이승은 자기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지 않으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승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승은 편향된 진실에 치우쳐 있으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속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승의 경우 진과 속이 같지 않습니다. "아녹다라"는 '위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보살의 등각을 넘어섭니다.

질문: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하면 불퇴를 얻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답: 불퇴는 염불, 선, 절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세상에 머물 것을 요청하며, 다른 사람의 공덕을 기뻐하고, 회향하고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보현보살의 다함없는 십행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참회로 인해 고정된 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여의주와 같습니다. 소원을 통해 불퇴를 얻습니다. 게다가, 부처님의 호념 덕분에, 우리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향해 불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나의 가르침을 믿는 선량한 이들은 마땅히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해야 하느니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 왕생의 서원을 세우세요.

질문: "지금"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지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현생에 서원을 세우면 이 생에 왕생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2. 각각의 생각에는 90개의 카사나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각각의 염불은 왕생의 인이 되므로, 계속 끊임없이 염불하면 왕생의 씨앗을 심고, 용맹스럽게 염불할수록 우리의 연꽃은 서방극락정토의 연못에 더 크고 더 밝게 자랍니다.

염불을 게을리하면 연꽃은 금방 오그라듭니다. 이 불가사의한 감응은 우리의 마음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몇가지 감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스님 가구는 법화경을 자주 독송하였습니다. 3일 동안 삼매에 든 후 그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르길 서방극락정토에 다녀왔는데 경전에 묘사된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일부 헌신적인 정토 수행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방이 밝은 빛과 향기로 가득한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토법을 믿었고 권속들을 수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권속 중 한 사람이 병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여왕의 꿈에 죽은 그녀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정토 법문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왕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방극락정토'를 경전에 나타난 그대로 묘사했고, 여왕에게 더 열심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나도 왕생할 수 있나요?" 그녀는 여왕의 연꽃을 보았는데 반드시 상품으로 왕생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여왕은 다음 생일에 관음보살을 보고 보살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권속은 후에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가 그녀가 서서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생의 서원을 세우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왕생의 서원은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끔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보현보살행원품에 이르길 "더구나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모든 기관이 흩어지고 친척으로부터 떠나면, 모든 권력과 지위가 상실되고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때, 재상, 위대한 신하, 내궁, 외성, 코끼리, 말, 수레, 그리고 귀중한 보석의 보물들은 더 이상 그와 동행할 수 없다. 이 서원의 왕들만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를 인도하고 그는 한 순간에 극락에 왕생할 것이다. 그곳에 가면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 등을 볼 수 있다. 이 보살들의 모습은 곧고 장엄하며, 그들의 공덕은 완전하다. 그리고 부처님이 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 희귀한 공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자애를 이해시킴

경문

사리불아,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함과 같이, 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기를, 석가모니불께서 참으로 어렵고 희유한 일을 능히 하셨도다. 시대가 흐르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수명이 흐린 이 사바세계의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능히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위하사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말씀하셨도다.』하시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함과 같이, 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기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불을 찬탄함으로써 모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찬탄에 대한 답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려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오탁 시대에 정토 법을 선포합니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10가지 쌍이 있습니다.

1. 정토에서는 부처님을 자주 뵈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 쉽습니다. 탁한 세상에서는 부처님을 자주 뵈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어렵습니다.
2. 정토에서는 법을 자주 들어 수행이 쉽습니다. 탁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어렵습니다.
3. 정토에는 수승하고 선한 자들이 모이므로 수행이 쉽습니다. 탁한 세상에서 사악한 친구들이 우리를 이끌고 끌어당겨서 수행이 어렵습니다.
4. 정토에는 마장이 없기 때문에 수행이 쉽습니다. 탁한 세상에서는 수많은 마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어렵습니다.
5. 정토에는 윤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행이 더 쉽습니다. 탁한 세계에는 끊임없이 윤회의 바퀴를 돌려 수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6. 정토에는 삼악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더 쉽습니다. 탁한 세계에서는 악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수행이 더 어렵습니다.
7. 정토에는 연을 돕는 수승한 도로 인해 수행이 더 쉽습니다. 탁한 세계에서는 탁한 연(예: 출생)과 업장 때문에 수행이 더 어렵습니다.
8. 정토에는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수행이 더 쉽습니다. 탁한 세계에서는 수명이 훨씬 짧기 때문에 수행이 더 어렵습니다.
9. 정토에는 불퇴를 증득하기 때문에 수행이 더 쉽습니다. 탁한 세계에는 대부분의 수행자가 퇴전하기 때문에 수행이 더 어렵습니다.
10. 정토에는 한생에 반드시 불도를 이루어서 수행이 쉽습니다. 탁한 세계에는 많은 겁이 지나도 보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지만 종종 고통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토의 중생은 근기가 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토법을 설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들의 업장은 특히 무겁고 왕생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의 수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돈법의 설명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계, 십선행, 사성제 12연기 등의 점교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게다가, 49재법은 너무 훌륭합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색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덕이 불가사의함을 보여줍니다.

『석가모니불께서 참으로 어렵고 희유한 일을 능히 하셨도다. 시대가 흐르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수명이 흐린 이 사바세계의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능히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위하사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말씀하셨도다.』하시느니라.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석가는 산스크리트어로 "유능하고 인간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니는 산스크리트어로 "고요하고 조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자비와 지혜, 두 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합니다. 유능함은 인간다움의 덕에 의지하여 중생들을 돕고 이롭게 하는 방편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덕입니다. 고요함은 자재하고

부동한 허공을 비추고 포함합니다. 조용함은 말이 없지만 이치에 상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덕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희유한 일을 능히 하셨도다. 그는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세존은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고, 불과에 대한 수기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방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사바 세계: 사바는 산스크리트어로 "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고통과 번민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관점에서 넓고 큰 친절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참을성 있게 견딜 수 있습니다.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 땅의 여덟 가지 고통을 견디고 참으며 벗어나거나 끝내려 하지 않는 그들의 무겁고 심오한 어리석음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탁은 빠른 모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능엄경에 이르길 원래는 맑고 깨끗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모래와 흙이 물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 결과 흙은 물과 섞여서 물은 더이상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탁입니다. 그래서 식별하거나 명확하게 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혼탁한 이 시기에 불, 물, 바람의 세 가지 작은 재앙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번뇌는 더욱 심해지고, 중생은 악에 치우치고, 오염된 견해는 점차 늘어나고, 수명은 짧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점차 악화되고, 사악해지고, 혐오스러워집니다. 모두 다섯 가지 혼탁이 있습니다.

1. 겁탁은 혼탁한 시간을 일컫습니다. 겁탁은 다른 네 가지 탁을 의지하여 일어나며, 다른 네 가지 탁의 성장을 기본 체로 삼습니다. 원래 탁은 없었지만,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겁탁의 상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불타는 장작처럼, 더 많이 탈수록 더 높이 타오릅니다. 석가모니는 이때 불과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설법의 청을 받지 않아도 이 법에 대해 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소하는 겁에서는 평균 수명이 20,000년에 달할 때 겁탁이 일어납니다. 수명이 100세에 이르면 이를 오락약시라고 합니다. 이 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의 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수평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토법 없이 중생들은 해탈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겁탁은 체와 성으로 다섯가지 견혹을 취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외도들과 친근하기를 좋아합니다. 사견이 확산됩니다. 기아, 전염병,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2. 견탁의 기본 체는 다섯 가지 둔사鈍使입니다. 다섯 가지 이사利使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견身見: 육체가 단지 사대의 거짓 결합임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를 깊이 사랑하고 집착합니다. 그것은 신기루처럼 거짓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2) 변견邊見: 중도 대신 두 극단적 견해인 허무주의나 항상함을 믿습니다. 3) 견취見取: 무지한 비구와 같이 보가 아닌 것을 보로 받아들입니다. 4) 계취戒取: 이롭지 않은 고행 수행을 하는 것 같이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 사견邪見: 인과를 믿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망견에 속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잘못을 짓게 하고 그에 따른 보를 받아 생사의 흐름에 들게 하기 때문에 사使라고 불립니다. 망상은 잘못된 지혜와 미혹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견해를 상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교리를 취하여 샷된 견해를 갖습니다. 반면에 서방극락정토의 모든 중생들은 정견을 가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생들의 견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견이 만연합니다 부처님 재세시에, 96가지 외도들의 사견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샷된 종교와 스승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견탁이라고 합니다.

3. 번뇌탁의 기본 체는 다섯 가지 둔사입니다. 다섯 가지 둔사는 1) 탐욕: 즐거운 상태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위법이 꿈이나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2) 증오: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리는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고, 조급해 합니다. 증오의 한 생각이 8만 가지 장애의 문을 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3) 어리석음: 중립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는 모든 법이 무상하고 궁극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분석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4) 오만: 중생에 대해 겸손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기본적으로 부처의 성품을 동등하게 갖추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5) 의심: 법에 대해 우리는 의심을 품습니다. 선을 가까이 하고 도를 따라야 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들은 망상에 속합니다. 번뇌탁의 상은 번뇌로 우리는 전도되고 압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서방극락정토의 중생들은 번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탁의 시기에 중생들은 점점 더 사법을 탐내고, 싸우기 위해 검과 무기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건전하지 않은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을 전하기 위해 아첨과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중생은 다섯가지 견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번뇌를 인내합니다.

4. 중생탁은 부모와 자신의 업의 인을 합쳐서 기본 체로 삼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를 돌리는 것이 상입니다. 여기서 '색'과 '마음'의 특징을 열등합니다. 오온은 합쳐져서 중생을 형성합니다. 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색, 견고하고 방해합니다. 2) 수, (다섯가지 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3) 상想은 '상相을 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온은 법을 처리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육식에 해당합니다. 4) 행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급류가 끊임없는 흐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분별하는 칠식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5) 식은 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호흡, 따뜻함, 생명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팔식에 해당합니다. 비록 중생이 오온으로 결합되었지만, 온은 그들의 본성을 가립니다. 반대로, 서방극락정토의 중생들은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장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모님, 출가자, 또는 조상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이치에 따라 수행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삶의 사악한 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대함을 수행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짓지 않고 채식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지 않습니다. 외부의 악연을 가까이 하고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기에 중생들은 외부 악연의 도움으로 혹은 오온의 잘못된 결합으로, 혹은 잘못을 범하고 선을 행하지 못함에서 생겨납니다. 법화경에 이르길 이 시기 동안 시방은 끊임없이 어둡고 모호하며, 삼악도가 확장되고, 아수라가 번성하고, 천계가 쇠퇴하며, 죽은 자는 대부분 악도에

떨어지고, 업보인연으로 인해 체력과 지혜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중생은 안락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안락을 잃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미혹해서, 생사의 바다에서 굶실거립니다.

5. 삶의 혼탁은 온을 기본 체로 삼고 수명의 쇠퇴와 소멸을 상으로 삼습니다. 인과가 모두 열등합니다. 인은 견탁과 사탁입니다. 견혹과 사혹은 수보의 인입니다. 과는 중생탁으로 거칠고 비참한 오온이 생의 과입니다. 살생업에 대한 보로, 평균 수명은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방극락정토의 중생들은 아미타불과 같이 수명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 현대 시대는 자살, 낙태, 영양실조, 빈곤, 기아, 전염병 등으로 수명이 오히려 짧아서 100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능히 아낙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시고, 중생들을 위하사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말씀하셨도다.』하시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의 수행을 성취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장 믿기 어려운 이 정토법을 자비롭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구계九界를 포함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 법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든 10가지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이 예토에 익숙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엄하고 청정한 땅을 묘사하는 정토법을 들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2. 서방정토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더라도, 서방에 왕생을 구하는 대신 시방의 정토 중 어느 한 곳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3. 비록 미래에 왕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이 사바 세계는 극락세계외 100억 세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땅에서도 왕생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비록 서방정토가 멀지 않다고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무거운 죄와 수많은 장애를 가진 보통 사람들이 그런 땅에 왕생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설령 그곳에서 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부처님의 명호만 염하는 것이 왕생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 다른 특별하고 멋진 법문이 있을 것입니다!

6. 비록 위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수궁하더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오랫동안 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나 7일 동안 그의 이름을 염하는 것만으로 왕생하기 충분할 수 있을까요?

7. 7일 동안 염불한 후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계에서 탄생은 자궁, 알, 습기 또는 회생의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서방에서는 어떻게 연꽃에서 화생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8. 비록 우리가 연꽃의 화생을 믿는다고 해도, 처음 도에 들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방에 태어나서 마법처럼 불퇴를 얻을 수 있을까요?

9. 비록 불퇴한다고 해도, 하근기의 사람들이 왕생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혹은 상근기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왕생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설령 위의 의심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경전들에서 설하는 부처의 유무, 정토의 유무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미륵불은 평균 수명이 8만년일 때 세상에 나타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평균 수명이 100년일 때 세상에 나타나셨습니까?

대답: 그들은 서로 다른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세상에 나타납니다. 왜 수명을 걱정합니까? 부처님들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떠납니다.

미륵불은 하루낮, 하루밤만 가르치는 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생의 49년동안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경문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나는 오탁의 악한 세상에서 갖은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강설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나는 오탁의 악한 세상에서 갖은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오탁 중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드물고 매우 어렵습니다.

육조단경에서 법을 꿰뚫고 도를 깨우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난 집 안에서 법왕을 발견할 수 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삼시에 진지하게 염하십시오.

열 개의 무수한 육진 속에, 세상에 올바른 빛을 가져다 주는 연꽃봉오리가 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한 부처님 명호를 단순히 염하는 것만으로 불가사의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믿기 어려운 이 정토법을 자비로써 가르쳤습니다. 이 법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렵습니다. 견탁의 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샷된 견해에 얽매어 있고, 샷된 스승들에 의해 혼란스럽습니다. 번뇌탁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항상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사악한 범죄에 시달립니다. 중생탁의 시기에 우리는 더러움에 안주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솟음칠 수 없고, 자신의 악함에 체념합니다. 수명탁의 시기에, 우리는 그저 포기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무상의 불길과 번개에 굴복합니다.

이 모든 장애 앞에서, 우리는 왜 정토 법문을 수행할 기회가 그렇게 귀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탁한 세상에서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성취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입니까. 작은 과를 얻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를 맏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향분입니다. 회향은 한문의 유통에서 유래합니다. '유'는 시간이 다할 때 까지 흐르고 전수한다는 뜻입니다. '통'은 '시방'을 관통하는 것을 뜻하는데 '통'은 공간적인 측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회향은 그것이 항상할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통분(流通分)

경문

부처님께서 이 경(아미타경)을 설법하여 마치시니, 사리불을 비롯한 여러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天人).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깊이 명심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강설

부처님께서 이 경(아미타경)을 설법하여 마치시니, 사리불을 비롯한 여러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天人).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깊이 명심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 경을 설법하여 : 다시 언급하건데, 이 법문은 가장 불가사의하고 믿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도 이 법문을 청할 만큼 충분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의 지혜를 이용하여 중생의 잠재성을 밝힙니다. 그들의 선근이 성숙해짐을 보고, 그는 청을 받지 않았지만 법문을 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세간의: 파괴될 수 있고 소멸하기 쉬운 무정 세계를 지칭합니다.

천: 삼계의 신들을 지칭합니다

인: 사바세계의 인간은 특히 견딜 수 있습니다.

아수라: 신이 아닌 신입니다. 그들은 천상의 복은 있지만 천상의 덕은 없습니다.

모든 아라한과 비구, 팔부중생, 그리고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경을 듣고 **크게 환희합니다**. '환'은 행복한 표정을, '희'는 행복한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법문은 삼사라에서 수평으로 벗어날 수 있고 중생은 진실하고 영구적인 것을 빠르게 증득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환희합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듣고, 어둡고 모호한 곳을 더듬어온 사람들이 빛과 밝음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에 뛰며 전에 없던 것을 얻게 됩니다. 더러움에 물든 자들도 정토를 듣고 환희합니다.

부처님은 다섯 가지 종류의 말을 구족합니다.

- 1.진어眞語: 부처님의 말씀은 진상을 반영합니다.
- 2.실어實語: 있는 그대로 말하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 3.여어如語: 부처님의 말씀은 이치와 일치합니다.
- 4.불망어不誑語: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 5.불이어不異語: 부처님은 결코 이상한 말을 하거나,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깊이 명심하여 : 그들은 시방의 부처에 의해 증명된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크게 믿음을 냈습니다. "믿음"은 조금의 의심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명심"은 부처님 명호를 잊지 않고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들은 감사함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했습니다. 절은 감사를 표현하는 다소 특별한 불교 방법입니다. 중국인들은 불보살님들의 지극한 자애에 감사하며 몸을 바쳐 삼보에 귀의하기 위해 삼배와 반배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물러갔고** 부처의 지시를 어김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 단계는 그 가르침을 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경전은 아라한이나 보살과 같은 위대한 덕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 경전에서는 보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끝날까요?

대답: 보살들은 분명 부처님의 자애에 분명히 감사해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말법 시대에 1억 명이 수행하면 1명이 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불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제도받습니다. 정토법문은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합니다. 신심있게 수행하여 정토에 왕생하고 지혜를 펼쳐 사바 세계에 돌아와 중생을 제도합시다.

한 베트남 비구니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베트남 스승님의 장례식에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슬퍼했고 스승님 덕으로 그녀가 수행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스승님을 49재법으로 서방극락정토로 보내달라고 청하는 대신, 스승님이 계속 일을 하도록 인간계에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제 의견을 묻지 않아서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몇 주 후, 회의에서 저는 그녀의 스승이 인간계에 환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녀의 임종을 보건데 그녀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계로 돌아오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좋은 수행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수행하기에 훨씬 더 좋은 정토에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 비구니 제자는 꽤 오래전부터 매일 좌선을 할 때마다 스승이 다소 화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계속 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에 있는 그녀의 사형 또한 그들의 스승이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자에게 그녀의 스승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꾸짖고 그녀가 얼마나 무지한지 말했습니다. 그녀가 누구길래 스승에게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합니까? 스승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스승은 제자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서방 정토로 갈지 아니면 다른 계로 갈지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제 제자는 즉시 이해했고, 무릎을 꿇고 49재로 스승을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였고 2주 후에 그녀의 스승은 극락 정토로 왕생하여 좌선하는 동안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말하길 베트남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법당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밝은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면, 수행하기 위해 정토로 왕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진정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예토로 돌아오지 마세요.

불설 아미타경 끝

업장을 근절하고 서방에 왕생하기 위한 다라니

나모어미뉘포예 / 뉘튀체뉘예 / 뉘디예튀 / 어미리두포피 / 어미리뉘
시단포피 / 어미리뉘피쟈란디 / 어미리뉘피쟈란뉘 / 체미니체체뉘 /
즈뉘쟈리 / 쉬포허 (3X)



영화 선사

영화 선사의 약력

베트남 출신인 영화 선사는 미국에서 학사학위와 MBA를 취득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베트남을 재건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포부로 미국에 건너갔지만, 경영진의 자리에 오른 후,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위대한 스승 선화상인의 가르침을 접했고, 이것은 그가 수도 훈련에 들어가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았고, 불교를 위해 그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화선사는 선화 상인의 위앙 법맥의 명상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만각 선사로부터 임제 법맥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대승을 공부한 후 영화선사는 "스승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불교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불법을 광범위하게 설하고 다음 세대의 수행자들을 용맹스럽게 훈련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영화선사의 제자들은 뛰어난 명상가가 되었습니다.

영화선사는 선과 정토의 병행수행을 지지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선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생의 마지막에 진정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토에 왕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옛 가르침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대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성현들의 지혜를 꿰뚫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돕고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서방의 삼현



**BODHI LIGHT
INTERNATIONAL, INC.**